蔚山「彦陽 磁器所」地表調査 報告

- 蔚州郡 三同面 荷岑里 陶窯址 -

朴洪國, 金榮珉, 車順喆, 曺永相

2000

威德大學校 博物館
蔚山大學校 博物館

목 차

Ⅰ. 머리말 ····· 1

Ⅱ. 조사경위 및 조사단 구성 ····· 2
1. 조사경위 ····· 2
2. 조사단 구성 ····· 3

Ⅲ. 유적의 입지 및 지역연혁 ····· 3
1. 유적의 입지 ····· 3
2. 지역연혁 및 역사적 환경 ····· 4

Ⅳ. 유적현황 ····· 14
1. 주변유적 개관 ····· 14
2. 하잠리도요지의 현상 ····· 15

Ⅴ. 채집유물 ····· 16

Ⅵ. 수습된 도자기편의 명문에 대한 고찰 ····· 27

Ⅶ. 맺음말 ····· 32

■ 도판 (사진, 실측도, 탁본) ····· 35

삽도 목차

삽도 1. 하잠리 도요지 위치도(S=1:25,000) ····· 5
삽도 2. 하잠리 도요지 위치 세부도(S=1:10,000) ····· 6

표 목차

표 1. 삼남면 동리 변천 일람표 ····· 7
표 2. 언양현 자기소의 변천추이 ····· 8
표 3. 『世宗實錄地理志』의 자기소 일람표 ····· 9
표 4. 현재까지 확인 또는 비정되고 있는 자기소 현황표 ····· 13
표 5. 울산 및 언양지역 도요지 현황표 ····· 14
표 6. 조선전기 상왕부·세자부 명칭 변화 및 존속기간 일람표 ····· 28
표 7. 『仁壽府』銘 분청사기 일람표 ····· 29
표 8. 현재까지 알려진 도요지 채집 『仁壽府』관련 명문 분청사기편 일람표 ····· 30
표 9. 경상도지역 자기소 현황표 ····· 32

도판 목차

도판 1. 하잠리 도요지 전경(남쪽에서) ····· 36
도판 2. 하잠리 도요지 1구역(대암호 주변) 유물노출상태 ····· 36
도판 3. 하잠리 도요지 1구역, 퇴적층 근경 I ····· 37
도판 4. 하잠리 도요지 1구역, 퇴적층 근경 II ····· 37
도판 5. 하잠리 도요지 2구역(추정 가마) 근경 ····· 38
도판 6. 하잠리 도요지 2구역 퇴적층 근경 ····· 38
도판 7. 하잠리 도요지 3구역 근경 ····· 39
도판 8. 하잠리의 백토 노출 상태 ····· 39
도판 9. 청자 대접 1, 2, 3(측면, 실측도) ····· 40
도판 10. 청자 접시(측면, 굽, 실측도) ····· 41
도판 11. 청자 종지 1, 2, 3(측면, 굽) ····· 41
도판 11-1. 도판 11의 실측도 ····· 42
도판 12. 청자 동이편 ····· 42
도판 13. 국화문 1a1(1)접시편, 1a2(2)종지편(내면, 굽) ····· 42
도판 14. 국화문 1b(1), 1c(2)접시편(내면, 굽) ····· 42
도판 15. 국화문 2초벌구이편(내면, 굽) ····· 43
도판 16. 국화문 3a(1), 3b(2)대접편(내면, 굽) ····· 43
도판 17. 국화문 3a 대접편(측면, 실측도) ····· 43
도판 18. 국화문 4a(1)접시편, 4b(2)종지편(내면, 굽) ····· 44
도판 19. 국화문 5a(1), 5b(3), 6a(2)대접편(내면, 굽) ····· 44
도판 20. 국화문 6b(1), 6c(2), 6d(3)대접편(내면, 굽) ····· 44
도판 21. 국화문 8a(1)접시편, 8b(2)대접편(내면, 굽) ····· 45
도판 22. 소국화문 1a(1), 1b(2)대접편(내면, 굽) ····· 45
도판 23. 소국화문 2a(1)종지편, 2b1(2), 2b2(3)대접편(내면, 굽) ····· 45
도판 24. 소국화문 구연부편 1, 2(내면, 외면) ····· 46
도판 25. 연주문 1, 2 대접편(내면, 굽) ····· 46
도판 26. 연주문 3 마상배편(측면, 실측도) ····· 46
도판 26-1. 도판26 마상배(내면, 굽) ····· 47
도판 27. 나비문 1a(1), 1b(2)대접편(내면, 굽) ····· 47
도판 28. 나비문 2a(1), 2b(2)대접편(내면, 굽) ····· 47
도판 29. 나비문 3, 4 대접편(1, 2), 5 접시편(3)(내면, 굽) ····· 48
도판 30. 와선문 1 대접편, 2 접시편(내면, 굽) ····· 48
도판 31. 육원문 1, 2 대접편(내면, 굽) ····· 48
도판 32. 연판문 1, 2 대접편(내면, 굽) ····· 49
도판 33. 연판문 합 1, 2 뚜껑편(외면) ····· 49
도판 34. 여의두문 대접편(내면) ····· 49
도판 35. 파선문 접시(1), 대접편(2)(내면, 굽) ····· 50
도판 36. 파선문 합편 1, 2(외면, 내면) ····· 50

도판 37. 파선문 구연부편 1, 2, 3, 4, 5(내면, 외면) ····· 50
도판 38. 파선문 구연부편 2의 세부 ····· 51
도판 39. 파선문 초벌구이 병편(외면) ····· 51
도판 40. 파선문 초벌구이 동이편(외면) ····· 51
도판 41. 선문 호편(외면) ····· 51
도판 42. 선문 초벌구이편(내면) ····· 51
도판 43. 선문 호 동체편 1, 2, 3(외면) ····· 52
도판 44. 호 저부편 선문(1, 2), 파선문(3) (외면) ····· 52
도판 45. 귀얄문 대접편(측면, 실측도) ····· 52
도판 45-1. 귀얄문 대접편(내면, 굽) ····· 53
도판 46. 귀얄문 접시(내면, 굽, 실측도) ····· 53
도판 47. 귀얄문 접시 1, 2(내면, 굽, 실측도) ····· 54
도판 48. 귀얄문 종지 1, 2, 3(내면, 굽, 실측도) ····· 54
도판 49. 귀얄문 뚜껑 1, 2(상면, 하면) ····· 55
도판 49-1. 실측도 ····· 55
도판 50. 상감문 편 1, 2(외면) ····· 55
도판 51. 조화문 분청사기편 1, 2, 3(외면) ····· 55
도판 52. 음각선문 분청사기편(상면, 하면, 측면) ····· 56
도판 53. 상감문 분청사기편(외면) ····· 57
도판 54. 분장백자 대접편 1, 2(내면, 외면) ····· 57
도판 55. 분장백자편(외면, 내면) ····· 57
도판 56. 백자 접시편(내면, 굽, 실측도) ····· 58
도판 57. 백자 접시(1) 및 종지편(2)(내면, 굽, 실측도) ····· 58
도판 58. 백자 마상배편 1, 2 ····· 59
도판 59. 「彦陽 仁壽」(1, 2) 및 「彦陽 彦陽」(3) 명문도자기편(내면) ····· 59
도판 59-1. 도판 59. 1의 명문세부 ····· 59
도판 59-2. 도판 59. 3의 명문세부 ····· 59
도판 60. 「○壽府」명 초벌 대접편(내면, 굽, 명문탁본) ····· 60
도판 61. 「○壽(?)府」명 종지편(내면, 굽, 명문세부) ····· 60
도판 62. 「彦○公(仁)壽」명 초벌구이편(내면, 굽) ····· 60
도판 63. 「彦仁」명 종지편(내면, 굽) ····· 61
도판 63-1. 1은 도판 63, 2는 도판 65 실측도 ····· 61
도판 64. 「彦○」명 종지편(내면) ····· 61
도판 65. 「順」명 접시편(내면, 굽) ····· 61
도판 66. 「○世(?)」명 종지편(내면, 굽) ····· 62
도판 67. 「礼」명 분청사기편(내면) ····· 62
도판 68. 「長興」명 분청사기편(내면) ····· 62
도판 69. 「彦陽 ○興」명 초벌구이편(내면, 굽) ····· 62
도판 70. 「水營」명 분청사기편(내면, 굽, 명문세부, 명문탁본) ····· 63
도판 71. 不明文字 분청사기편 1, 2(내면, 굽) ····· 63
도판 72. 不明文字 小片 1, 2, 3(내면, 굽) ····· 63

도판 73. 「夫」명 대접편(1), 종지편(2)(내면, 굽) ····· 64
도판 74. 「上」, 「大」명 초벌구이편(내면) ····· 64
도판 75. 「五月」명 태항아리편(외면, 내면, 명문세부) ····· 64
도판 76. 「十」명 청자접시편 1, 2(내면, 굽) ····· 65
도판 77. 「十」명 분청사기편 1, 2(내면, 굽) ····· 65
도판 78. 「十」명 귀얄문 분청사기편 1, 2(내면, 굽) ····· 65
도판 79. 「十」명 인화문 초벌구이편 1, 2(내면, 굽) ····· 66
도판 80. 「十」명 인화문 분청사기편 1, 2(내면) ····· 66
도판 81. 「入」형 표기 초벌구이 대접편(굽) ····· 66
도판 82. 청자 常燔 번조상태 ····· 66
도판 83. 분청사기 常燔 번조상태 ····· 66
도판 84. 常燔상태(분청사기에 백자가 부착된 상태: 외면, 내면) ····· 67
도판 85. 갑발편 1, 2(외면, 갑발1의 실측도) ····· 67
도판 86. 갑발 뚜껑편(하면, 상면, 실측도) ····· 68
도판 87. 토제 도지미 1, 2, 3 각종 ····· 68
도판 88. 폐자기(1), 돌 도지미(2) ····· 68
도판 89. 물레 부속구 1, 2, 3 ····· 69
도판 90. 분청사기 다리편 1, 2 ····· 69
도판 91. 어망추 1, 2 ····· 69
도판 92. 「卍」자명 평와편 ····· 69
도판 93. 「彦陽 仁壽府」명 인화분청사기 대접 ····· 69
정양모, 『분청사기』, 중앙일보사, p.182에서 전재
도판 94. 공동조사단원(2000. 4. 26. 촬영) ····· 69

Ⅰ. 머리말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과 그 주변에는 조선시대의 도요지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이들 도요지 중에는 상북면 이천리 천왕산요지와 같이 사적(제129호)으로 지정된 것도 있지만, 대다수의 도요지는 비지정 문화유적으로 남아있으며, 도시화와 산업화의 물결에 밀려서 점차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언양지역 도요지중에는 조선시대 초기에 분원(分院)이 설립되기 전까지 왕실과 관청 등에 분청사기와 백자 등을 번조하여 공납하였던 곳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어 왔다. 국립중앙박물관, 대학박물관과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명문도자기 중 「언양 장흥고(彦陽長興庫)」, 「언양 인수부(彦陽仁壽府)[1]」(도판 93) 등 명문도자편들은 관용(官用) 도자공납품(陶磁貢納品)들이 언양지역에서 제작되었음을 알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지역에 흩어져 있는 수 많은 도요지들중 한 곳이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되어 있는 「언양 자기소(彦陽磁器所)」로 비정될 수 있겠지만 이전까지 그 장소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였다.

현재까지 진행된 경상도지역에 대한 도자사관련 연구는 여타 지역에 비해서 매우 부진한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경상도지역 도자사관련 연구가 부진한 원인을 찾아보면, 우선 이 지역에 도자기 전문연구자가 거의 없다는 데 있을 것이다. 따라서 도자기연구에 가장 지름길이라고 생각되는 도요지에 대한 지표조사나 발굴조사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이 선사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의 유적·유물에 집중되어온 점과도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간헐적으로 일부 연구자에 의해 매우 중요한 연구성과가 발표되고, 또 부분적인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것도 사실이다.

1968년에 제출된 鄭澄元의 「慶南地方 陶磁器의 硏究」 -陶窯址 및 그 出土品을 中心으로-(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는 경상남도 지역에 대한 최초의 도요지 지표조사보고로 「영산 인수(靈山仁壽)」명 분청사기를 제작했던 「영산 자기소(靈山磁器所)」를 학계 최초로 확인하는 등 다수의 중요한 성과를 담고 있다. 또한 1985년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서 실시된 경상남도 하동군일대 도요지에 대한 지표조사에서는 통일신라시대의 토기요지 1개소, 고려말~조선초기의 청자요지, 조선시대의 분청사기요지, 백자요지 등이 보고되었으며, 진주시 대곡면 월아리(月牙里) 등 「진주 자기소(晋州磁器所)」가 확인[2]된 한편, 한국정신문화연구원에서 간행한 『한국의 청자요지』[3]와 『한국의 백자요지』[4]는 청자와 백자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있으나, 경상도지역 도요지에 대한 자료소개는 극히 일부분에 그친 감이 없지 않다. 최근에는 경북 칠곡군 다부동 자기요지[5], 경북

---

1) 국립중앙박물관에 1점, 개인 소장품 1점이 알려져 있다.
본 보고서 표7. 「仁壽府」銘 분청사기 일람표 참조.

2) 이 지표조사에서는 2곳의 자기소(晋州市 水谷面 孝子里 中全마을, 泗川市 昆陽面 松田里 蒲谷마을)를 재조사되었으며, 1곳의 자기소(晋州市 大谷面 月牙里)를 새로 확인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鄭良謨, 『慶南地域 陶窯址 調査報告』 -河東郡을 中心으로-. (國立慶州博物館, 慶尙南道 河東郡, 1985) pp.7~17.

3) 崔淳雨, 『韓國靑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2)

4) 鄭良謨, 尹龍二, 金得豊, 『韓國白磁陶窯址』 (韓國精神文化硏究院, 1986)

안동 신양리 조선백자요지[6], 경남 진해시 태평동 자기요지[7], 경남 산청군 방목리 백자요지[8] 등이 조사되었다.

이번에 본 공동조사단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에서 「彦陽仁壽」銘을 포함한 다량의 명문도자기편과 청자, 분청사기(인화문, 귀얄문, 조화문, 상감문), 분장백자, 백자로 만들어진 각종 도자기편들이 수습된 것은, 울산은 물론, 경상도지역의 도자사연구에 소중한 자료들이어서 학계의 관련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조사기간동안 몸을 아끼지않고 충실히 조사에 임하여준 전 조사원과 본 보고서의 유물사진 촬영을 맡아준 오세윤 사진작가(국립경주박물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또한 이번 하잠리 도요지에 대한 지표조사에서는 도요지 현황과 수습된 명문분청사기 및 자기소 관련자료에 대하여, 정징원(부산대학교 고고학과 교수), 강경숙(충북대학교 박물관장), 윤용이(원광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나선화, 장남원(이상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서영남(부산대학교 박물관), 전승창(호암미술관), 장기훈(해강도자미술관) 등 여러 선생님이 도움의 말씀을 주셨다. 깊이 감사드린다.

Ⅱ. 조사경위 및 조사단 구성

1. 조사경위

울산대학교 교육대학원에 재학중인 조영상(지도교수 전호태) 울산 화봉공업고등학교 교사일행은 울산광역시 언양읍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도요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하던 중,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의 대암 호수가에 수많은 도자기편이 산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위덕대학교 박물관과 울산대학교 박물관에 조선시대의 대규모 분청사기 가마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이에 두 대학 박물관은 공동으로 하잠리 도요지에 대한 정밀지표조사에 착수하기로 하고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였다. 현지조사는 2000년 3월 31일부터 4월 16

5) 尹容鎭 外, 「漆谷 多富洞 磁器 窯址」『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發掘調査報告書』(慶北大學校博物館, 1991). pp.9～36, 153～165.

6) 朴淳發, 「안동 신양리 조선백자요지」『大邱～春川間 高速道路 建設豫定地域內 文化遺蹟 發掘調査報告書』(軍威～安東間), (慶北大學校博物館, 慶南大學校博物館, 1992) pp.9～94.

7) 창원대학교 박물관에 의해서 발굴조사된 청자가마터로 청자발생기에 조업했던 초창기 가마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嶺南考古學會 「발굴조사현황(16.鎭海市 太平洞 磁器窯址 緊急發掘調査)」『嶺南考古學』24, (嶺南考古學會, 1999). pp.198～200.

8) 산청 방목리도요지는 1996년에 대전～진주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사)부산·경남유적보존협의회 합동조사단에 의하여 조선시대 초기(15세기 후반)의 백자가마 3기와 폐기장이 발굴조사 되었다.

일까지 2주일간 모두 8차례에 걸쳐 실시하였다.

공동지표조사 및 지도대조결과 이 도요지는 앞서 말한 부산대학교 정징원 교수의 석사논문을 통해 이미 알려져 있던 하잠리 도요지 1, 2, 3과는 별도의 유적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이 도요지에서는 지금까지 학계에 알려지지 않았던 「언양 인수(彦陽 仁壽)」, 「언양 장흥(彦陽 長興)」 과 같은 명문자료편이 수습됨으로써, 그 중요성을 확연히 인식할 수 있었다. 이에 두 대학박물관 공동조사단은 언양읍 하잠리를 중심으로 이미 알려진 가마터들에 대한 지표조사도 함께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하잠리 도요지」를 조선시대 『世宗實錄地理志』에 기록된 「언양자기소(彦陽磁器所)」로 비정함과 동시에 가마에 백토를 공급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 조질의 백토층이 부근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부수적인 성과도 거두게 되었다.

2. 조사단 구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및 인근지역 도요지 지표조사를 수행한 공동조사단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공동조사단장 : 김무생(위덕대학교 박물관장)
전호태(울산대학교 박물관장)
책임 조사원 : 박홍국(위덕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실장)
조 사 원 : 김영민(울산대학교 박물관 학예연구원)
차순철(위덕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유경원(위덕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이경인(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남연의(울산대학교 박물관 연구원)
김현철(울산대학교 박물관 조교)
조영상(울산시 화봉공업고등학교 교사)
이노우(울산대학교 도서관)
양기봉(울산시 신정고등학교 교사)
이상근(울산시 생활과학고등학교 교사)
조사 보조원 : 김영진(동국대학교 학생)
이태영(위덕대학교 학생)

Ⅲ. 유적의 입지 및 지역연혁

1. 유적의 입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는 1968년에 축조된 대암댐[9]에 의하여 조성

9) 대암댐은 1968년 6월 1일에 착공하여 1969년 12월 1일에 완공된 용수전용 댐이다. 대암천을 주 수계로 하며 유역면적은 77㎢이다. 댐의 형식은 토언(土堰)

된 대암호의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다. 하잠리 도요지가 위치하고 있는 곳은 하잠리 산5-1, 산9-1, 산9-2번지와 80번지 일대로 대암호의 북안이며, 현재 「마파람가든」이라는 식당이 있다(도면1, 도판 1).

하잠리 도요지의 추정범위는 현재 밤나무 밭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과 식당주변을 포함하여, 동서 300m, 남북 150m에 약 10,000여평이 넘는다(도면 2).

현재 대암호 주변에는 물의 침식에 의해서 많은 도자기편, 도지미, 가마 벽체 등이 주변에 흩어져 있으며, 대암호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폐기물 퇴적층의 두께는 약 50㎝ 정도이다.

이 지역은 남북방향으로 길게 발달된 구릉지대로, 해발고도는 50~75m에 걸쳐 있다. 1968년 이전에는 남쪽에 대암천이 있었고, 주변에는 조업에 필요한 연료와 자기제작에 필요한 조질백토층(도판 8)이 가까이 있는 점은 도요지 입지에 필요한 여러 조건을 구비하고 있다.

2. 지역 연혁 및 역사적 환경

1) 지역연혁

울산시 언양읍(彦陽邑)과 삼동면(三同面)지역은 신라 경덕왕(景德王) 16년(757년)에 상북면(上北面) 길천리(吉川里)의 지화(知火)에 치소를 두었던 거지벌현(居知火縣)이 이름을 헌양현(巘陽縣)이라 개명하고, 고헌산(高巘山)의 남쪽인 지금의 언양면으로 현 치소를 옮겨서 양주군(良州郡)의 영현(領縣)으로 하였다. 고려 예종(睿宗) 9년(1108년)에 울주(蔚州)의 속현이 되었다가, 인종(仁宗) 21년(1143년)에 감무(監務)를 두었으며 그 뒤 언양(彦陽)으로 고쳤다.

조선시대 태종(太宗) 13년(1413년) 감무를 현감(縣監)으로 하였으나, 선조(宣祖) 32년(1599년)에 울산에 병합되었으며, 광해군(光海君) 4년(1612년)에 다시 현감을 두게 되었다. 고종(高宗) 32년(1895년)에 동래부 소속의 언양군이 되었다가 다음해에 경상남도에 편입되었으며, 1914년에는 울산군에 병합되었다.

1962년 울산읍이 시로 승격할 때 울주군에 속하게 되면서 각각 언양읍, 삼동면이 되었으며, 1995년 시군통합에 의해서 현재 울산광역시에 통합되었다[10].

2) 지명의 유래 및 변천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三同面) 하잠리(荷岑里)는 조선시대 세종(世宗)과 예종(睿宗)때의 한터(大吐里)로 비정되는 곳으로, 정조(正祖) 연간에는 왕방(旺方)과 하잠(荷岑)이라 하여 삼동면(三同面)에, 고종(高宗) 때에는 하남면(下南面)에 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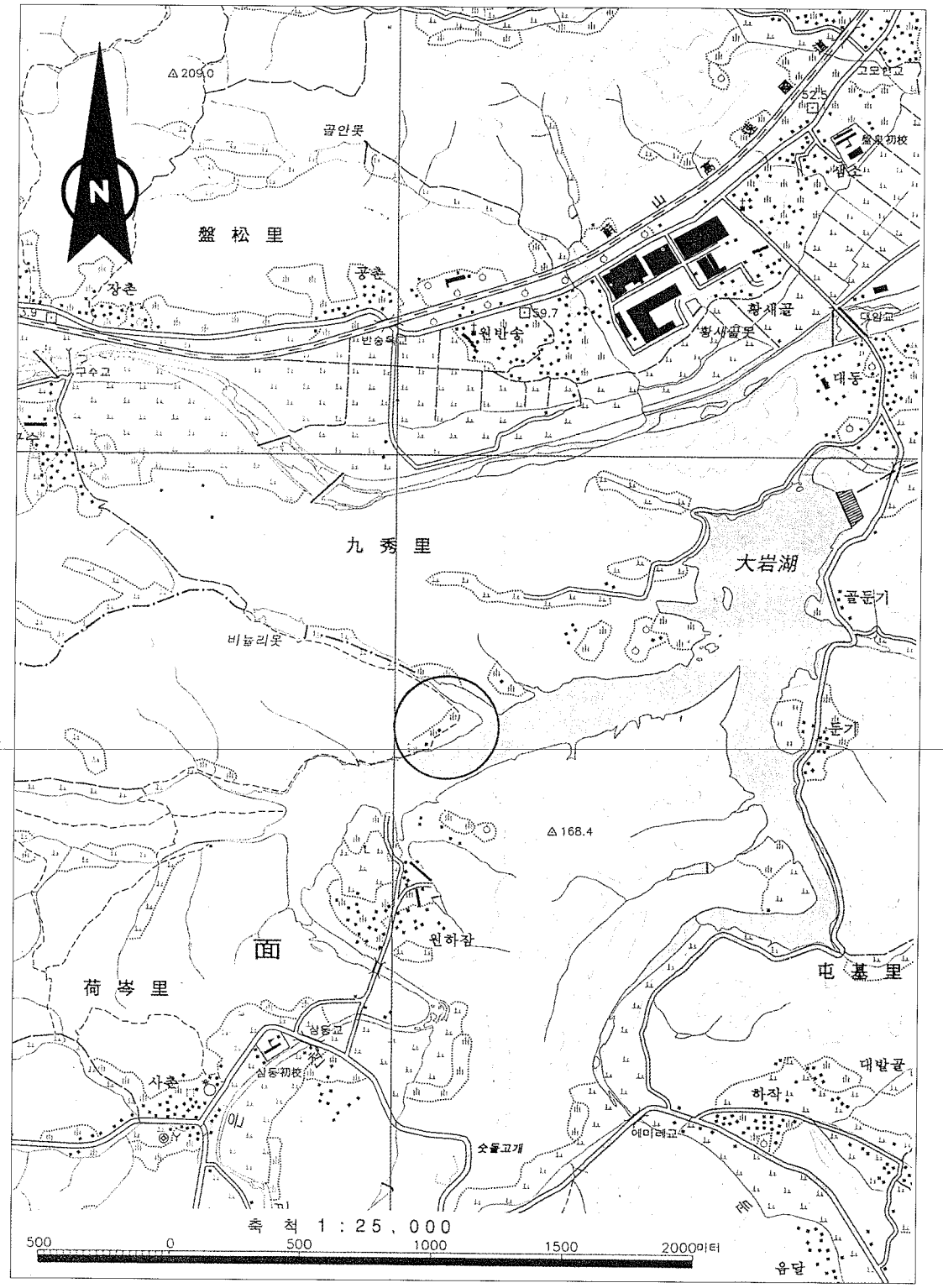
이며, 규모는 길이 318m, 높이 27m, 총 저수용량은 9,500(천㎥), 유효 저수용량은 5,000(천㎥)이며, 계획 홍수위 52.9EL.m, 상시 만수위 48.5EL.m, 저수위는 44.5EL.m이다.

이상은 한국수자원개발공사 홈페이지(www.kowaco.or.kr) 용수댐 현황에 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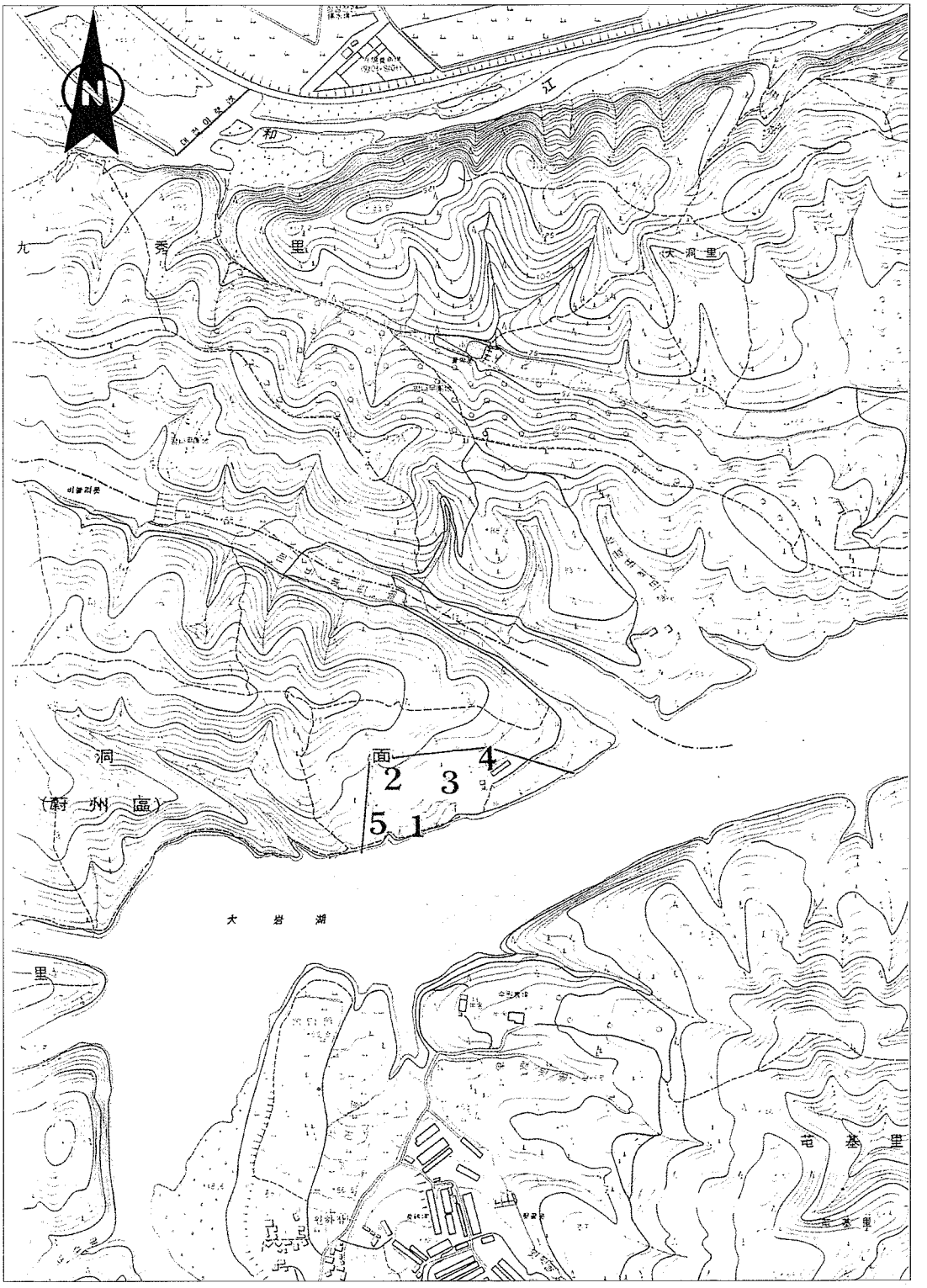
10)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9 (경남편)Ⅱ. (1980) p355, 394.

李有壽, 『蔚山地名史』(蔚山文化院, 1986). pp.535~7, 652~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 16(1991)



도면 1. 하잠리 도요지 위치도(S=1/25,000)
(국립지리원, 1999년 12월, NI 52-2-13-4 언양의 일부를 전재)



도면 2. 하잠리 도요지 위치 세부도(S=1/10,000)
(국립지리원, 1996년, NI 52-2-13-087의 일부를 전재)

한터(大吐里)라는 지명은 「큰 터」라는 뜻으로, 「大」는 훈독할 때 「한」, 「吐」는 그 뜻이 「터」이므로 「한터」가 된다. 하잠리 사촌(沙村)은 자기소가 있어서 사촌이라 불렸다고 하며,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 언양조(彦陽條)에 "院宇 大吐里猪村院",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與地勝覽)』 언양조(彦陽條)에 "驛院 猪村院在縣南二十四里"라 기록된 점으로 볼 때, 대토리(大吐里)는 현 삼동면의 사촌(沙村) 마을 일대로 추정할 수 있다[11](표1. 삼남면 동리 변천 일람표 참조).

<표 1> 삼남면 동리 변천 일람표[12]

정조연간 (1777~1800)	고종 31년(1894)	1911년	1914년
德泉里 坪地里	德泉里	校洞里	校洞里
	坪 里	平 里 水南里	
雙水亭里	雙水亭里	新華里	新華里
加乙川里	加乙川里	加川里 長堤里	加川里
		象川里	象川里
方基里	芳基里	上芳基里	芳基里
		下芳基里	
早日里	早日里	早日里	早日里
	大溪里	松亭里	實隱里
	實隱里	實隱里	
新光里	新光里	金谷里	金谷里
			出崗里
荷岑里	荷岑里	荷岑里	荷岑里
旺方里	旺方里	沙村里	
鵲洞里	鵲洞里	鵲洞里	鵲洞里
九藪里	九藪里	九秀里	芚基里
			九秀里(彦陽面 移屬)

한편, 언양현의 주요 토산품에 대해서는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 언양현조(彦陽縣條)에, "토산(土産)은 사철(沙鐵)이 현(縣) 서쪽 석남동(石南洞)에서 나며, 자기소(磁器所)가 1, 도기소(陶器所)가 1이니, 모두 현 남쪽 대토리(大吐里)에 있다, 【하품이다.】 (土産 …… 磁器所一陶器所一此在縣南大吐里下品)[13]" 라는 기록과 『경상도속찬지리지(慶尙道續撰地理志)』 언양조(彦陽條)의 "도기소(陶器所)와 자기소(磁器所)는 현 내의 옹곡리(瓮谷里)와 현 남쪽 대토리(大吐里)에 있다. 도기의 품질은 하품, 자기의 품질도 하품이다. (陶器所磁器所在縣內瓮谷里及縣南大吐里陶器品下磁器品下)" 라는 기록을 통해볼 때 「언양 자기소」가 이 지역에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표2. 언양현 자기소의 변천추이 참조)

---

11) 李有壽, 앞 註의 책, pp.652~5.

12) 이 표는 李有壽, 註)11의 책. p630에 게재되어 있는 「三南面里洞 變遷 一覽表」의 내용을 수정없이 轉載한 것이다.

13) 세종대왕기념사업회, 민족문화추진회, 『국역 조선왕조실록』 (서울시스템주식회사,1999)

<표 2> 언양현 자기소의 변천추이

文獻 및 刊行時期	磁器所의 位置	質	彦陽 土産條	비고
『世宗實錄地理志』 (1424~1432)	縣南 大吐里	下品	磁器(下品), 陶器(下品)	·
『慶尙道續撰地理誌』 (1469)	縣南 大吐里	下品	磁器(下品), 陶器(下品)	·
『經國大典』 工典條 (1469)	·	·	·	外工匠 2명
『東國與地勝覽』 (1478~1486)	·	·	鐵, 香蕈, 松蕈, 石蕈, 石淸蜜, 地黃, 苽(菰), 銀口魚, 黃魚, 石榴	**※ 磁器는 표기되어있지 않음**

3) 고려말 조선초 언양지역의 유력문벌

언양지역의 유력 가문에 대해서는 『世宗實錄地理志』에 "토성(土姓)이 둘이니, 박(朴)·김(金)이며, 내성(來姓)이 셋이니, 현(玄)·최(崔)·김(金)이다. 대표적인 인물(人物)은 김취려(金就礪)이다"라고 표기되어 있다.

언양 김씨의 시조 김선(金鐥)은 경순왕의 일곱째 아들로, 『언양김씨신유보(彦陽金氏辛酉譜)』와 『조선씨족통보(朝鮮氏族統譜)』의 기록에 의하면, "그가 고려(高麗)때 언양군(彦陽君)에 봉군되었으므로, 후손들이 본관(本貫)을 언양(彦陽)으로 하게 되었다"고 전한다.

이상의 기록들에 비중을 두어 생각하면 언양지역에 있어서 가장 유력한 문벌로 "언양 김씨"를 지목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이러한 언양 김씨들 중 김선(金鐥)이래 조선초까지 활약한 주요인물들을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김 선(金 鐥) - 경순왕의 7남, 언양 김씨의 시조 : 언양군(彦陽君)에 봉해짐
김정보(金精寶) - 김선의 손자 : 호부상서(戶部尙書)
김경숙(金鏡淑) - 김선의 증손 : 대장군(大將軍)
김 수(金 壽) - 김경숙의 자 : 신호위 별장(神護衛別將)
김언련(金彦連) - 김수의 자 : 신호위 중랑장(神護衛中郎將)
김취려(金就礪) - 김선의 7세손 : 대장군(大將軍), 개부의동삼사(開府儀同三司)
김 전(金 佺) - 김취려의 자 : 문하시중평장사(門下侍中平章事)
김 변(金 賆) - 김 전의 자 : 첨의평리(僉議評吏)
김문연(金文衍) - 김 전의 손 : 찬성사(贊成事), 언양군(彦陽君)
김 윤(金 倫) - 김변의 자 : 좌정승(左政丞), 언양부원군(彦陽府院君)
김경직(金敬直) - 김윤의 자 : 문하시중(門下侍中), 언양백(彦陽伯)

※ 以上 高麗朝

김숙보(金淑甫) - : 병조판서(兵曹判書), 언양군(彦陽君)
김 관(金 瓘) - 김숙보의 자 : 관찰사(觀察使), 언양군(彦陽君)
적개이등공신(敵愾二等功臣)[14]

※ 以上 朝鮮朝

14) 「3) 고려말 조선초 언양지역의 유력문벌」부터 이상의 내용은 「한국인의 족보」(www.koreafamily.com.) "彦陽 金氏"條를 요약 정리한 것이다.

이상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언양 김씨들은 고려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 무관(武官)으로 관계(官界)에 활발히 진출하였던, 이 지역 최대의 유력문벌세력으로 계속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언양읍 송대리 능곡마을에는 김취려의 묘[15]가 있으며, 오늘날까지도 이 골짜기를 능곡(陵谷)으로 부를 정도로 언양 김씨들의 지역기반이 강력하였다고 생각된다.

하잠리에 도자기가마가 생기고 활발한 번조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왕권 및 중앙정부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하거나 또는 크게 약화되었다고 생각되는 고려말기에 이르러, 언양 김씨 등 이 지역 유력가문의 의례용기를 비롯한 다양한 도자기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안·강진 등에서 도자기 기술자들을 언양지역으로 이주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여주고 있다.

왜냐하면 화목(火木)의 확보, 태토의 운반 및 수비, 번조작업, 완성된 도자기의 운반등 수많은 노동력이 소요되는 대규모 가마운영은, 거기에 걸맞는 권력과 경제력이 수반되지 않고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언양 김씨를 중심으로 한 이 지역의 유력가문들은 이곳 하잠리에 도자기 기술자들을 정착시키고, 도자기 제조술을 발달시키는데 있어서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추정되며[16], 이와 같은 계기와 노력에 따라 언양지역이 일찍부터 손꼽을만한 도자기 생산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전국적으로 자기소가 139개소, 도기소가 185개소로 모두 324개소의 자기와 도기를 생산하던 가마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중 자기소의 현황은 아래 표3과 같으며, 지금까지 위치가 확인 또는 비정되고 있는 자기소는 표4와 같다.

<표 3> 『世宗實錄地理志』의 磁器所 일람표
("※"표시는 현재 위치가 확인 또는 비정되고 있는 자기소)

이 표는 정양모, 『분청사기』 중앙일보사, 1984. pp196~8의 「자기소 일람표」를 전재하고 ※부분을 첨가한 것임

道	지역	數	소재지 및 이름	質	비고
京畿道	廣州	4	주 동쪽 벌내(伐乙川)	상	※
			주 동쪽 소산(所山)	하	
			주 남쪽 석굴리(石掘里)	하	
			주 동쪽 고현(羔峴)		※
	楊根	1	군 서쪽 돌만리(豆乙萬里)	하	
	砥平	1	현 동쪽 대동(大洞)	하	
	楊州	1	부 북쪽 사천현 한탄리(大灘里)	하	
	抱川	1	현 동쪽 봉소리(峰巢里)	하	
	加平	1	현 서쪽 봉재리(峰在里)	하	
	龍仁	1	옛 처인(處仁) 가마골(窯山洞里)	하	

15) 김취려의 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면 송대리 산 15번지에 위치하며, 현재 울산광역시 지정문화재 0007-00-00-26호이다. 봉분의 높이는 약 2m, 직경 약 7m의 원분(圓墳)이다.
상기내용은 문화재청 문화재정보마당(http://www.ocp.go.kr/)과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 『文化遺蹟總攬』中卷, p536에 의함.

16) 고려시대말에서 조선시대 초기까지의 지방가마 변화와 지역 토착세력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나선화선생의 교시가 있었다.

道	지역	數	소재지 및 이름	質	비고
	陽智	1	현 남쪽 함항(檻項)	하	
	鐵原	1	부 서쪽 골바리(高乙波里)	하	
	永平	2	현 동쪽 동량이(東良伊里)	하	
			현 남쪽 말가리(馬乙加伊里)	하	
	계	14			
忠淸道	忠州	1	주 서쪽 보련동(寶蓮洞)	하	※
	槐山	1	군 남쪽 인현리(茵峴里)	하	
	天安	1	군 남쪽 풍세현 개재골(介峴洞)	하	※
	木川	1	현 북쪽 오산(烏山)	중	※
	全義	2	현 서쪽 망현리(芒峴里)	중	
			현 남쪽 송현리(松峴里)	중	※
	燕岐	1	현 북쪽 요혜방(要惠方)	중	
	溫水	1	현 남쪽 윗골(上谷里)	중	
	永同	1	현 서쪽 가마점리(加乃岾里)	하	
	黃澗	1	현 동쪽 와정동(臥鼎洞)	중	
	鎭川	1	현 서쪽 대삼동(大三洞)	하	※
	公州	2	주 북쪽 군지촌(軍知村)	중	※
			주 동쪽 동학동(東鶴洞)	중	※
	藍浦	1	현 동쪽 취련몰리(吹鍊毛老里)	중	
	定山	1	현 서쪽 장항리(獐項里)	중	
	鴻山	1	현 북쪽 7리 밤한골(所音漢洞)	중	
	連山	1	현 동쪽 벌곡리(伐谷里)	하	
	扶餘	1	현 서쪽 유현동(杻峴洞)	하	
	瑞山	1	군 북쪽 사기동(沙器洞)	하	
	禮山	1	현 동쪽 초이방(草伊方)	하	
	靑陽	1	현 동쪽 장곡동(長谷洞)	하	※
	保寧	1	현 서쪽 청연리(靑淵里)	하	※
	大興	1	현 동쪽 부은이리(夫隱伊里)	중	
	계	23			
慶尙道	慶州	2	부 서쪽 대곡촌(大谷村)	하	
			부 북쪽 물이촌(勿伊村)	하	
	密陽	2	부 동쪽 오산리(烏山里)	하	
			부 동쪽 율동리(栗洞里)	하	
	梁山	1	군 남쪽 금음산리(今音山里)	중	
	蔚山	1	군 북쪽 제여답리(齊餘沓里)	하	
	興海	1	군 북쪽 장생리(長生里)	하	
	慶山	1	현 남쪽 두야리 조조동(助造洞)	하	
	昌寧	1	현 남쪽 남곡리(南谷里)	하	
	彦陽	1	현 남쪽 대토리(大吐里)	하	※
	靈山	1	현 동쪽 신현리(新峴里)	하	※
	順興	1	부 북쪽 사동리(沙洞里)	하	
	永川	1	군 동쪽 원산곡리(原山谷里)	하	
	義城	1	현 서쪽 금석리(金石里)	하	
	仁同	1	현 동쪽 막곡리(莫谷里)	하	

道	지역	數	소재지 및 이름	質	비고
	義興	1	현 남쪽	하	
	尙州	3	중모현(中牟縣) 북쪽 추현리(楸縣里)	상	
			중모현(中牟縣) 동쪽 이미외리(已未隈里)	상	
			공성현(功城縣) 서쪽 원동(院洞)	중	
	星州	1	주 동쪽 흑수리(黑水里)	중	
	善山	2	부 동쪽 우물곡리(亏勿谷里)	하	
			해평현(海平縣) 동쪽 구등제리(鳩等堤里)	하	
	陜川	1	군 서쪽 수개곡리(樹介谷里)	하	
	金山	1	황금소(黃金所) 보현리(普賢里)	중	※
	高靈	1	현 동쪽 예현리(曳峴里)	상	※
	軍威	1	현 서쪽 백현리(白峴里)	중	
	晋州	3	주 북쪽 목제리(目堤里)	하	
			주 서쪽 중전리(中全里)	하	※
			주 동쪽 월아리(月牙里)	하	※
	金海	1	부 동쪽 감물야촌(甘勿也村)	하	
	昌原	1	북쪽 산북촌리(山北村里)	하	
	咸安	1	군 동쪽 대산리(代山里)	하	
	昆南	2	군 남쪽 포곡리(蒲谷里)	중	※
			군 동쪽 노동(蘆洞)	중	
	珍城	1	단계현(丹溪縣) 동쪽 두곡리(豆谷里)	하	
	三嘉	1	가수현(嘉樹縣) 서쪽 감한리(甘閑里)	중	
	宜寧	1	본현 동쪽 원당리(元堂里)	하	
	계	37			
全羅道	全州	1	부 남쪽 장파곤동(長波昆洞)	중	※
	錦山	1	군 남쪽 수질채리(水叱采里)	중	
	古阜	1	군 서쪽 부안곶이(扶安串)	하	※
	金溝	1	현 남쪽 금산(金山)		※
	扶安	1	현 남쪽 감불리(甘佛里)	중	※
	井邑	1	현 남쪽 소곡(所谷)	중	
	泰仁	1	현 동쪽 수약동(水若洞)	하	※
	羅州	1	주 서쪽 대각동(大角洞)	중	
	海珍	1	군 동쪽 파지점(波池岾)	하	
	靈岩	2	군 서쪽 곤미(昆湄) 다점리(多岾里)	중	다점리에 2개소가 있음
	靈光	1	군 서쪽 구수동(九岫洞)	하	
	咸平	1	현 북쪽 완창리(完昌里)	하	
	務安	1	현 서쪽 주동(周洞)	중	
	高敞	1	현 서쪽 덕암리(德巖里)	중	※
	興德	1	현 남쪽 갑향(甲鄕)	중	
	長城	1	현 서쪽 모율리(毛栗里)	하	
	南原	1	부 북쪽 아산리(阿山里)	중	
	淳昌	1	군 북쪽 18리 심화곡(深火谷)	하	
	任實	1	현 서쪽 사아곡(沙阿谷)	중	
	茂朱	1	현 동쪽 근산(近山)	하	
	鎭安	1	마령현(馬靈縣) 남쪽 두언리(豆彦里)	하	※

道	지역	數	소재지 및 이름	質	
	谷城	1	현 남쪽 우곡(牛谷)	하	
	長興	1	부 동쪽 20리 소아곡리(所兒谷里)	하	
	潭陽	1	부 동쪽 동무지(東無知)	중	
	順川	1	부 북쪽		
	茂珍	1	군 동쪽 이점(梨岾)		
	高興	1	현 서쪽 은촌(犭犬村)	하	
	綾城	1	현 서쪽 부방리(釜方里)	중	
	同福	1	현 남쪽 사평(沙坪)	중	
	玉果	1	현 서북쪽 설산리(雪山里)	하	
	계	31			
黃海道	黃州	1	주 동쪽 박산리(朴山里)	하	
	瑞興	1	부 서쪽 백납리(白納里)	중	
	鳳山	1	군 서쪽 발이산(鉢伊山)	하	
	新恩	1	현 동쪽 20리 탄동(炭洞)	하	
	海州	1	주 서쪽 63리 은동리(銀洞里)	하	
	載寧	2	군 동쪽 30리 라읍(羅邑)	하	
			군 서쪽 8리 소니(所泥)	하	
	平山	2	부 서쪽 성불동(成佛洞)	중	
			부 북쪽 범간리(凡干里)	중	
	豊川	1	군 서쪽 14리 엿포리(餘叱浦里)	중	
	殷栗	1	현 남쪽 15리 공수동(公須洞)	중	
	長連	1	현 동쪽 6리 우이리(牛耳里)	하	
	계	12			
江原道	江陵	1	부 서쪽 보현촌(普賢村)	하	※
	蔚珍	1	현 북쪽 10리 신곡리(薪谷里)	하	
	楊口	2	현 북쪽 건천(乾川)	하	
			방산현(方山縣) 동쪽 장평(長平)	하	
	계	4			
平安道	三登	1	현 서쪽 명오리(明吾里)	하	
	江東	1	현 남쪽 이을현(泥乙峴)	하	
	順川	1	군 동쪽 광천리(廣泉里)	하	
	殷山	1	현 북쪽 소이산동(所伊山洞)	하	
	義州	1	주 동쪽 횡산리(橫山里)	하	
	定州	1	주 북쪽 사기리(沙器里)	하	
	龍川	1	군 동쪽 한전동(閑田洞)	중	
	隨川	1	군 북쪽 당오리(唐吾里)	하	
	宣川	1	군 북쪽 좌이전(佐耳田)	하	
	定寧	1	현 서쪽 소곶이(所串里)	하	
	寧邊	1	연산(延山)	하	
	雪山	1	군 동쪽 화근암(和斤巖)	하	
	泰川	1	군서쪽 목모도(木毛島)	하	
	계	13			
咸吉道	咸興	1	부 동쪽 세하동(細下洞)	하	
	文川	1	군 북쪽 화라리(禾羅里)	하	

道	지역	數	소재지 및 이름	質	
	新慶原	2	부 서쪽 건원보동 상삼기(上三岐) 부 남쪽 유신보동(有信堡洞)		
	會寧	1			
	계	5			
	총계	139			

<표 4> 현재까지 확인 또는 비정되고 있는 자기소 현황표

(이 표는 강경숙, 1989, 『한국도자사』 p322의 표를 전재하면서 그 후의 조사성과를 첨가한 것임)

※ 범례 - ○ : 현 지명과 일치하거나 쉽게 연관시킬 수 있는 지명.
△ : 음이 비슷하거나 1字 이상 옛 지명이 남아있는 것.
□ : 합성 지명.
× : 현재 지명과는 바로 일치시키지 못하는 경우.

	『世宗實錄地理志』 (1424~1432)		粉靑沙器 出土 확인지		비고	출전
1	京畿道	廣州牧 州東 伐乙川 (上品)	京畿道	廣州郡 中部面 樊川2里 (內谷)	○	강경숙, 『한국도자사』 1989, p.322.
2		廣州牧 州東 羔峴		廣州郡 退村面 陶水3里	×	〃
3	忠淸道	公州牧 州東 東鶴洞 (中品)	忠淸道	公州市 反浦面 鶴峯里	△	〃
4		公州牧 州北 軍知村 (中品)		公州市 義堂面 佳山里	×	강경숙,『미술사학연구』202, 1995, p.18.
5		保寧縣 縣西 靑淵里 (下品)		保寧市 靑所面 聖淵里	△	강경숙, 『한국도자사』 1989, p.322.
6		靑陽縣 縣東 長谷洞 (下品)		靑陽郡 大峙面 長谷里	○	〃
7		木川縣 縣北 烏山 (中品)		天安市 北面 沙潭里	×	강경숙,『미술사학연구』202, 1995, p.17.
8		天安 郡南 豊歲縣 介峴洞(下品)		天安市 廣德面 芝長里	×	〃
9		全義縣 縣南 松峴洞 (中品)		燕岐郡 全東面 松亭里	△	〃 p.18.
10		忠州牧 州西 實蓮洞 (下品)		忠州市 老隱面 蓮河里	△	강경숙, 『고고미술사론』5, 1997, p.41.
11		鎭川 縣西 大三洞 (中品)		鎭川郡 栢谷面 大門里 중수문마을	△	강경숙,『미술사학연구』202, 1995, p.18.
12	江原道	江陵大都護府 府西 普賢村(下品)	江原道	江陵市 城山面 普光里	△	홍순욱,『강릉지방 분청사기의 일고찰』 관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p.72.
13	全羅道	金溝縣 縣南 金山	全羅道	金堤市 金山面 金山里	○	강경숙, 『한국도자사』 1989, p.322.
14		扶安縣 縣南 甘佛里 (中品)		扶安郡 保安面 牛東里	×	〃
15		高敞縣 縣西 德巖里 (中品)		高敞郡 雅山面 龍溪里 德巖	○	〃
16		古阜郡 郡西 扶安串 (下品)		高敞郡 富安面 水東里	△	김영원, 『전북의 조선시대 도요지』 1997, p.31.
17		全州府 府南 長波昆洞 (中品)		完州郡 九耳面 長波마을	△	〃 p.168.
18		泰仁縣 縣東 水若洞 (下品)		井邑市 瓮東面 飛鳳里 水若洞	○	〃 p.288.
19		鎭安縣(馬靈縣) 縣南 斗彦里 (下品)		鎭安郡 栢雲面 盤松里 斗元마을	△	〃 p.311.

20	慶尙道	金山郡 黃金所 寶賢里 (中品)	忠淸道	永同郡 秋風嶺面 沙夫里 黃寶마을	□	강경숙,『미술사학연구』202, 1995, p.35.
21		高靈縣 縣東 曳峴里 (上品)	慶尙道	高靈郡 城山面 箕山洞	×	강경숙,『한국도자사』 1989, p.322.(沙鳧洞 포함?)
22		晋州牧 州西 中全里 (下品)		晋州市 水谷面 孝子里 中全마을	○	강경숙,『한국도자사』 1989, p.322.
23		晋州牧 州東 月牙里 (下品)		晋州市 大谷面 月牙里	○	정양모, 『경남지역 도요지 조사보고』 1985, pp.7~8.
24		昆南郡 郡南 蒲谷里 (中品)		泗川市 昆南面 松田里 蒲谷마을	○	강경숙,『한국도자사』 1989, p.322.
25		靈山縣 縣東 新峴里 (下品)		昌靈郡 靈山面 靑岩里	×	정징원, 『경남지방 도자기의 연구』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68,pp.49~50.
26		彦陽縣 縣南 大吐里 (下品)		蔚州郡 三洞面 荷岑里	×	본 보고서 참조

Ⅳ. 유적현황

1. 주변유적개관

언양읍(彦陽邑)과 그 주변지역에는 선사시대에서 조선시대까지의 취락, 지석묘, 암각화, 고분군, 사찰, 읍성, 도요지 등과 같은 유적들이 있다. 특히 선사시대의 대곡리 암각화[17]와 천전리 암각화 및 삼국시대 각석(刻石)[18] 그리고 석남사(石南寺), 간월사지(澗月寺址)[19], 문수사(文殊寺), 망해사(望海寺), 영축사지(靈鷲寺址)에 세워진 각종 석탑, 부도, 귀부(龜趺)와 같은 석조유물들은 이 지역이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교통 및 문물 중심지의 하나로 기능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되거나 도자기관련 연구서와 논문에 게재되어있는 울산 및 언양지역 도요지현황은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울산 및 언양지역 도요지 현황표

번호	유적명	위치	가마수	시대	출토유물	기타
1	荷岑里 도요지Ⅰ	울산시 삼동면 하잠리 80	?	고려말~조선초기 (15세기)	청자,분청사기(인화,귀얄,조화), 분장백자, 백자	본 보고서
2	荷岑里 도요지Ⅱ	울산시 삼동면 하잠리	3	조선초기 ~말기 (16세기)	사촌마을 1호: 회백자 송장목 2호: 분청사기(귀얄) 안사촌마을 3호: 회청자, 백자	정징원, 1968

17) 울산 대곡리 반구대암각화(蔚山大谷里盤龜臺岩刻畵)는 국보 285호(지정번호 0285-00-00-00)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대곡리 산234-1에 위치한다.
黃壽永, 文明大,『盤龜臺岩壁彫刻』(東國大學校博物館, 1984)

18) 울산광역시 울주군 천전리각석(川前里刻石)은 국보147호(지정번호 0147-00-00-00)로 울산광역시 울주군 두동면 천전리 207-8에 위치한다.
黃壽永, 文明大, 앞 註의 책.

19) 沈奉謹,『蔚州 澗月寺址 Ⅰ』(東亞大學校博物館, 1985)

3	芭基里 도요지	울산시 삼남면 둔기리	1	조선초기 (15세기)	분청사기(인화)	〃
4	三光里 도요지	울산시 온양면 삼광리	2	조선초기 (15세기)	점골: 회청자 ,백자 사기점: 회청자,귀얄분청,백자	〃
5	三亭里 도요지	울산시 청양면 삼정리	2	고려말~ 조선초기 (15세기)	1호: 소문청자 2호: 청자, 백자	〃
6	利川里 도요지	울산시 상북면 이천리	5~7	조선초기 (15세기)	**사적 제129호** 분청사기(인화,귀얄문)	〃
7	平里 도요지	울산시 언양면 평리	1	(15세기)	분청사기(인화문)	정양모, 1991
8	川前里 도요지	울산시 두동면 천전리	1	조선초기	분청사기(인화문),회청자,백자	慶文硏 1999

※ 범례

1. 울산시 언양읍 주변의 도요지에 대해서는 하기문헌을 참조하였다.
   鄭澄元, 「慶南地方 陶磁器의 硏究」-陶窯址 및 그 出土品을 中心으로-, (부산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1968), pp.28~31.
   鄭良謨, 「高麗·朝鮮時代磁器窯址分布現況」, 『韓國의 陶磁器』 (文藝出版社, 1991) p500.
   國立慶州文化財硏究所, 『慶州-彦陽間 京釜高速道路擴張區間 文化遺蹟 地表調査報告書』(1999) pp.109~112.
2. 각 가마의 조업시기는 개별 연구자의 의견을 따랐으며, 1~6의 경우 상단은 정징원교수, 하단 괄호부분은 정양모선생의 연대관을 따랐다.

2. 하잠리 도요지의 현상

하잠리 도요지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수지 안에 도요지와 폐기장의 일부가 수몰되어 있으며, 저수지 주변에 노출된 폐기물 퇴적층의 범위로 볼 때, 그 중심 구역은 주로 북쪽 구릉으로 추정할 수 있다. 각종 도자편의 산포상태와 폐기물 퇴적층의 범위로 구역을 나누어 보면 모두 5구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1구역은 하잠리 도요지에서 가장 빠른 단계의 유물들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구릉 끝부분에 위치한다. 대암댐이 축조되면서 폐기장의 일부가 저수지 안쪽에 수몰되었으며(도판 2), 현재 확인되는 폐기물 퇴적층의 범위는 동서 약 40m, 남북 약 20m에 두께는 약 30~50㎝이다(도판 3). 현재 도자편들은 웅덩이를 만들면서 들어낸 흙과 절개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도판 4). 도자편의 종류는 청자와 인화문, 귀얄문 분청사기로 대접, 접시, 종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도지미와 가마 벽체도 많이 있다. 인화문 분청사기의 문양은 여의두문(如意頭紋), 연주문(連珠紋), 육원문(六圓紋), 국화문(菊花紋), 초문(草紋), 점열문(點列紋), 파선문(波線紋)[20]이 있다.

2구역(도판 5, 6)은 1구역의 북쪽에 형성된 폐기물 퇴적층으로 남북방향으로 길게 내려오는 구릉지역이다. 구릉 양쪽으로 두터운 퇴적층이 형성되어 있는데,

20) 이 무늬의 명칭에 대하여 승렴문(정양모), 집단연권문(강경숙) 등 여러 가지 표기 예가 있으나, 이 보고서에서는 하나의 문양단위가 작은 파도모양이라고 생각하여 "파선문"으로 표기하고자 한다.

수많은 갑발편과 귀얄문 분청사기 및 소량의 인화문 분청사기편이 경사면을 따라 퇴적되어있다. 확인되는 문양은 주로 파선문(波線紋)과 국화문(菊花紋)이며, 폐기물 퇴적층의 범위는 동서 약 80m, 남북 약 20m이다.

3구역(도판 7)은 현재 밤나무밭으로 구 지형이 일부 절삭되면서 폐기물 퇴적층이 노출되어있다. 다른 구역에 비해서 인화문 분청사기가 많이 출토되고 있으며, 하잠리 도요지에서 수습된 명문도편들의 대부분이 이 곳에서 채집되었다. 명문은 「彦陽 仁壽」, 「○壽(?)府」, 「彦仁」, 「順」, 「○世(?)」, 「彦陽 ○興」, 「長興」, 「水營」 등이고, 인화문과 귀얄문 분청사기, 갑발, 도지미, 물레부속구 등이 채집되었다. 도자편에 시문된 문양은 파선문, 육원문, 국화문, 초문, 음각선문(陰刻線紋) 등이며, 폐기물 퇴적층의 범위는 동서 약 30m, 남북 약 20m이다.

4구역은 현재 식당건물의 북쪽 구릉으로 근대 분묘와 밤나무가 심어져있다. 일부 절삭된 지점에서 소량의 도자편들이 확인되며 2구역과는 작은 계곡으로 나누어져 있다. 흩어져있는 유물들은 인화문과 귀얄문 분청사기, 도지미, 물레부속구 등이며, 이곳에서 채집된 중요유물로는 「五月」銘 인화문 분청사기 태호편이다. 5구역은 1구역 서쪽의 구릉으로 지표에서 소량의 분청사기편만 확인할 수 있다.

본 조사단이 이번 지표조사과정에서 채집한 유물들은 청자, 분청사기(인화문, 귀얄문, 상감문, 조화문, 음각선문), 분장백자, 백자들과 갑발, 도지미, 물레부속구 등이다.

Ⅴ. 채집유물

(1) 청자

① 대접 1(도판 9의 ①)

기형의 ½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내외면에 가는 빙렬이 있으며, 내면에는 태토받침눈이, 굽에는 모래받침 흔적과 회전물손질로 정면한 자국이 남아있다. 높이 6.7㎝ 복원구경 17.6㎝, 복원저경 6.7㎝, 굽높이 0.9㎝.

② 대접 2(도판 9의 ②)

기형의 ½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내·외면을 거칠게 회전물손질한 자국이 있으며, 내면에는 태토받침눈, 굽에는 모래받침 흔적과 굽을 깎으면서 생긴 회전흔적이 남아있다. 높이 7.5㎝, 복원구경 18.1㎝, 복원저경 6.1㎝, 굽높이 1.0㎝.

③ 대접 3(도판 9의 ③)

배신의 ½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내면에는 내저원각과 태토받침눈의 흔적이 있다. 그리고 굽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뚜렷하다. 높이 6.1㎝, 복원구경 18.8㎝, 저경 5.6㎝, 굽높이 0.6㎝.

④ 접시 (도판 10)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된 것으로 내면에는 내저원각과 굽에는 3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높이 3.3㎝, 구경 12.4㎝, 저경 5.4㎝, 굽높이 0.6㎝.

⑤ 종지 1(도판 11의 ①)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된 것으로 내면에는 내저원각과 3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높이 4.0㎝, 구경 10.5㎝, 저경 4.7㎝, 굽높이 0.4㎝.

⑥ 종지 2(도판 11의 ②)

실측도면은 배신의 ½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내면에 내저원각이 있으며, 굽에 남아있는 태토받침눈은 3개이다. 높이 3.5㎝, 구경 10.5㎝, 저경 5.0㎝, 굽높이 0.5㎝.

⑦ 종지 3(도판 11의 ③)

실측도면은 배신의 ⅓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굽부분은 회전물손질로 처리되어 있으며, 태토받침눈이 남아있다. 높이 4.6㎝, 복원구경 10.5㎝, 복원저경 3.8㎝, 굽높이 0.7㎝.

⑧ 동이편(도판 12)

동이편으로 생각되며 구연부의 일부만 남아있다. 표면에는 미세한 빙렬이 있으며, 구연부는 밖으로 말아 접은 뒤 회전물손질로 편평하게 만든 것이다.

(2) 인화문 분청사기

이곳 도요지에서 수습한 분청사기의 대다수는 인화문과 귀얄문 분청사기이며, 조화문(彫花紋), 상감문(象嵌紋) 등의 기법이 사용된 도자기편은 소량에 불과하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물 대부분이 도요지에서 지표수습된 것이기 때문에 그릇의 형태가 복원되는 경우가 거의 없으므로, 개개 문양들의 구성상태를 중심으로 나누어 기술하고자 한다.

문양은 주문양대를 중심으로 구분한 결과 국화문(菊花紋), 와선문(渦線紋), 나비문(蝶紋), 연판문(蓮瓣紋), 육원문(六圓紋), 연주문(連珠紋), 파선문(波線紋), 점열문(點列紋) 등으로 나눌 수 있었으며, 위에 열거한 문양종류중 두 개이상의 문양이 함께 시문된 도자기편도 다수 있다. 또한 굽 형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두 대마디 굽이다.

1) 국화문(菊花紋)은 국화의 크기와 배치상태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으며, 국화문이 단독으로 시문된 것보다는 복합문 형태의 것이 많다.

① 국화문(菊花紋) 1

내면 중앙부에 1개의 큰 국화무늬를 시문한 것은 모두 압인한 것으로 3종류가 수습되었다.

1a1(도판 13의 ①)은 접시편으로 내면 중앙부에 국화문 1개와 그 주변에 파선문이 2단으로 배치되어 있다. 외면에는 파선문이 1단으로 시문되어 있으며, 태토받침눈이 2개 있다. 높이 2.6㎝, 복원구경 12.6㎝, 저경 5.2㎝, 굽높이 0.6㎝.

1a2(도판 13의 ②)는 종지편으로 내면 중앙부에 큰 국화문 1개가 압인(壓印)되어있고 하단에 파선문, 상단에 작은 국화문이 횡으로 배치된 것이다. 외면에는 일주하는 7~8조의 선을 돌리고 선안에 백토를 감입한 것이다.

1b(도판 14의 ①)는 접시편으로 내면 중앙부에 큰 국화문 1개와 파선문이 2단으로 시문되어있다. 내·외면은 귀얄로 백토분장되었고 태토받침눈이 2개 있다.

1c(도판 14의 ②)는 접시편으로 내면 중앙부에 큰 국화문 1개와 그 주위에 점열문을 찍은 후 내외면을 모두 두텁게 귀얄로 백토분장한 것이다.

② 국화문(菊花紋) 2(도판 15)

초벌구이 대접편으로 내면 중앙에 큰 국화문 1개와 그 주위에 8개의 작은 국화문이 횡으로 시문되어 있고, 배신에도 파선문(波線紋)이 있다.

③ 국화문(菊花紋) 3

국화문 3은 내면 중앙에 3개의 큰 국화문을 압인한 후 귀얄로 백토분장처

리한 것으로, 모두 2종류가 있다.

3a(도판 16의 ①)는 대접편으로 내면에 윤곽선이 있는 큰 국화문을 찍어 놓은 것이다. 배신과 굽에 각각 4개의 태토받침눈을 붙힌 흔적이 있다.

도판 17은 3a 대접인데 배신의 ½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배신 내면 중앙에 3개의 큰 국화문과 그 주위에 파선문이 시문되어 있으며, 외면은 귀얄로 백토분장한 것이다. 내면에는 4개의 태토받침눈이 있고, 굽에는 모래받침흔적이 있다. 높이 8.7㎝, 복원구경 18.2㎝, 저경 5.6㎝, 굽높이 1.2㎝.

3b(도판 16의 ②)는 대접편으로 내면에 윤곽선이 없이 꽃잎 자체가 음각으로 되어있는 큰 국화문과 그 주위에 작은 국화문 띠가 시문된 것이다. 대접 내면에 4개의 태토받침눈을 붙인 흔적이 있다.

④ 국화문(菊花紋) 4

국화문 4의 내면 중앙에는 4개의 국화문이 있으며, 채집된 2종류는 모두 인화문 분청사기이다.

4a(도판 18의 ①)는 접시편인데, 그 내면 중앙에는 4개의 국화문을, 배신에는 파선문이 각각 시문되어 있다. 외면에는 시계방향으로 도는 굵은 횡선들이 있으며, 그 내부에는 백토가 감입되어 있다. 굽은 제두도립삼각형으로, 접시 내면에는 3개의 태토받침눈이 있고, 굽에는 모래받침흔적이 있다.

4b(도판 18의 ②)는 종지편으로 내면에 4개의 국화문과 그 주위에 연판문이 시문되어 있고, 배신에는 파선문이 있다. 그릇 내면에는 4개의 태토받침눈, 굽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⑤ 국화문(菊花紋) 5

국화문 5의 내면 중앙에는 5개의 국화문이 표현되어있다.

국화무늬의 대소, 여백처리 등의 차이가 있는 2종류가 수습되었다.

5a(도판 19의 ①)는 대접편인데, 내면은 5개의 국화문과 그 사이에 꽃잎들을 연결하면서 교차되는 호선(弧線)으로 장식되어 있다.

5b(도판 19의 ③)는 대접편으로 지름 1.8㎝의 국화문을 압인하고, 그 주위에 소국화문이 시문되었음을 깨어져나간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⑥ 국화문(菊花紋) 6

국화문 6의 내면 중앙에는 6개의 국화문이 찍혀있다. 시문된 국화문은 그 형태에 따라 4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6a(도판 19의 ②)는 대접편인데, 내면에는 6개의 국화문과 그 주위에 작은 국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배신에는 파선문이 있다.

6b(도판 20의 ①)는 내면에 6개의 국화문이 있고, 내면과 굽에는 4개의 태토받침눈이 남아있는 대접편이다.

6c(도판 20의 ②)와 6d(도판 20의 ③)는 모두 대접편인데, 내면에는 6개의 국화문과 귀얄로 백토분장으로 처리된 것이다. 6d에는 4개의 태토받침눈을 내면과 굽에 붙인 흔적이 있다.

⑦ 국화문(菊花紋) 8

국화문 8은 내면 중앙에 8개의 국화문이 찍혀있는 것으로, 인화문과 귀얄문 분청사기 1점씩이 수습되었다.

8a(도판 21의 ①)는 인화문 접시편으로 내면에 국화문을 중앙에 1개, 주변에 7개를 찍고, 배신 내면에는 파선문을, 외면에는 굵은 횡선을 넣고 그 안에 백토를 채운 것이다. 굽에는 태토받침눈 흔적이 남아있다.

8b(도판 21의 ②)는 귀얄문 대접편으로 대접 안쪽에 작은 국화문이 1+7의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굽에 태토받침눈 흔적이 남아있다.

⑧ 소국화문(小菊花紋) 1

소국화문은 국화문을 시문한 위치에 따라서 2종류로 구분된다. 1식은 배신 안쪽 바닥에, 2식은 배신 안쪽 바닥과 꺾여 올라가는 경계면 부근에 시문되어 있는 것이다.

소국1a(도판 22의 ①)는 대접편으로 번조 당시에 상·하 2점이 눌러붙은 것이다. 上片의 내면 바닥 중앙에는 작은 국화문 10개와 그 주변에 파선문이 시문되어 있고, 下片은 그릇 중앙이 가려져 있고, 관찰가능한 바닥면에는 중앙쪽으로 파선문, 그 바깥쪽에는 작은 국화문이 시문되어있다. 下片 외면에는 굵은 백상감선이 있다.

소국1b(도판 22의 ②)는 대접편으로, 내면에 "⊕"형태로 된 12개의 작은 국화문이, 내면에는 파선문, 외면에는 가는 백상감 선문이 있다. 굽은 제두도립삼각형인데, 대접 내면에는 태토받침눈 3개가 남아있고, 굽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⑨ 소국화문(小菊花紋) 2

소국2a(도판 23의 ①)는 종지편으로, 안쪽 바닥은 여백을 둔 삼중원으로 되어있고, 그 바깥쪽에는 2단 소국화문이 있다.

소국2b1(도판 23의 ②)의 내면에 시문되어 있는 국화문은 원문에 가까운 소국화문이며, 내·외면에 파선문이 있다. 내면 바닥과 굽에는 태토받침눈 흔적이 있다.

소국2b2(도판 23의 ③)의 바닥중앙에는 아무런 무늬가 시문되어 있지 않고, 바로 그 바깥쪽으로 원주위의 돌기(꽃잎)가 뚜렷한 소국화문, 파선문의 순으로 장식되어 있다. 내면 바닥에는 태토받침눈, 굽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⑩ 소국화문(小菊花紋) 구연부편 1, 2(도판 24)

도판 24의 ①, ②는 각각 대접과 접시편으로 내외면 모두 구연부로부터 초문, 소국화문 순으로 시문되어 있다.

2) 연주문(連珠紋)

현재까지 이곳 하잠리 도요지에서 수습된 연주문 도자기편에는 내면 중앙에 큰 국화문을 두고 그 주위에 시문한 예 뿐이다.

① 연주문 1(도판 25의 ①)은 대접편으로, 내면 바닥 중앙에는 큰 국화문 1개와 연주문, 그리고 2조의 구획선 바깥쪽에도 같은 연주문이 연달아 일주(一周)되어있다. 특이한 것은 굽의 바깥면에도 이 연주문이 있다는 점이다. 내면과 굽에 각각 4개의 태토받침눈 흔적이 있다.

② 연주문 2(도판 25의 ②)는 대접편으로, 내면 바닥 중앙에 큰 국화문 1개와 연주문이 있고, 그 주위에는 파선문이 있다.
외면은 귀얄로 백토분장처리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백토가 많이 발라져 무늬가 흐릿하게 보인다. 내면 바닥과 굽에 각각 4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③ 연주문 3(도판 26, 26의 1)은 마상배로 배신의 대부분이 결실된 것이다. 배신 내면 중앙쪽에 1개의 큰 국화문과 그 주변에 원무늬가 압인되어 있다. 배신 내면의 연주문 윗쪽에는 파선문을, 바깥쪽은 가는 선문과 귀얄문이 있다. 굽의 접지면에 비교적 뚜렷한 4개의 받침눈이 있다. 잔존높이 7.5㎝, 잔존 최대직경 9.4㎝, 저경 6.6㎝, 대각높이 3.5㎝.

3) 나비문(蝶紋)

나비문은 단독으로 시문된 경우가 거의 없으며, 그 주변에 예외없이 다른

종류의 인화문이 시문되어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내·외면이 인화문인 경우도 있지만 외면은 귀얄로 처리된 것도 간혹 있다. 나비문과 더불어 시문된 주된 무늬는 점열문, 국화문, 연판문 등이 있다.

① 나비문 1

나비문 1a(도판 27의 ①)는 내부에 원구(圓區)을 구획 후 큰 국화문 주위에 나비문이 시문되어있는 대접편이다. 배신 안쪽에 나비문과 더불어 점열문(點列紋), 외면에는 파선문과 굽 주위로에 반(半)만 찍은 듯한 소국화문이 연속 시문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조금 과도하게 백토분장된 듯하지만 나비문은 비교적 또렷한 편이다.

나비문 1b(도판 27의 ②)는 초벌구이 대접편으로, 바닥 중앙에 큰 국화문과 6마리의 나비문, 내면에는 점열문(點列紋)이 있다.

② 나비문 2

나비문 2a(도판 28의 ①)의 대접편도 역시 내부 바닥안에 있는 원구(圓區)에 큰 국화문과 8개의 나비문과 내면에는 점열문, 외면에는 귀얄선문이 있다. 받침눈은 굽에만 흔적이 남아있다.

나비문 2b(도판 28의 ②)는 대접편으로 바닥 중앙에 큰 국화문과 나비 7마리 및 소국화문 1개가 있다. 이 소국화문은 7마리의 나비문을 시문하고 남은 여백의 크기가 나비 1마리를 넣을 만큼의 면적이 되지않기 때문에 보충시문한 것으로 보인다. 나비문 윗쪽으로는 파선문대, 소국화문대가, 내·외면 모두 백토가 조금 과도하게 사용된 편이다. 내면과 굽에 4개의 태토받침눈이 뚜렷하다.

③ 나비문 3(도판 29의 ①)

대접편으로 내면 중앙에 4마리의 나비문이 있고, 그 주위로 굵은 이중원문이 있다. 내면에 3개, 굽에 4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④ 나비문 4(도판 29의 ②)

대접편으로 내면의 원구(圓區)안에 국화문 1개, 소국화문, 나비문이, 배신에 촘촘한 종선문(縱線紋)이 있다. 외면의 가장 아랫쪽에는 연판문, 굽에는 소국화문이 있다.

⑤ 나비문 5(도판 29의 ③)

접시편으로 바닥 내면에 삼중선(三重線)으로 된 원구(圓區)안에 국화문(?), 나비문과 그 바깥쪽에 많이 겹치도록 시문된 국화문대가 있다. 이 도편의 잔존부분을 통하여 국화문대 바깥에는 점열문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외면 잔존부분에는 귀얄로 백토분장한 부분만 남아있다. 굽은 제두도립삼각형이며, 내면과 굽에는 태토받침눈 흔적이 있다.

4) 와선문(渦線紋)(도판 30)

대접(①)과 접시편(②)으로 배신 바닥 중앙에는 와선문, 그 주변은 지그재그 방향으로 시문된 파선문이 있다. 굽받침은 2점 모두 태토받침눈이며, 백토분장이 과하여 문양 상태가 흐릿하다. 유색은 회녹색에 가깝다.

5) 육원문(六圓紋)(도판 31)

도판 31의 ①은 대접편으로, 배신 바닥의 이중원구(二重圓區) 바깥에 육원문대가 있고, 외면 하부에도 연판문이 있다. 유약이 두껍게 시유되어 무늬가 뚜렷하지 않아 보인다. 도판 31-②는 대접편으로, 내면에 육원문대가 있다.

6) 연판문(蓮瓣紋)

① 연판문 1

1a(도판 32의 ①)의 대접편 배신 바닥의 중앙에는 무늬가 없고, 그 윗쪽으로 연판문대, 파선문대가 있다. 외면은 선문 위에 백토를 넣은 것이다. 굽은 제두도립삼각형이며 굽받침은 내면은 태토받침눈, 굽은 모래받침 흔적이 있다.

1b(도판 32의 ②)는 대접편으로 내·외면 모두 연판문대와 소국화문대로 장식되어 있다.

② 연판문 2

2a(도판 33의 ①)는 합 뚜껑 편이다. 내면에는 점열문과 파선문대가, 외면에는 구연부로 부터 초문,파선문, 연판문이 있다.

2b(도판 33의 ②)도 합 뚜껑 편으로 내면에는 2단으로 점열문대, 외면에는 구연부부터 초문, 점열문, 소국화문, 연판문의 순서로 배치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유약이 두껍게 뭉쳐져 있다.

7) 여의두문(도판 34)

대접편으로 청자대접 위에 올려놓고 번조한 것이다. 내면 바닥은 거의 결실되어 무늬를 살피기 어렵다. 구연부로부터 초문, 연속 원문, 여의두문과 중간에 흑상감된 모란당초무늬가 있다.

8) 파선문

파선문은 분청사기 배신부의 내외면에 가장 많이 시문된 것으로, 대개 원문, 초문 등과 더불어 배치된 것이 많다.

① 접시편(도판 35의 ①)

귀얄문 분청사기 접시편으로, 배신 내면에 파선문이 있고, 전체가 귀얄로 백토분장된 것이다. 내면 바닥과 굽에 각각 4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② 대접편(도판 35의 ②)

인화문 분청사기 대접편으로, 내면에 파선문이 있다. 내면 중앙과 굽에 4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③ 합편(도판 36)

귀얄문 분청사기 합의 뚜껑 편으로 외면에 인화문이 시문되어있다. 또 안쪽의 유색은 청자에 가깝다. ①은 외면 중앙에 연판문, 배신에는 파선문이 있고 전면에 두껍게 백토를 귀얄로 발라서 인화무늬가 또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②의 외면에는 파선문이 지그재그 방향으로 시문되어 있고, 전면(全面)에 백토를 분장한 것이다. ①, ② 모두 외면 중앙에 태토받침눈이 있다.

④ 구연부편 각종(도판 37)

인화문 분청사기 대접의 구연부편(도판 37의 ①,③,④,⑤)이다. 무늬의 조합은 초문+점열문, 초문+파선문, 초문+연주문+국화문, 초문+연주문+파선문 등이 있다. 도판 38은 접시(도판 37의 ②)의 구연부편으로 선단부가 톱니모양이다.

⑤ 병편(도판 39)

인화문 분청사기 병의 초벌구이편이다. 경부에 2조의 횡선문이 있고, 그 상·하단에는 파선문 안에 백토가 감입되어있다.

⑥ 동이편(도판 40)

인화문 분청사기 동이편으로 소성상태가 불량하며, 외면에는 점열문이 시문되어 있고, 내·외면 모두 두꺼운 백토분장으로 마감되어 있다.

9) 선문(線紋)

도판 41은 호편으로 어께부분에는 단선 호선으로만 표현된 음각연화문이 있다. 유약의 발색상태는 청자에 가까워 보인다.

도판 42는 초벌구이 대접편으로 바닥 중앙에 '3'자와 비슷한 음각태선 파선연결문이 있고, 내면에는 백토를 칠한 흔적이 뚜렷하다.

도판 43은 호의 동체편이다. 도판 43의 ①은 호의 어께부분 편으로 횡방향 파선문에 백토가 채워져 있다. 도판 43의 ②는 호의 동체편이다. 그 외면에 작은 국화문과 불명 문양이 나타나 있다. 도판 43의 ③의 외면에는 점열문, 파선문과 태선 사선문이 있다.

도판 44의 ②는 어떤 기형의 파편인지 알 수 없지만, 그 외면에 옆으로 계속되는 태선 거치문이 시문되어 있다. 도판 44의 ①, ③은 호의 저부편이다. ①은 평저로 외면 하부의 횡선아래에 연판문이 음각되어 있다. ③은 인화문 분청사기 호의 굽편으로 외면에 파선문대가 있다.

(3) 귀얄문 분청사기

① 대접(도판 45, 45의 1)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고, 내외면은 귀얄로 백토분장되어 있다. 내면과 굽에는 각각 4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높이 7.2㎝, 구경 15.2㎝, 저경 6.1㎝, 굽높이 1.0㎝.

② 접시(도판 46)

구연부의 일부가 결실되었으며, 내·외면 모두 귀얄로 백토분장되어 있다. 내면 중앙부에 문자가 있으나 유약의 두께가 너무 두꺼워 판독하기 어렵다[21].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있고, 내면과 굽에 각각 3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높이 4.1㎝, 구경 15.5㎝, 저경 5.8㎝, 굽높이 1.3㎝.

③ 접시(도판 47)

도판 47의 ①은 접시편으로 내외면을 귀얄로 백토분장한 것이다. 굽에만 4개의 태토받침눈이 남아있다.

도판 47의 ②는 배신의 ½이 결실되어 도면복원한 것으로, 배신에는 3~4번 회전시킨 태선문(太線紋)이 있다. 내면과 굽에 각각 4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높이 3.8㎝, 복원구경 15.3㎝, 저경 5.4㎝, 굽높이 0.7㎝.

④ 종지(도판 48)

도판 48의 ①, ②는 종지편으로, 굽에 3개의 태토받침눈이 남아있다.

도판 48의 ③은 종지편으로 배신의 ½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내면에는 내저원각과 귀얄흔적이 있고, 굽에는 3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높이 4.0㎝, 구경 10.5㎝, 저경 4.7㎝, 굽높이 0.4㎝.

⑤ 뚜껑 1(도판 49의 ①)

배신의 ½이 결실된 것이다. 상면 중앙에 유두상의 꼭지가 있다. 높이 3.0㎝, 최대직경 7.6㎝, 저경 4.0㎝, 꼭지높이 1.2㎝, 꼭지직경 2.2㎝.

⑥ 뚜껑 2(도판 49의 ②)

초벌구이편으로 일부가 결실된 것으로, 연봉상(蓮蓬狀)의 꼭지가 있다. 높이 3.3㎝, 최대직경 7.4㎝, 꼭지높이 1.8㎝, 꼭지직경 2.0㎝.

---

21) 이 도편과 도판 66, 72 도자기편에 대하여,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보존처리실에서 적외선과 X-RAY 촬영을 시도하여 주었으나, 문자판독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하지만 여러가지 다망한 중에도 이 보고서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주신 관계자들께 감사드린다.

(4) 상감(象嵌), 조화(彫花)문 분청사기편

① 상감문(도판 50)

도판 50의 ①은 구연부편으로 내면에는 모란당초문(牡丹唐草文), 구연부에는 초문(草文)이 있다. 도판 50의 ②는 호편으로 외면에 흑·백상감한 이중원이 있고 그 안에 무늬가 있었을 것이지만 모두 깨져나가 자세한 시문내용을 살피기 어렵다.

② 조화문(도판 51)

도판 51의 ①은 동이의 구연부편이다. 전면(全面)이 백토분장된 것으로, 내면에는 음각 선문이 있다. ②는 호의 동체편으로 외면을 백토분장 후 음각선문으로 초문을 시문한 것이다. 내면 일부에 유약이 두껍게 흘러내려 있는데, 그 색은 청자에 가까운 편이다. ③은 호의 동체로 초벌구이편이다. 기면에는 음각 곡선문이 있다.

③ 음각선문(도판 52)

묘지 또는 벼루와 같은 장방형의 기물로 추정된다. 바닥을 제외한 전면에 두껍게 백토를 칠했고 가장자리와 측면 중간부분에 횡선이 있다. 두께 4.2㎝.

④ 상감문(도판 53)

호의 동체편으로 추정되는 소편이다. 무늬 부분을 파내고 백토를 면상감한 것으로, 유색은 청자빛이다.

(5) 분장백자(도판 54, 55)

도판 54의 ①은 대접편으로 내외면에 두텁게 백토를 분장된 것으로, 표면에는 미세한 빙렬이 있다. 내면과 굽에는 태토받침눈이 3개 있다. 도판 54의 ②는 대접의 구연부편으로, 내면에는 가는 빙렬이 있고 외면에는 귀얄로 백토분장되어 있다. 도판 55는 병의 동체편으로 생각되며, 표면은 두껍게 백토분장처리된 것이다. 병의 안쪽도 전면 시유되어 있는데, 유색은 회녹색이다.

(6) 백자

백자는 대부분 양질이고, 굽은 모두 제두도립삼각형이며, 굽 안쪽까지 유약이 전면 시유되어 있다.

① 접시 1(도판 56)

양질의 백자접시로 배신의 ¾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표면에는 촘촘하고 미세한 빙렬이 있다. 배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있으며, 태토받침눈이 4개 있다. 높이 5.0㎝, 복원구경 17.3㎝, 저경 5.4㎝, 굽높이 1.0㎝.

② 접시 2(도판 57의 ①)

백자접시로 전체기형의 ¾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배신 내면에는 내저원각이 있고, 내·외면에는 가는 빙렬이 있다. 높이 2.8㎝, 복원구경 15.4㎝, 저경 5.9㎝, 굽높이 0.5㎝.

③ 종지(도판 57의 ②)

백자종지로 배신의 ½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으로, 굽과 내면 바닥에는 태토받침눈이 3개 있다. 높이 3.7㎝, 복원구경 10.4㎝, 저경 3.5㎝, 굽높이 0.6㎝.

④ 마상배편(도판 58)

도판 58의 ①은 마상배의 대각부분이며, 유색은 푸른색이 감도는 백색이다.

도판 58의 ②는 배신편으로 반구상(半球狀)의 모습이고, 유색은 순백색에 가깝다.

①, ②의 깨어진 단면을 볼 때, 다른 도자기편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저화도에서 소성된 것이 아닌가 한다.

(7) 명문 도자기

1) 관청명

① 彦陽 仁壽(도판 59의 ①, ②)

도판 59의 ①은 인화문 분청사기편이며, ②는 초벌구이편이다. 「彦陽 仁壽」네 글자가 내면 중앙에 인화시문되어 있다. 무늬는 명문주변부에 선문, 소국화문띠와 파선문이, 외면에는 선문과 우점문(雨點紋)이 있다.

② 彦陽 彦陽(도판 59의 ③)

인화문 분청사기 초벌편으로 내면 중앙에 도장으로 「彦陽」 2글자를 두 번 찍은 것이다. 원래 「彦陽 仁壽」를 찍어야 되는 데, 도공이 작업과정에서 실수하여 폐기한 것으로 생각된다.

③ ○壽府(도판 60)

인화문 분청사기 초벌편으로 내면 중앙에 「○壽(?)府」가 행서(行書)를 가미한 해서(楷書)에 가까운 서체로 새겨져 있다. 글자의 배치로 볼 때, 「仁壽府」중에서 「仁」자와 「壽」자의 상부가 깨어져 나간 것으로 생각된다. 도자기 명문 중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잘 새긴 글씨이다. 문양구성은 내면에는 명문주위에 연판문이, 외면에는 연판문과 점열문이 있고, 굽은 제두도립삼각형이다.

④ ○壽(?)府(도판 61)

인화문 분청사기편으로 바닥의 일부만이 남아있다. 바닥 중앙에 「壽(?)府」 2글자가 새겨져 있다. 이것도 역시 「仁壽府」 3자를 새겼던 것으로 생각된다. 능숙한 필체의 글씨이며, 굽안에까지 유약을 시유한 것으로 매우 양질이다. 내면의 배신부와 외면에는 작은 국화문이 3열로 있고, 그 안을 백토로 채운 것이다. 굽은 제두도립삼각형이며, 받침눈은 굽 안쪽에 있다.

⑤ 彦○公(仁)壽(도판 62의 ①)

인화문 분청사기 초벌구이편으로 굽부분만 남아있다. 문양은 내면 중앙에 「彦○ 仁壽」를 새기고자 하였으나, 잘못 새겨져서 「彦○, 公壽」로 표기된 것이 아닌가 한다. 이 명문 주위에는 작은 국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도판 62의 ②는 초벌구이 소편으로 내면 중앙에 「仁壽」를 새겼지만 파손으로 글자의 일부만 남아있다. ①, ② 모두 해서에 가까운 글씨이다.

⑥ 彦仁(도판 63, 도판 63-1의 ①)

인화문 분청사기로 배신의 일부가 남은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내면 중앙에는 단정한 해서체로 「彦仁」 2글자를 새기고, 그 주위에는 2단 파선문이 배치되어 있다. 외면 아래쪽으로부터 연판문, 파선문, 횡선문이 시문되어 있다. 상번(常燔)으로 번조된 것이며, 굽은 제두도립삼각형, 3개의 작은 태토받침눈이 있다. 높이 4.8㎝, 복원구경 13.2㎝, 저경 5.0㎝, 굽높이 0.8㎝.

⑦ 彦○(?)(도판 64)

인화문 분청사기로 굽부분의 ½정도만 남아있다. 중앙에서 약간 위로 치우친 부분에 해서에 가까운 서체로 「彦○(?)」 2자가 새겨져 있다. 내면에는 점열문이, 외면에는 파선문이 있다.

⑧ 順(도판 65, 도판 63-1의 ②)

인화문 분청사기 접시편으로 약 ½이 결실된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내면 중앙에 고졸(古拙)한 서체로 「順」자가 새겨져 있고, 명문의 左下 여백에 국화문이 시문되어 있다. 내·외면에는 파선문대가 있다. 굽은 대마디 굽이며, 3개의

태토받침눈 흔적이 굽에 남아있다. 높이 3.0㎝, 복원구경 14.1㎝, 저경 4.8㎝, 굽높이 0.7㎝.

⑨ ○世(?)(도판 66)

인화문 분청사기편으로 저부만 남아있다. 내면 중앙에 3조의 원으로 구획된 부분에 행서가 가미된 해서로 두글자가 새겨져 있는데, 그 내용은 알 수 없다. 내면에는 점열문, 외면에는 횡선문이 있다.

⑩ 礼(도판 67)

청자편으로 굽부분만 남아있다. 배신 중앙에 「礼」자를 도장으로 찍고, 흑상감한 것이다. 「礼」자는 禮賓寺의 「禮」자로 생각된다. 굽 안쪽은 굽다짐을 했으며, 굽에는 태토받침눈 4개가 남아있다.

⑪ 長興(도판 68)

분청사기편으로 내면 좌측에 「長興」 두 글자가 남아있다. 굽은 대마디 굽이며, 내면과 굽에 태토받침눈이 있다.

⑫ 彦陽 ○興(도판 69)

인화문 분청사기 초벌구이편으로 저부의 ½정도가 남아있다. 내면 중앙에 언양(彦陽), 장흥(長興) 네 글자를 새겼던 것으로 보인다. 외면에는 연판문이 있다.

⑬ 水營(도판 70)

귀얄문 분청사기 저부편으로, 내면 중앙에 「水營」 두 글자를 종서(縱書)로 찍어 놓은 것이다. 두 글자가 거의 붙어있어 한 글자로 보일 정도이며, 찍어놓은 자획안에 백토상감을 하지 않고, 바로 유약을 발라놓은 것이다. 굽은 대마디 굽이며, 내면과 굽에는 4개의 태토받침눈이 있다.

⑭ 불명문자 분청사기편(도판 71)

도판 71의 ①은 내면 중앙에 국화문과 자획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남아있으나 결실되어 분명하지 않다. 그 주변에는 연주문과 파선문이 있다.

도판 71의 ②는 귀얄문 분청사기로 내면 중앙의 원형구획안에 문자가 남아있으나 표면이 거칠어 판독하기 어렵다. 내면 중앙에는 태토받침눈, 굽에는 모래받침이 남아있다.

⑮ 불명문자 소편(도판 72)

모두 인화문 분청사기편으로, 내외면 모두에 문양이 시문되어있다.

도판 72의 ①의 내면에 문자와 파선문이, 외면에 나비문이 있다.

도판 72의 ②의 내면에 새겨진 문자, 내·외면에 연판문과 파선문이 있다.

도판 72의 ③은 내면 중앙의 원구(圓區)안에 문자, 내·외면에는 점열문과 초문이 있다.

2) 문자 및 부호

① 夫(도판 73)

귀얄문 분청사기 대접편으로 내면 바닥에 「夫」자가 새겨져 있다. ①은 글씨가 크고 백토분장되어있으며, ②는 새겨진 글씨 위에 바로 유약이 칠해진 것이다. 두 글자 모두 「天」자가 잘못 표기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② 上(?)·大(?)(도판 74)

도판 74의 ①은 인화문 분청사기 초벌편으로 굽만 남아있다. 내면 중앙에 「上」가 새겨져 있으며, 배신에는 파선문이 남아있다.

도판 74의 ②도 인화문 분청사기 초벌편으로, 역시 굽부분만 남아있다. 내면 중앙에 「大」(?)자와 국화문이 있다. ①, ② 모두 현재 남아있는 부분만을 보고

판독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글자일 가능성도 있다.

③ 五月(도판 75)

인화문 분청사기 태호로 구연부와 동체의 일부만 남아있다. 동체에는 점열문이 지그재그 모양으로 찍혀있으며, 어깨부분에는 반원상의 귀가 4곳에 부착되었던 것이다. 어깨부분에 해서체로 「五月」이 종서(縱書)로 음각되어 있다. 내·외면 모두 유약이 시유되어 있다. 이 파편으로 보아, 발굴 또는 시굴을 포함한 정밀조사에 착수하면, 이 도요지에서 연호(年號)나 간지(干支)가 표기된 도자기편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다.

④ 十

「十」자가 새겨진 자기는 모두 5가지 형태의 것을 수습하였다.

1형(도판 76)은 청자접시로, 배신 중앙 한쪽부분에 작은 글씨로 「十」자가 새겨져 있다.

2형(도판 77)은 배신 중앙부에 「十」자를 새긴 것으로, 귀얄문 분청사기이다.

3형(도판 78)은 배신 중앙부에 큰 「十」자 무늬가 있다. 그 중 도판 78의 ②는 점열문 시문구를 이용하여 각인한 것이다.

4형(도판 79)은 인화문 분청사기로, 배신 중앙에 3개의 국화문과 「十」자문이 있다.

5형(도판 80)은 인화문 분청사기로, 도판 80의 ①의 배신 중앙에 「十」자문이 있다. 도판 80의 ②의 내면 중앙에는 국화문, 나비문 4개와 여백에 점열문 시문구로 찍은 「十」자문이 있다.

⑤ 入(도판 81)

초벌자기 대접편으로 굽 안쪽에 「入」자 형태의 부호가 새겨져 있다.

(7) 번조방법을 알려주는 유물

하잠리 도요지에서 채택되었던 번조방법은 갑번(匣燔)[22]과 상번(常燔)[23]이 확인되었으며, 또 대형 기종의 파편이 다수 존재하는 점으로 볼 때, 예번(例燔)[24]도 행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번조상태를 말해주는 유물은 3점만 선별채집하였다.

도판 82는 청자의 번조상태를 보여주는 유물로 하단과 중단에는 대접을, 상단에는 접시를 올려놓은 것이다. 대접 2점은 내저원각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동시에 제작되었음을 보여주며, 접시가 최상부에 올려져 있다. 굽은 대마디 굽이며, 태토받침눈 4개를 사용하여 번조한 것이다.

도판 83은 귀얄문 분청사기 종지 5점을 상번한 것이다. 굽은 모두 대마디 굽이며 태토받침눈 4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판 84는 인화문 분청사기 대접과 백자편이 같이 붙어있는 것이다. 인화문 분청사기는 대접 3개이상을 포개 쌓고 번조한 것으로, 내·외면에 모두 인화문이 시문된 대접이 최상층에 올려져 있는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백자편이 붙어있는 점으로 보아 한 가마에서 두 종류의 자기를 같이 번조했을 가능성이 높음을 말해주는 유물이다.

(8) 기타유물

① 갑발(도판 85)

---

22) 갑발안에 자기를 1점 넣어서 번조하는 방법.

23) 도지미 위에 여러 점의 자기를 포개쌓아서 번조하는 방법.

24) 도지미 위에 1점의 유물을 올려 놓고 번조하는 방법.

대접형 갑발로 일부만 남은 것을 도면복원한 것이다. 소성양호한 도기로 굽은 대마디 굽이며, 구연부는 외경되어 있다. 내면 바닥에는 번조시 그릇을 받쳤던 흔적이 일부 남아있으며, 구연부에는 백토흔적이 있다. 표면은 회전 물손질한 것이며, 굽부분은 특히 뚜렷하다. 높이 11.5㎝, 복원구경 24.6㎝, 복원저경 6.0㎝, 굽높이 1.1㎝.

② 갑발 뚜껑(도판 85의 ②)

대접형 갑발의 뚜껑편이며, 꼭지 주변에는 성형할 때 생긴 선이 남아있다.

③ 갑발뚜껑(도판 86)

소형 갑발의 뚜껑편으로 일부가 결실된 것이다. 높이 2.5㎝, 직경 11.2㎝, 꼭지직경 5.5㎝, 꼭지높이 1.0㎝

③ 도지미

도지미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서 토제와 폐자기 그리고 돌을 이용한 것으로 구분된다. 토제 도지미(도판 87의 ①, ②)는 원통형이지만, 사용회수가 거듭되면서 장구형으로 변형되어있다. 대형 도지미(도판 87의 ③)의 형태는 사다리형이며, 대형 번조물을 소성하는데 사용되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폐자기를 이용한 도지미(도판 88의 ①)는 초벌구이 대접편안에 일정부분 흙을 깔고, 그 위에 번조대상물을 올려서 구웠던 것이며, 돌 도지미(도판 88의 ②)는 넓적한 자연석을 이용한 것으로, 양면에 굽 흔적이 남아있다.

④ 물레부속구(도판 89)

물레부속구(갓모)는 물레축과 고정대 사이에 끼워서 물레의 회전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형태는 작은 원반형과 고리형이 있으며, 전자(前者)에는 중앙에 원형 홈이, 후자(後者)는 속이 비어있다. 모두 측면 4곳에는 세로방향으로 깎인 곳이 있다. 모두 3점이 채집되었다.

도판 89-①. 높이 3.0㎝, 직경 6.5㎝, 홈 폭 1.0㎝

도판 89-②. 높이 3.3㎝, 직경 8.8㎝

도판 89-③. 높이 2.8㎝, 복원직경 9.0㎝, 홈 폭 1.5㎝

⑤ 분청사기 다리편(도판 90)

분청사기와 초벌구이편으로 대형 기물(祭器?)의 다리부분일 가능성이 있다.

⑥ 어망추(도판 91)

어망추는 토제로 모두 2점이 채집되었다.

도판 91-①. 길이 7.8㎝, 최대직경 3.0㎝, 구멍직경 0.7㎝

도판 91-②. 길이 7.0㎝, 최대직경 1.6㎝, 구멍직경 0.5㎝

⑦ 「卍」자명 평와편(도판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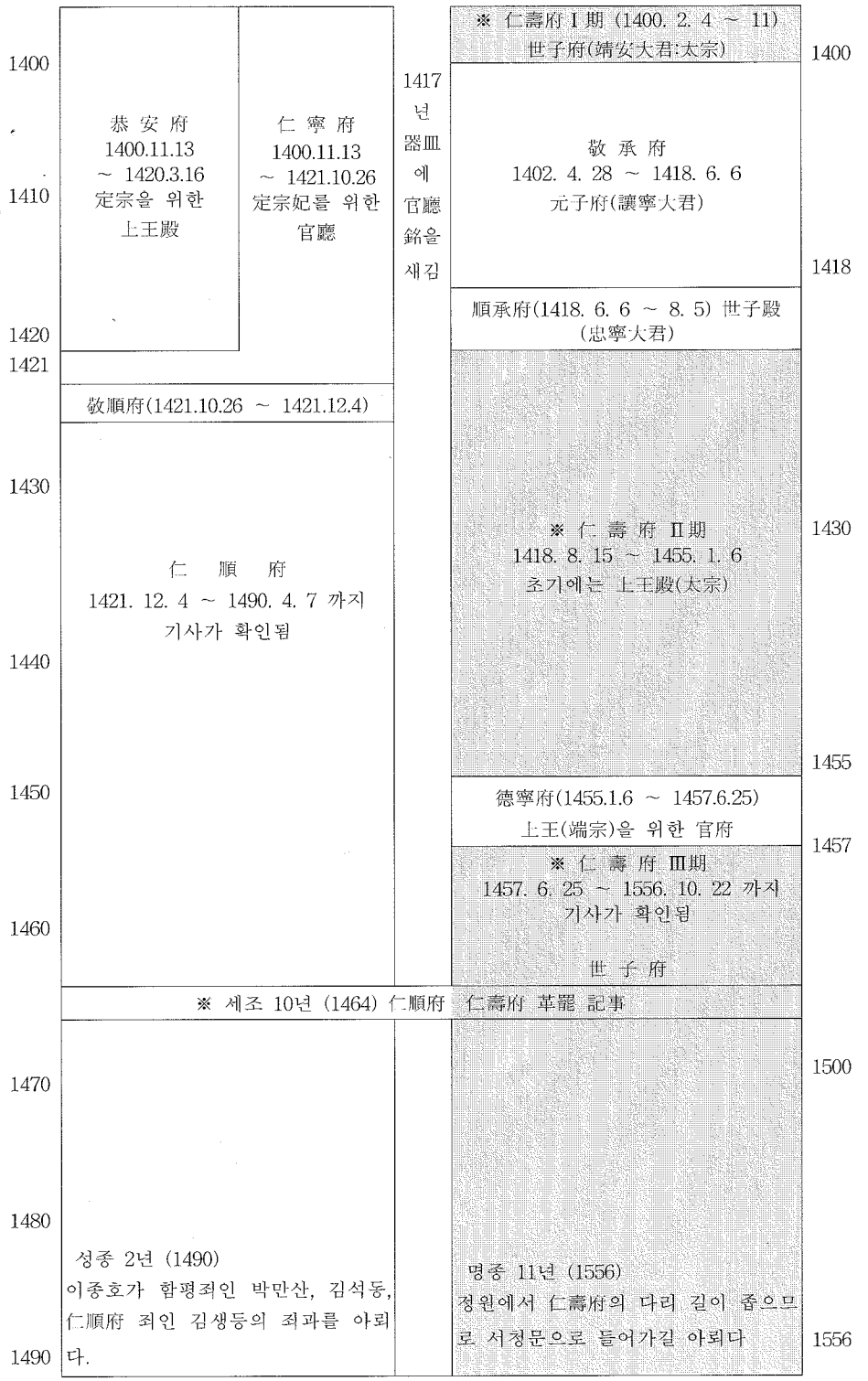
평와 외면에 타날된 「卍」자 명문이 있다. 두께 2.0㎝

Ⅵ. 수습된 도자기편의 명문에 대한 고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도요지에서 수습된 명문도자기편들은 모두 19종류 36점이다.

확인된 명문도자기편들을 그릇에 명기된 관청과 명문내용에 따라서 나누어 보면, 仁壽府 관련이 7점(彦陽 仁壽 2점, 彦陽 彦陽 1점, ○壽府 2점, 彦○公壽 1점, 仁壽 1점), 長興庫 관련이 3점(長興 1점, 彦陽 ○興 1점, 長(?) 1점), 기타 관청

<표 6> 조선전기 상왕부·세자부 명칭 변화 및 존속기간 일람표


※ 仁壽府 I 期 (1400. 2. 4 ~ 11)
世子府(靖安大君:太宗)
恭 安 府
1400.11.13
~ 1420.3.16
定宗을 위한
上王殿
仁 寧 府
1400.11.13
~ 1421.10.26
定宗妃를 위한
官廳
1417
년
器皿
에
官廳
銘을
새김
敬 承 府
1402. 4. 28 ~ 1418. 6. 6
元子府(讓寧大君)
順承府(1418. 6. 6 ~ 8. 5) 世子殿
(忠寧大君)
敬順府(1421.10.26 ~ 1421.12.4)
※ 仁 壽 府 II期
1418. 8. 15 ~ 1455. 1. 6
초기에는 上王殿(太宗)
仁 順 府
1421. 12. 4 ~ 1490. 4. 7 까지
기사가 확인됨
德寧府(1455.1.6 ~ 1457.6.25)
上王(端宗)을 위한 官府
※ 仁 壽 府 III期
1457. 6. 25 ~ 1556. 10. 22 까지
기사가 확인됨
世 子 府
※ 세조 10년 (1464) 仁順府 仁壽府 革罷 記事
성종 2년 (1490)
이종호가 함평죄인 박만산, 김석동,
仁順府 죄인 김생등의 죄과를 아뢰
다.
명종 11년 (1556)
정원에서 仁壽府의 다리 길이 좁으므
로 서정문으로 들어가길 아뢰다
1400
1410
1420
1421
1430
1440
1450
1460
1470
1480
1490
1400
1418
1430
1455
1457
1500
1556

관련 명문이 5점(彦仁 1점, 彦○(?) 1점, 順 1점, 礼 1점, 水營 1점)이며, 제작일자, 기타 문자 및 불명문자가 10점(五月 1점, ○世(?) 1점, 夫 2점, 大 1점, 上 1점, 불명 4점), 제작관련 표시가 11점(十 10점, 入형 1점)이다.

이들 하잠리 도요지에서 확인된 명문은 관사(官司)와 제작관련 표시, 제작일자 표시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인수부(仁壽府)는 원래 정안대군(靖安大君, 후에 太宗)을 위한 세자부로 존속한 10개월【Ⅰ기: 정종 2년(1400년) 2월~11월】, 세종때 태종을 모시기 위한 상왕전으로 시작하였다가 세자부로 바뀐 37년간【Ⅱ기: 세종 원년(1418년) 8월~세조 원년(1455년) 1월】과 단종을 모시던 덕령부(德寧府)에서 다시 그 명칭이 바뀐 이후시기【Ⅲ기: 세조 3년(1457년) 6월~명종 11년(1556년) 10월】까지 약 99년간에 걸쳐서 3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6. 조선전기 상왕부·세자부 명칭 변화 및 존속기간 일람표 참조). 따라서 이제까지 한국 도자사학계에서 「仁壽府」의 설치시점으로 비정해온 1457년이라는 상한연대[25]는 다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인수부」에 있어서도 이 관서가 가졌던 권력의 크기 또는 위상에 따라, 태종을 위한 『상왕부(上王府)로서의 인수부』와 『세자나 왕자를 위한 인수부』는 구분하여 고찰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된다. 혹시 이러한 미묘한 차이가 이곳 하잠리 도요지에서 수습된 「仁壽府」명 명문도자기에서 볼 수 있는 서체 또는 각인방법의 차이와 관련될 가능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명필의 필력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잘 새겨진 글자와 다소 치졸한 솜씨로 글자의 형상만을 흉내내어 새긴 도장으로 사호(司號)를 압인해 놓은 그릇들 사이에는 문양의 상태, 유약, 번조상태 등 여러가지 면에서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인수부」의 위상변화를 보여주는 유물로 볼 수는 없을까?

본 조사단은 언양 자기소확인을 계기로 현재까지 알려져있는 「仁壽府」명 분청사기 일람표(표 7)를 작성하여 보았는데, 여기에 따르면 「地名+仁壽府」 도자기에 나타난 지명들이 「황해도 황주」를 제외하고는 거의 경상도의 지명에 집중되고 있다는 기존의 학설을 재확인할 수 있었지만, 도요지 출토 「仁壽府」관계 명문 분청사기편 일람표(표 8)를 작성하면서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례를 볼 수 있었다.

<표 7> 『仁壽府』銘 분청사기 일람표

	명칭	기종	크기(㎝)	문양	각인방법	소장처 또는 출전문헌
1	「三加仁壽府」銘 粉靑印花菊文馬上杯	마상배	높이 8.3 구경 10.4 저경 3.8	내) 명문(三加),점열문, 작은국화문,점열문,초문 외) 점열문(대각),점열문, 명문(仁壽府),초문(배신)	刻	국립중앙박물관 김영원,『조선전기도자의 연구』(1995) p78
2	「三加仁壽府」銘 粉靑印花文대접1	대접	높이 5.2 구경 18.0 저경 5.9	내) 명문(三加)+螺線紋, 국화문,점열문,초문 외) 점열문(?)	刻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한국의도자기』(1991) p337

25) 仁壽府에 대해서는 기존의 통설과 달리 시기를 3단계로 구분하여야 하며, 중앙관청으로서 복잡한 변화상을 거쳤다는 견해가 있다.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分院의 設置를 中心으로- (學硏文化社,1995) p.81.

3	「彦陽仁壽府」銘 粉靑印花文대접1	대접	높이 5.9 구경 18.4 저경 6.0	내) 명문(彦陽仁壽)+螺線紋, 국화문,점열문,초문 외) 점열문(?)	刻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한국의 도자기』 (1991) p386
4	「彦陽仁壽府」銘 粉靑印花文대접2	대접	구경 19.8	내) 명문(彦陽仁壽府)+국화 문,연판문,점열문,초문 외) ?	刻	소장처불명 정양모,『분청사기』 (1982) p182
5	「高靈仁壽府」銘 粉靑印花文壺	호	?	내) ? 외) 파선문,국화문,점열문+ 명문(高靈仁壽府)	刻	日本 강경숙,『한국도자사』 (1989) p284.
6	「軍威仁壽府」銘 粉靑印花文대접1	대접	?	내) ? 외) 연판문,점열문+명문 (軍威仁壽府),초문	刻	李成斗 소장 정양모,『한국의도자기』 (1991) p387
8	「軍威仁壽府」銘 粉靑印花文대접2	대접	높이 5.0 구경 17.4 저경 5.0	내) 점열문+명문(軍威仁壽府), 초문 외) 국화문,점열문,초문	刻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No.5308 『분청사기』(1984) p54
9	「昌寧仁壽府」銘 粉靑印花文대접1	대접	높이 8.4 구경 18.4 저경 6.5	내) 작은국화문,나비문,연판문 작은국화문,초문 외) 작은국화문+명문(昌寧仁 壽府),초문	刻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No.5307 『분청사기』(1984) p55
10	「昌寧仁壽府」銘 粉靑印花文대접2	대접	높이 6.7 구경 19.8 저경 ?	?	?	朴晶尙 소장 정징원,『경남지방 도자 기의 연구』(1968) p74
11	「靈山仁壽府」銘 粉靑印花文접시	접시	높이 3.5 구경 4.3 저경 ?	내) 점열문,초문 외) ? , 점열문+명문(靈山 仁壽府),초문	刻	金廣業 소장 정징원,『경남지방 도자 기의 연구』(1968) p76
12	「仁壽府執用」銘 粉靑印花文접시	접시	높이 3.0 구경 13.4 저경 5.2	내) 국화문,나비문,작은국화 문,국화문,초문 외) 연판문,작은국화문+명문 (仁壽府執用),초문	刻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No.5242 『분청사기』(1984) p45
13	「仁壽府○用」銘 粉靑印花文대접	대접	높이 6.8 구경 19.8 저경 6.0	내) 국화문,점열문,나비문, 점열문,초문 외) 작은국화문,점열문+명문 (仁壽府○用)	刻	이화여자대학교박물관 No.5055 『분청사기』(1984) p68
14	「興海仁壽府」	?	?	※ 사진이 게재되어 있지 않음	?	윤용이,『아름다운 우리 도자기』1996, p114

<표 8> 현재까지 알려진 도요지 채집『仁壽府』관련 명문 분청사기편 일람표

	유물명	출토지	기종	크기	문양	각인방법	소장처 또는 출전문헌
1	「靈○仁壽」銘 粉靑沙器片	경상남도 창녕군 영산면 청암리	?	?	내) 명문(靈○仁壽) +작은국화문	刻	朴晶尙 소장 (現在는 所藏處 不明) 정징원, 『경남지방 도 자기의 연구』1968, p50
2	「壽」銘 粉靑沙器片	경상남도 진주시 수곡면 효자리	?	?	내) 점열문 외)점열문+명문(壽)	刻	강경숙,『분청사기연구』 1986, p342
3	「仁」銘 粉靑沙器片	충청남도 부여군 은산면 장벌리	?	?	집단연권문,파상문, 연주문,국화문	刻	강경숙,『미술사학연구』 202, 1994, p53
4	「壽」銘 粉靑沙器片	충청북도 영동군 추풍령면 사부리	?	?	초문, 만자문, 집단연권문	刻	강경숙,『미술사학연구』 202, 1994, p38

장흥고(長興庫)는 궁궐에서 쓰이는 물품을 공급하던 곳이며, 전국의 많은 도요지에서, 「장흥고」명 도자기편이 수습된 바 있다. 따라서 이곳에서 수습된 「장흥」명 분청사기편도 하잠리가마에서 공납용 도자기를 제작하였던 사실을 앞서 든

「仁壽府」명 도자기와 함께 증명하고 있다.

또한 「順」, 「彦仁」 등은 조선초기에 존재했던 관부의 명칭으로 「順」 은 「順承府」, 「敬順府」, 「仁順府」 등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만 앞서의 두 관청은 그 존속기간이 약 2개월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仁順府」의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며, 「彦仁」명 명문도자기는 명문표기에 있어서 「仁壽府」 혹은 「仁順府」의 약자(略字)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1464년 仁順府·仁壽府 革罷에 대한 기록[26]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두 관부는 그 존속연대부분에 있어서 仁順府는 1421~64년, 仁壽府는 1418~55년간(인수부 Ⅱ기), 1457~64년간(인수부 Ⅲ기[27])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두 관부명이 있는 명문도자기들의 제작연대도 1460년대를 하한연대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표7 참조). 왜냐하면 이 두 관부가 1464년 이후까지 존속되었다 할지라도, 1467년경에는 벌써 경기도 광주에 분원(分院)이 설치[28]되어 본격적인 번조활동에 들어갔던 사실까지 감안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곳에서 수습된 「水營」명 도자기편은 언양 자기소가 중앙관청뿐만 아니라 지방소재 중앙관청에도 도자기를 공납하였던 사실을 말해주는 중요한 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水營」이 1457년에 설치된 점[29]을 고려한다면, 하잠리 도자기편들의 편년고찰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礼」명 분청사기편은 예빈시(禮賓寺)에 납품되었던 것이지만, 예빈시의 존속기간이 고려 태조 4년(921년)부터 조선 고종 31년(1894년)에 걸치기 때문에 편년자료로 활용하기는 어렵다.

하잠리 도요지는 경상남도지역에서 확인된 몇 안되는 자기소 중 한 곳으로, 이 곳에서 채집되는 「仁壽府」, 「長興」, 「順」, 「礼」, 「水營」 등과 같은 다양한 명문도자기 편들은, 이 가마에서 생산되었던 도자기들이 위와 같은 관청들에 공납

---

26) 『朝鮮王朝實錄』 世祖 10年 2月 30日 癸丑條,
「이조(吏曹)에서 아뢰기를, "인수부(仁壽府)를 이미 혁파(革罷)하였으니, 그 관리(官吏)는 각각 그 직품(職品)으로 군자감(軍資監)에 옮기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朝鮮王朝實錄』 世祖 14年 5月 9日 戊辰條,
「주서(注書) 등을 사재감(司宰監)·풍저창(豊儲倉)·내섬시(內贍寺)·예빈시(禮賓寺)·제용감(濟用監)·내자시(內資寺)에 나누어 보내서 갑신년 이후의 전곡(錢穀)을 출납(出納)한 문서(文書)와 인순부(仁順府)·인수부(仁壽府)를 혁파(革罷)할 때에 잡물(雜物)을 옮겨 둔 문적(文籍)을 찾게 하니, 내자시(內資寺)의 종[奴] 계동(季同)의 고발에 인연함이었다. 주서 등이 여러 관사에 이르러서 찾았으나, 인순부·인수부에서 옮겨 둔 문적은 이미 없어졌다. 또 명하여 사재첨정(司宰僉正) 김승경(金升卿)에게 명하여, 계동(季同)을 데리고 전라도의 여러 고을로 가서 여러 관사의 노비(奴婢)가 거둬 바친 문기(文記)를 찾아내어 그 위조(僞造) 여부를 상고하게 하니, 또한 계동의 고발에 인연함이었다.」

27) 1464년 「仁順府·仁壽府 革罷 記事」이후에도 이 두 관부에 대한 기사는 각각 1490년, 1556년까지 계속 나오는데, 실제로 확실한 실체를 가지고 계속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이 보고서 작성자들로서는 쉽사리 판단하기 어렵다. 관계 전공학자들의 조언을 기다린다.

28) 金英媛, 『朝鮮前期 陶磁의 硏究』(學硏文化社, 1995) pp54~5.

2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민족문화대백과사전』(1991) p240.

되었음을 말해주는 자료들이다.

현재까지 경상도지역에서 자기소가 확인된 지역은 표9와 같으며, 대부분 관사명이 새겨진 명문도자기편들이 수습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9> 경상도지역 자기소 현황표

	『세종실록지리지』 자기소	지역	지 명	명문
1	金山郡 黃金所 寶賢里(中品) (세종 당시에는 경상도지역)	忠淸道	永同郡 秋風嶺面 沙夫里 黃寶마을	德寧府, 壽, 執用
2	高靈縣 縣東 曳峴里(上品)	慶尙道	高靈郡 城山面 箕山洞	高靈
3	晋州牧 州西 中全里(下品)		晋州市 水谷面 孝子里 中全마을	晋, 壽
4	晋州牧 州東 月牙里(下品)		晋州市 大谷面 月牙里	
5	昆南郡 郡南 蒲谷里(中品)		泗川市 昆南面 松田里 蒲谷마을	昆南
6	靈山縣 縣東 新峴里(下品)		昌靈郡 靈山面 靑岩里	靈山, 仁壽
7	彦陽縣 縣南 大吐里(下品)		蔚州郡 三洞面 荷岑里	본문참조

Ⅶ. 맺음말

위덕대학교 박물관과 울산대학교 박물관 공동조사단이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도요지에서 수행한 지표조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하잠리 도요지는 『世宗實錄地理志』에 "磁器所一此在縣南大吐里下品"기사의 「彦陽 磁器所」로 비정할 수 있다. 특히 「彦陽 仁壽」, 「彦陽 長興」 등 수습된 다량의 명문 도자기편들은, 바로 이 곳 하잠리 도요지에서 중앙과 지방의 관청에 도자기를 공납하였음을 명확하게 말해준다.

둘째, 조선 태종 17년(1417년)에 「외공사목기(外貢砂木器)에 각각 사호(司號)를 새겨 만들어 상납케한 일[30]」은 언양 자기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관사명이 있는 분청사기는 1417년 이후에 제작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를 제시하여 준다. 또한, 세조 10년(1464년)의 「仁壽府·仁順府」 革罷記事와 그 무렵의 분원설치를 말해주는 기사들은 언양 자기소 조업활동의 하한시기를 강력히 시사한다. 즉 현재까지 수습된 청자, 명문 분청사기편 등으로 볼 때, 하잠리 가마에서 조업활동이 있었던 기간은 대략 14世紀末頃부터 1460年代까지였다고 판단된다.

셋째, 비록 지표조사결과에 따른 잠정결론이지만, 이곳 하잠리 도요지에서는 조선시대 초기에 생산되었던 도자기, 즉 고려시대 말의 전통을 이어받은 청자(대접, 접시, 종지), 분청사기(대접, 접시, 종지, 마상배, 태호, 매병, 호), 분장백자(대접, 접시, 병), 백자(접시, 종지, 마상배) 등이 다량 생산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할만한 사실은 1구역 폐기물 퇴적층에서 청자(도판 9, 10, 11)와

30) 『太宗實錄』 卷33, 太宗 17年 4月 丙子條. "…戶曹又啓, 長興庫貢案付砂木器, 今後刻長興庫三字, 其他各司所納, 亦依長興庫例, 各刻司號, 造作上納, 上項有標器皿私藏現露者, 以盜官物坐罪, 以絶巨弊, 皆從之."

귀얄문 분청사기(도판 45)가 함께 수습된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하잠리 도요지에서 귀얄문 분청사기의 제작이 일찍부터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넷째, 이번에 확인된 하잠리 도요지는, 「靈山 仁壽」가 출토된 바 있는 경상남도 창녕군 청암리의 「영산 자기소」, 「德寧府」 및 「壽」명 분청사기가 함께 출토된 충청북도 추풍령면 사부리 황보마을의 「금산 자기소」[31](당시는 경상도) 등과 함께 조선초기 중앙관서에 도자기를 납품했었던 주요한 자기소 가운데 하나였음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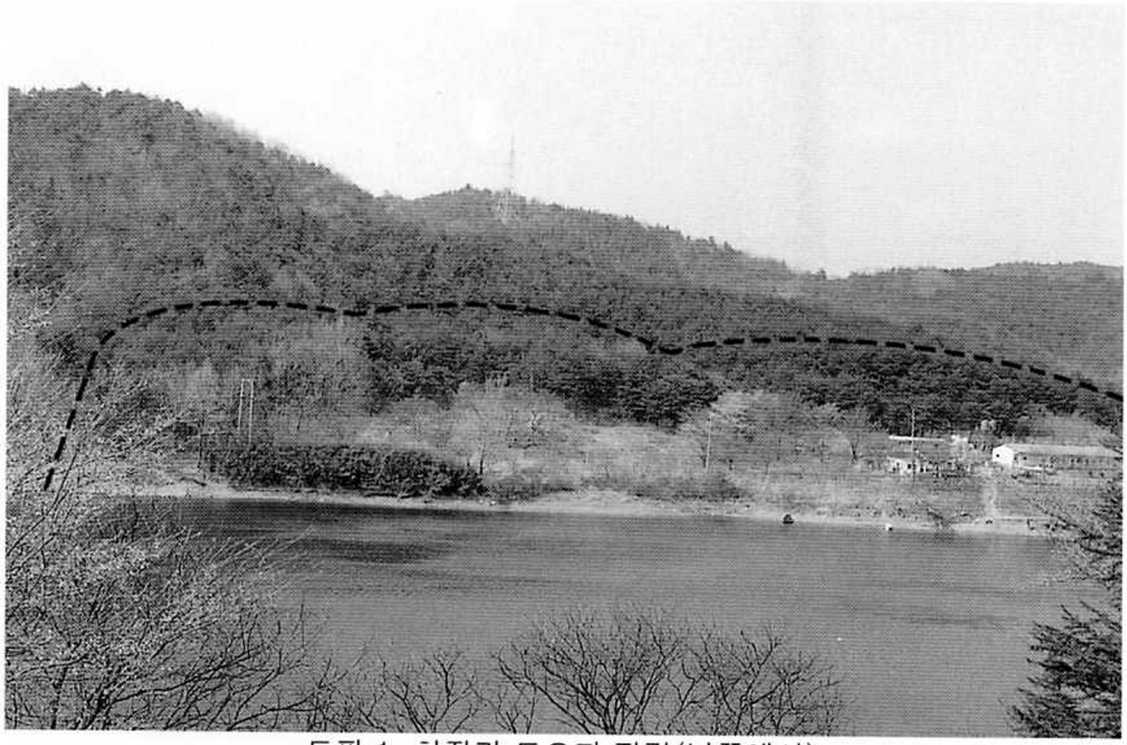
다섯째, 「彦陽 磁器所」로 추정되는 이곳 하잠리 도요지는 현재까지 보존상태가 매우 양호하다. 특히 수습된 「五月」명 태호편(도판 75)은 이 도요지가 발굴 또는 시굴조사될 경우, 이곳에서 고려말~조선전기의 도자사연구에 획기적인 자료들이 속출할 것으로 기대하게 한다. 따라서, 이 유적이 더 이상 훼손되기전에 철저한 보호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학술조사 등을 통하여, 유적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조선초기 도자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附記 -

※ 이곳에서 채집된 모든 유물은 위덕대학교 박물관이 보관하고 있습니다.

31) 姜敬淑, 「『世宗實錄』地理志 磁器所·陶器所 硏究 -忠淸道를 중심으로-」, 『美術史學硏究』 202. (韓國美術史學會, 1994) p35.

圖　版



도판 1. 하잠리 도요지 전경(남쪽에서)

도판 2. 하잠리 도요지 1구역(대암호주변) 유물노출상태

도판 3. 하잠리 도요지 1구역, 퇴적층 근경 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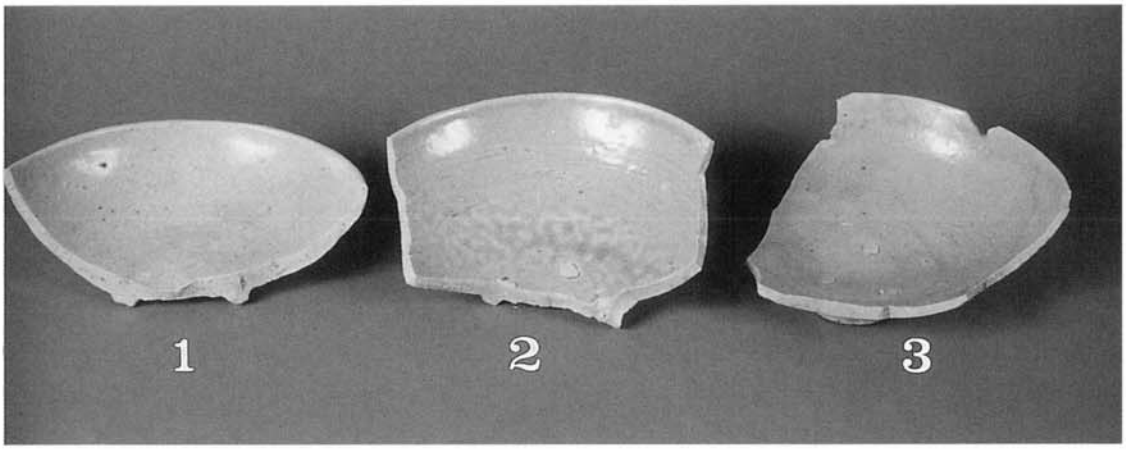
도판 4. 하잠리 도요지 1구역, 퇴적층 근경 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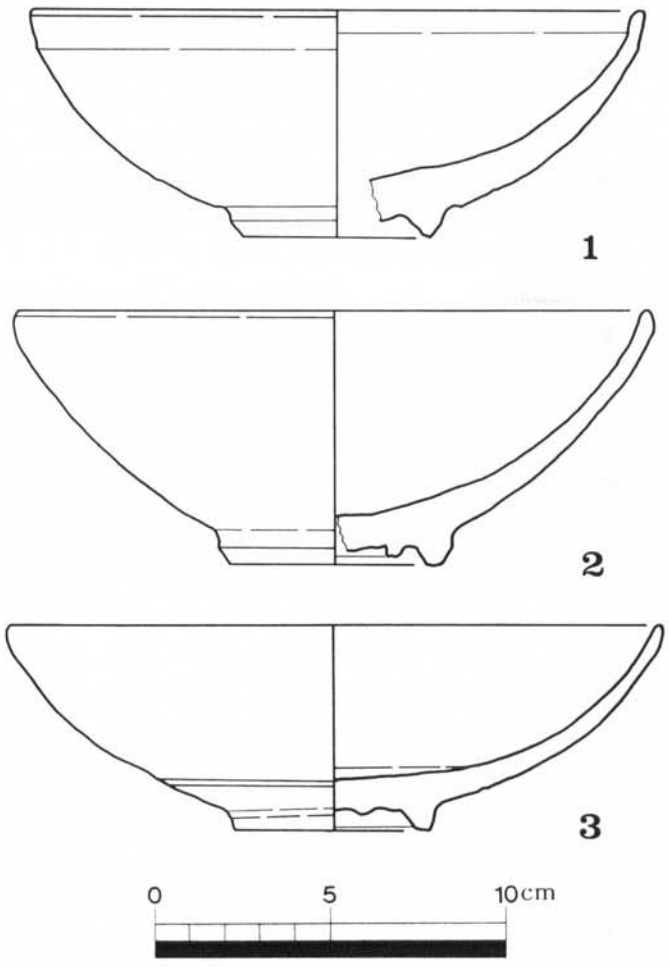
도판 5. 하잠리 도요지 2구역(추정 가마) 근경

도판 6. 하잠리 도요지 2구역 퇴적층 근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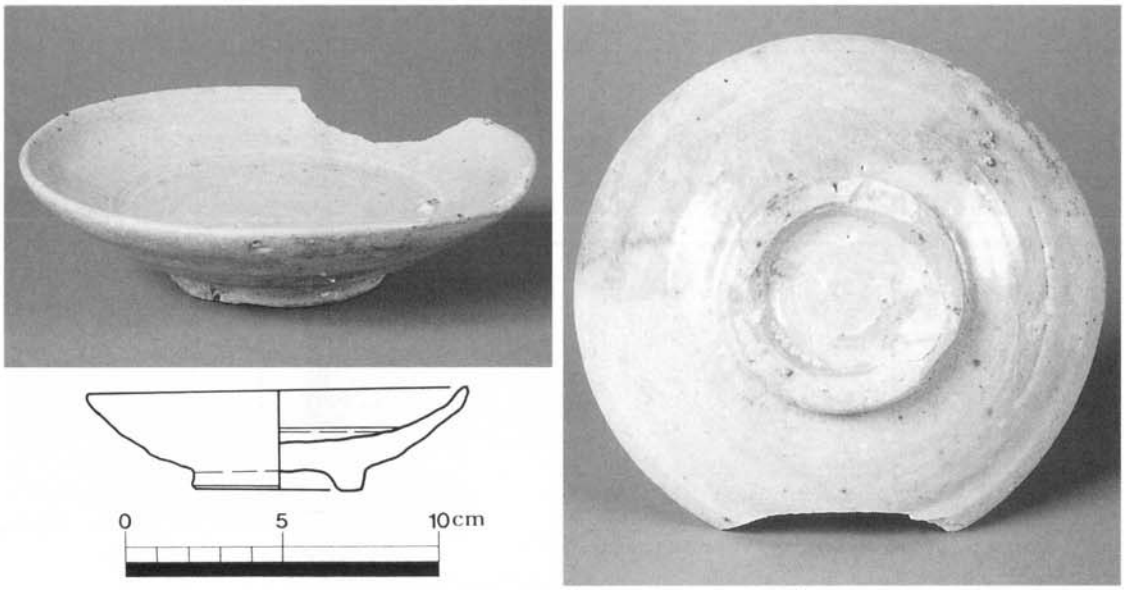
도판 7. 하잠리 도요지 3구역 근경

도판 8. 하잠리의 백토 노출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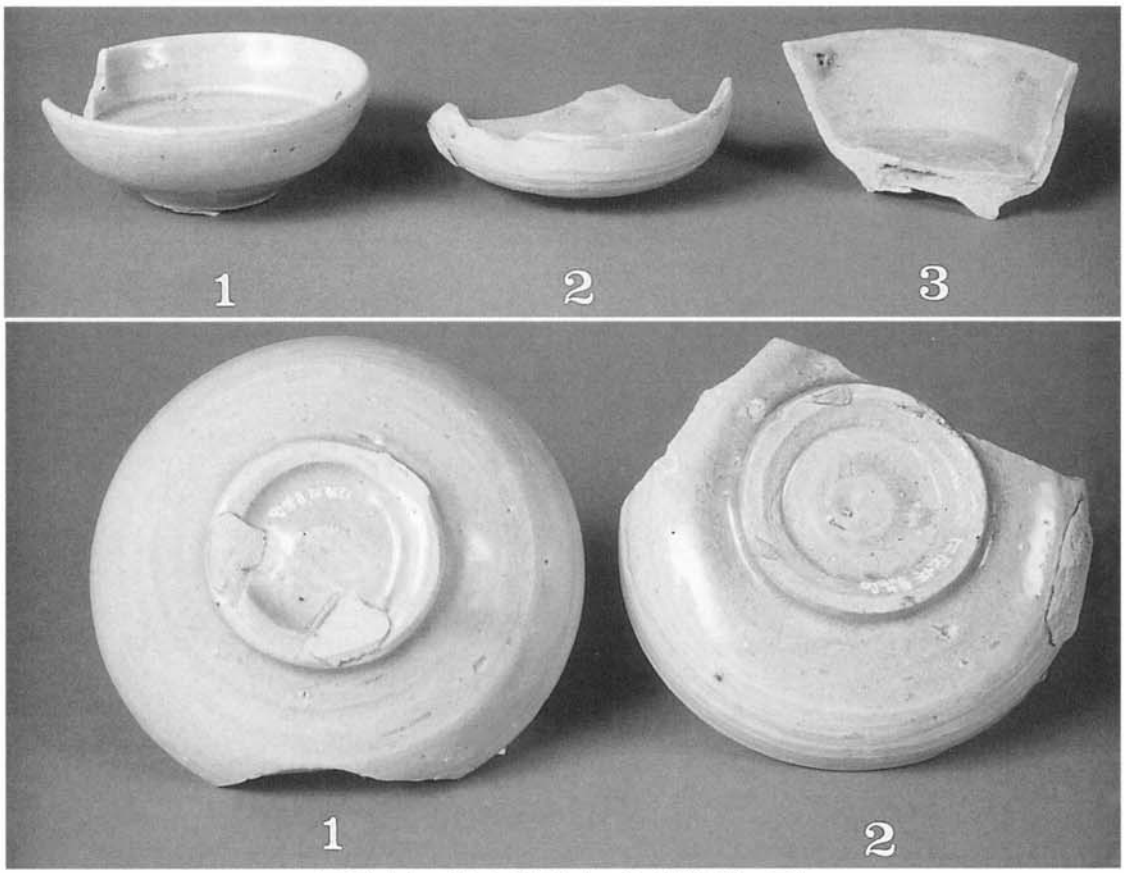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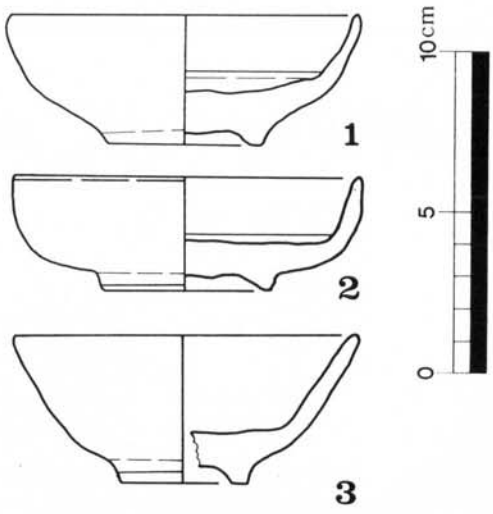
도판 9. 청자 대접 1, 2, 3(측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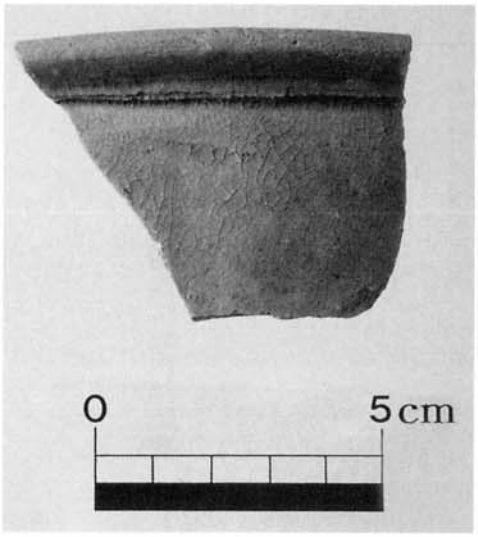
도판 10. 청자 접시(측면, 굽,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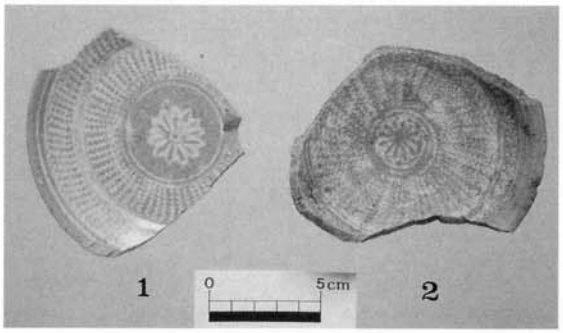
도판 11. 청자 종지 1, 2, 3(측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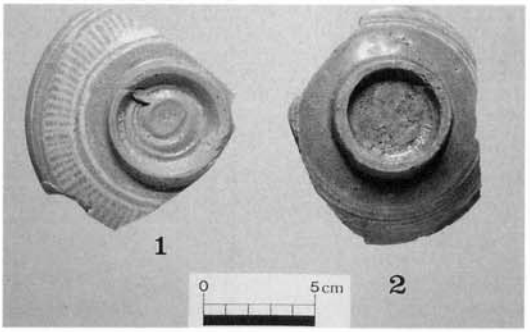


도판 11-1. 도판11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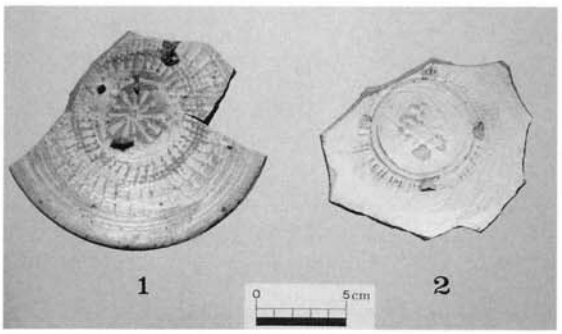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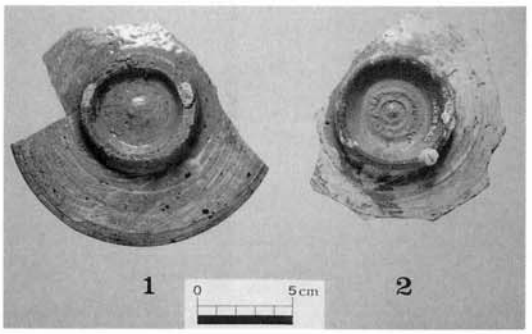
도판 12. 청자 동이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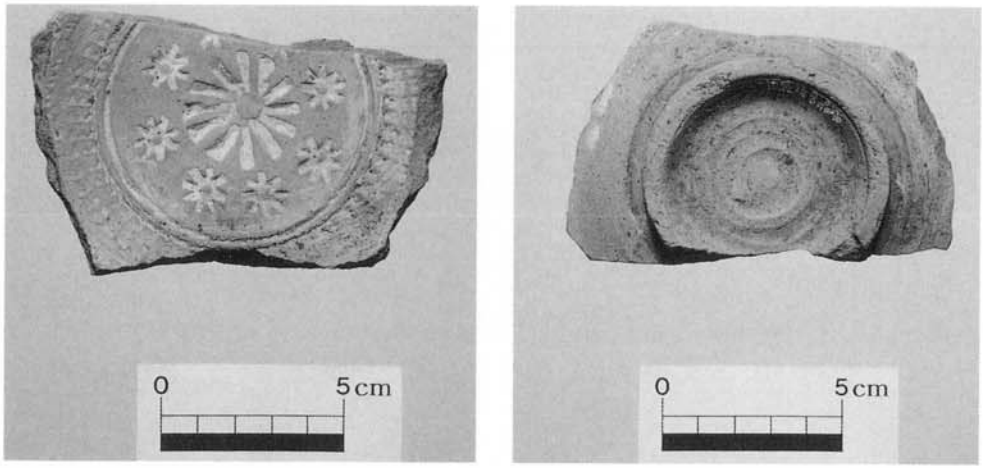


도판 13. 국화문 1a1(1)접시편, 1a2(2)종지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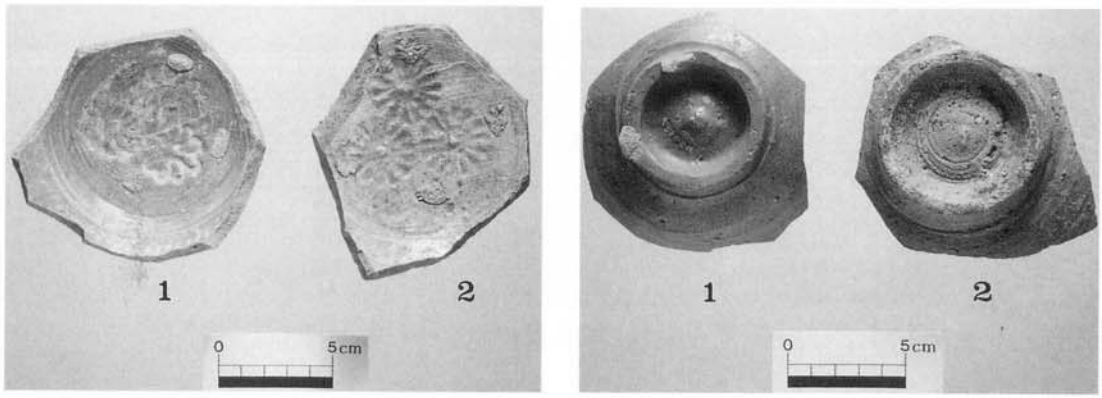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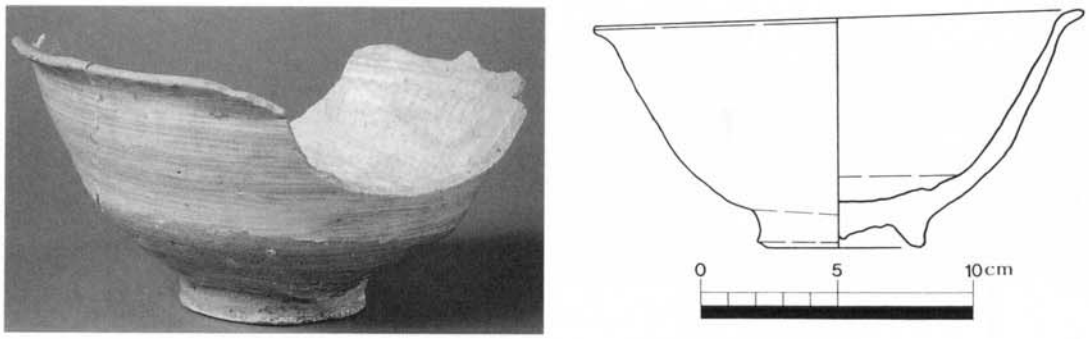
도판 14. 국화문 1b(1), 1c(2) 접시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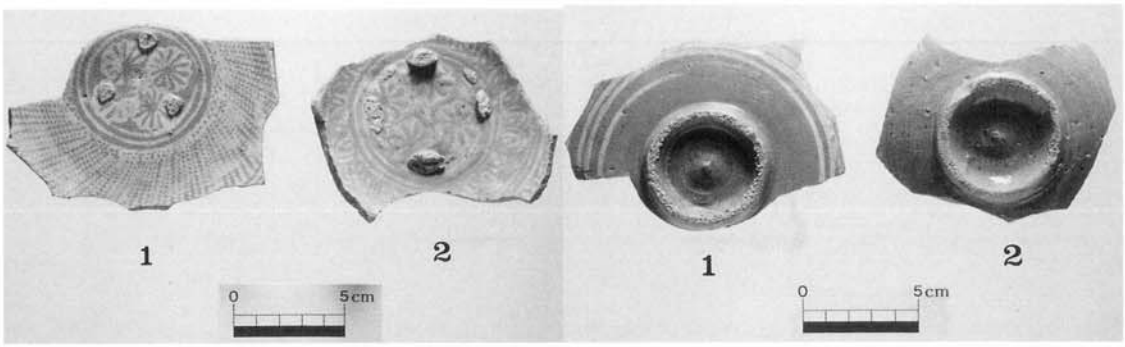
도판 15. 국화문 2 초벌구이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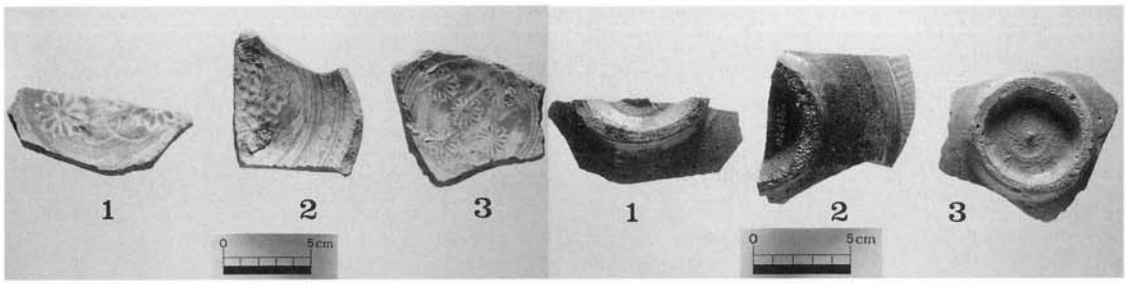
도판 16. 국화문 3a(1), 3b(2)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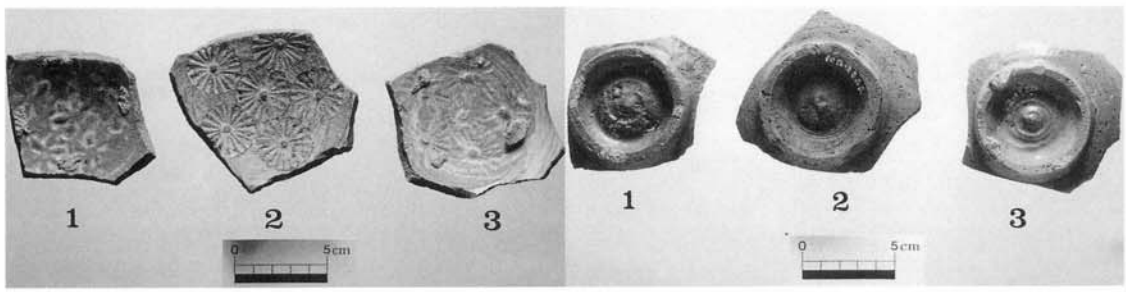
도판 17. 국화문 3a 대접편(측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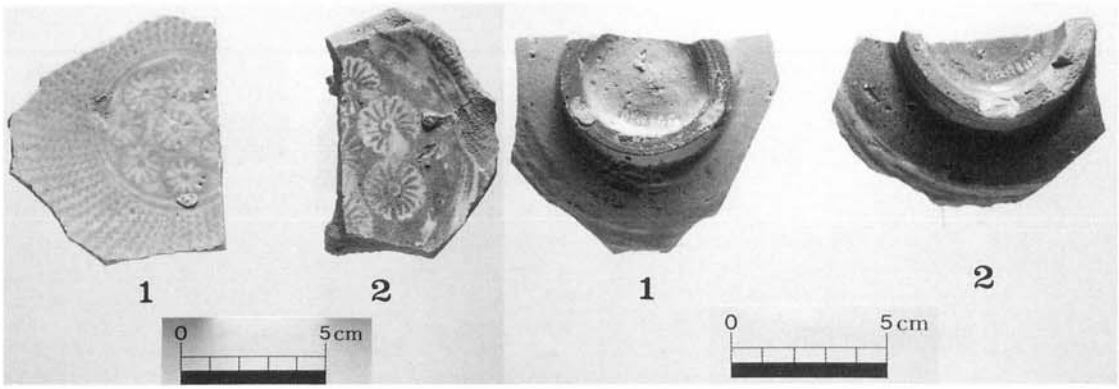
도판 18. 국화문 4a(1)접시편, 4b(2)종지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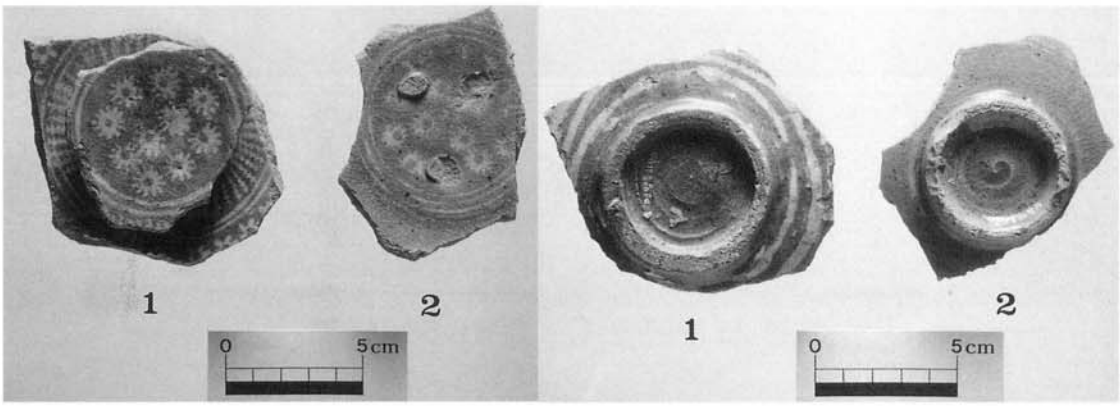
도판 19. 국화문 5a(1), 5b(3), 6a(2)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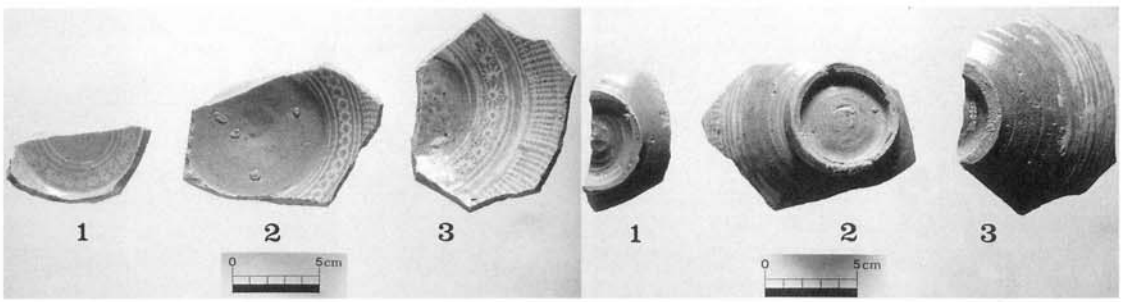
도판 20. 국화문 6b(1), 6c(2), 6d(3)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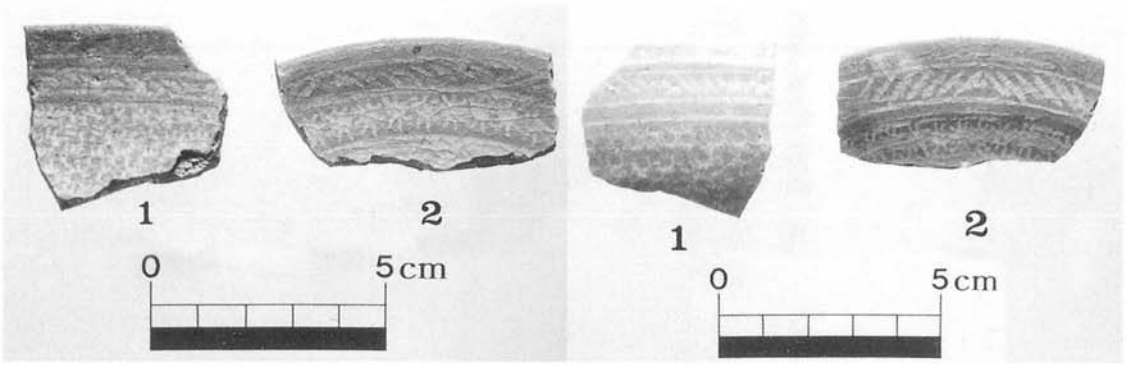
도판 21. 국화문 8a(1)접시편, 8b(2)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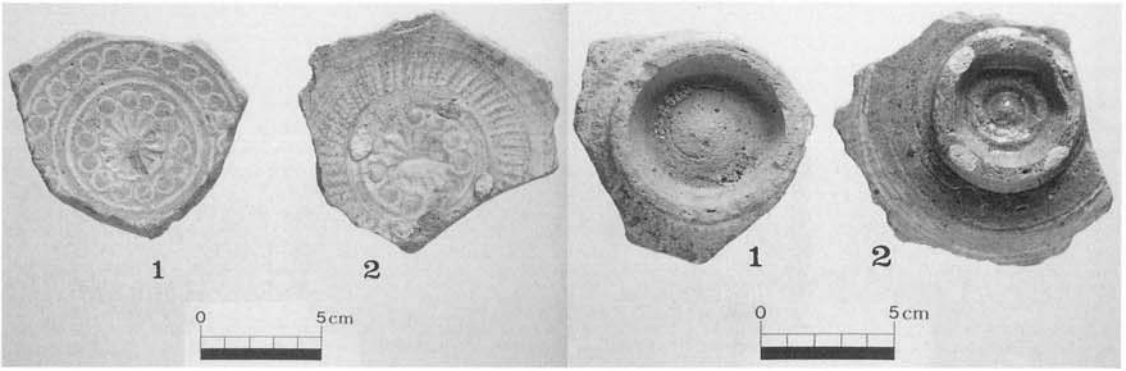
도판 22. 소국화문 1a(1), 1b(2)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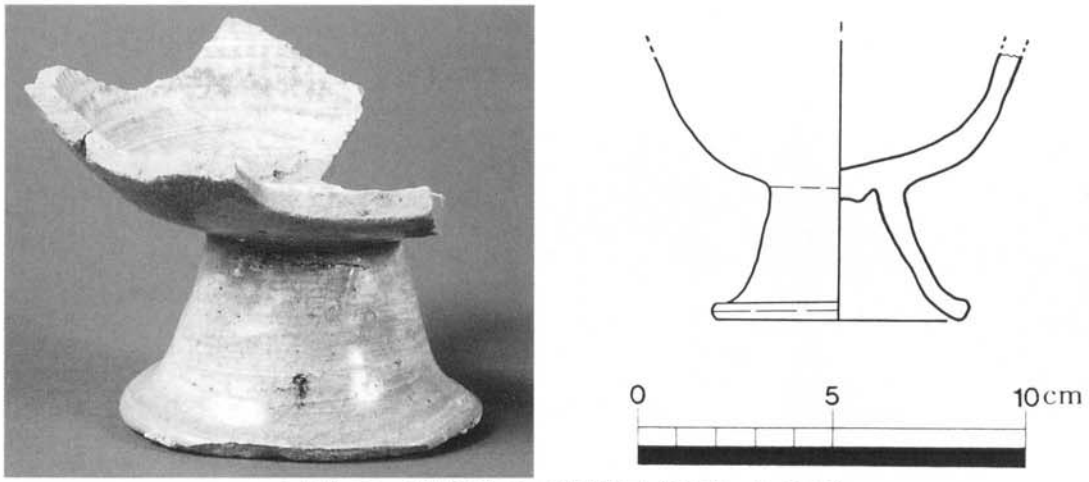
도판 23. 소국화문 2a(1)종지편, 2b1(2), 2b2(3)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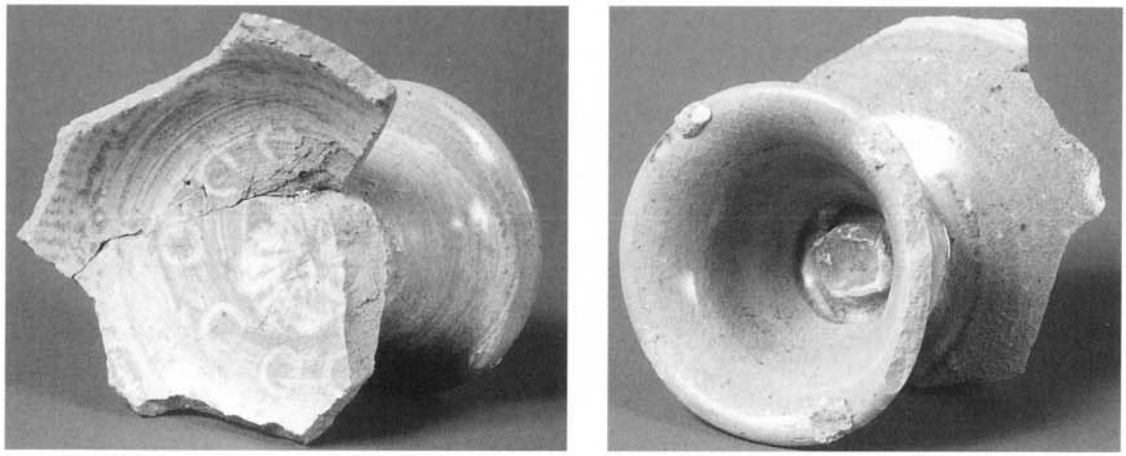
도판 24. 소국화문 구연부편 1, 2(내면,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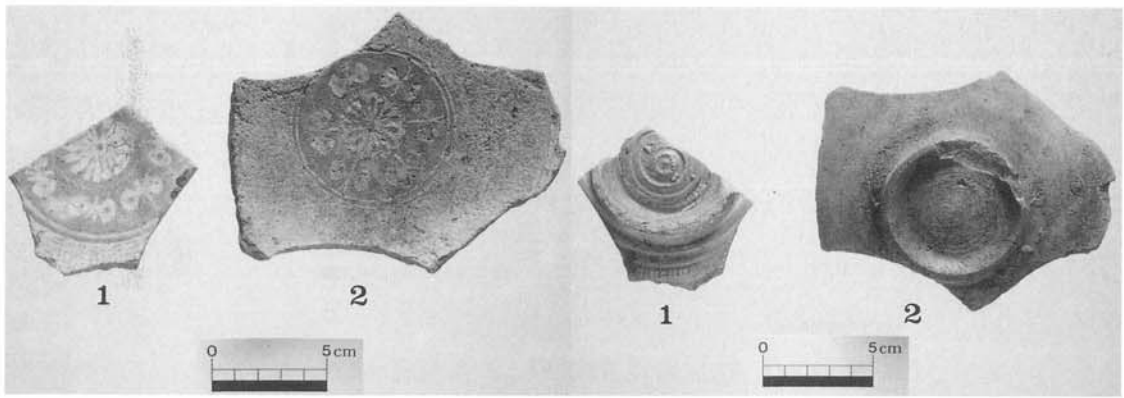
도판 25. 연주문 1, 2 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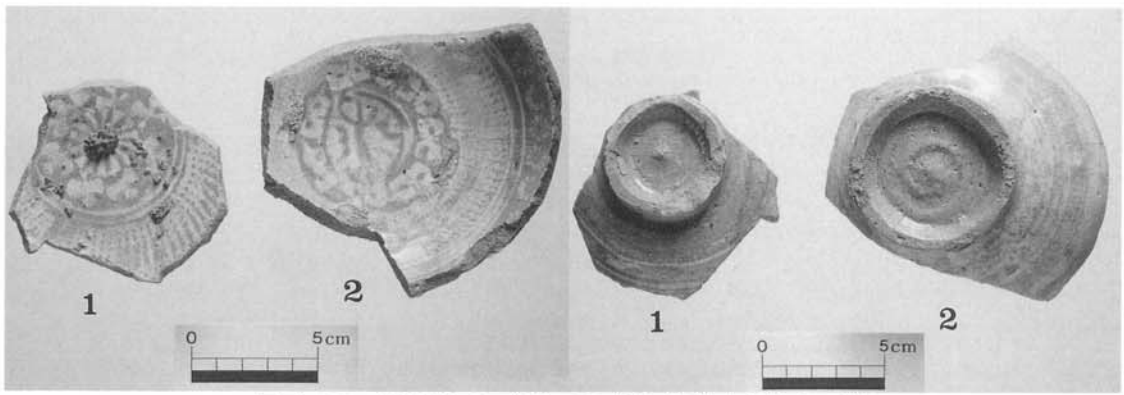
도판 26. 연주문 3 마상배편(측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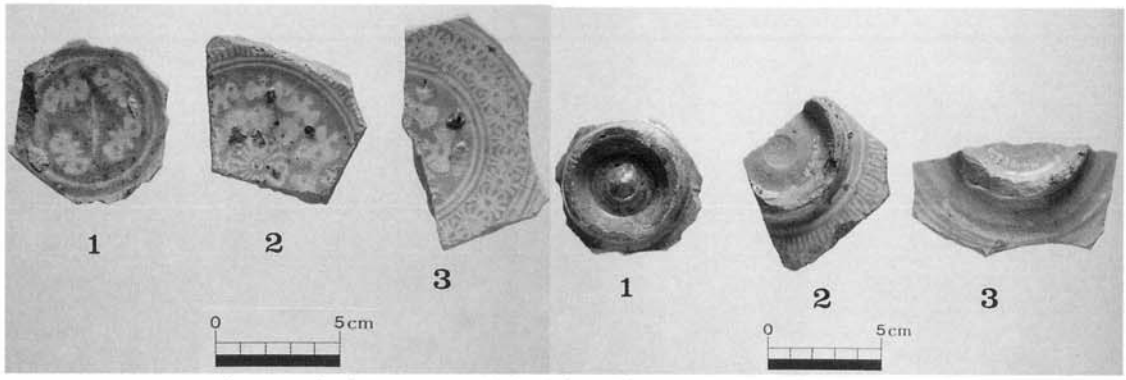
도판 26-1. 도판26 마상배(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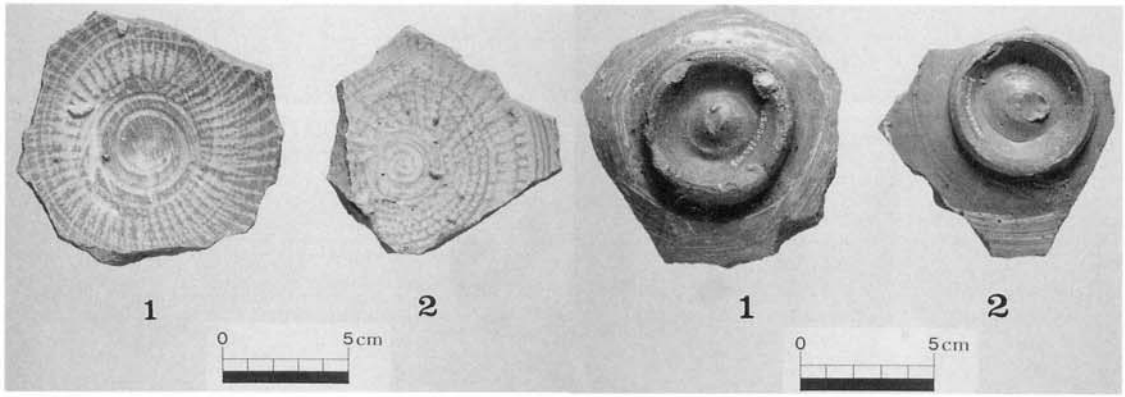
도판 27. 나비문 1a(1), 1b(2) 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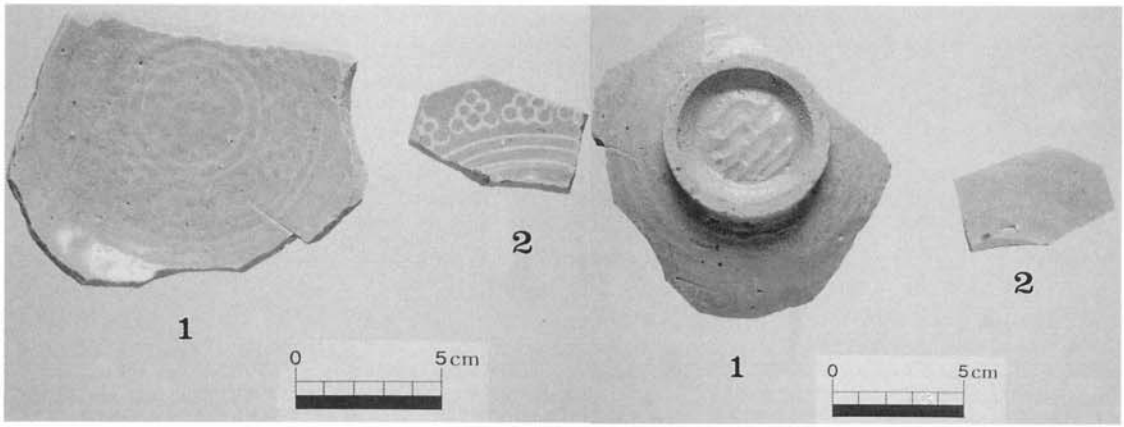
도판 28. 나비문 2a(1), 2b(2)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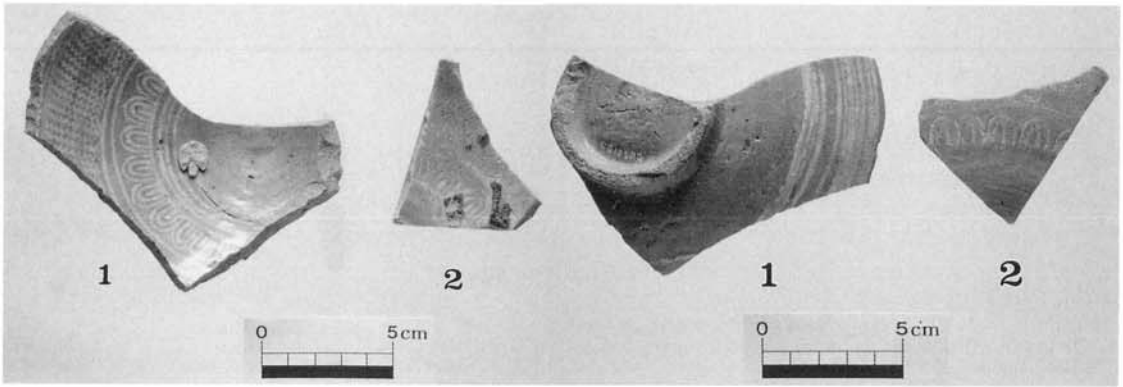
도판 29. 나비문 3, 4 대접편(1, 2), 5 접시편(3)(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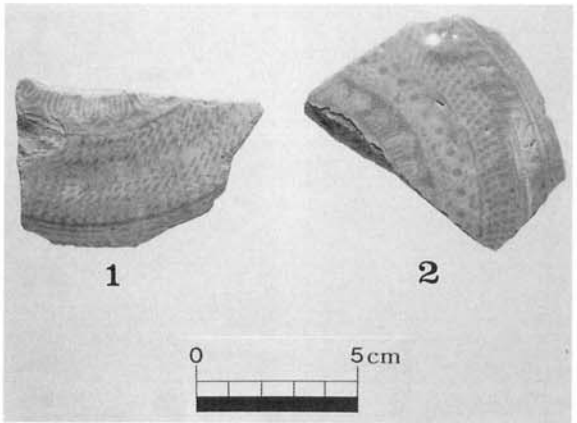
도판 30. 와선문 1 대접편, 2 접시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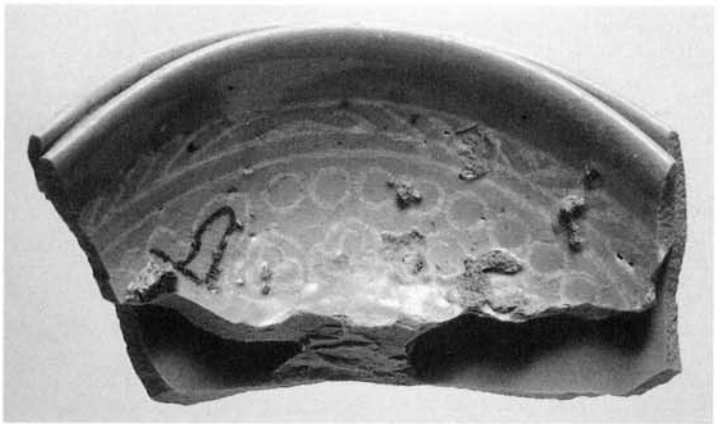
도판 31. 육원문 1, 2 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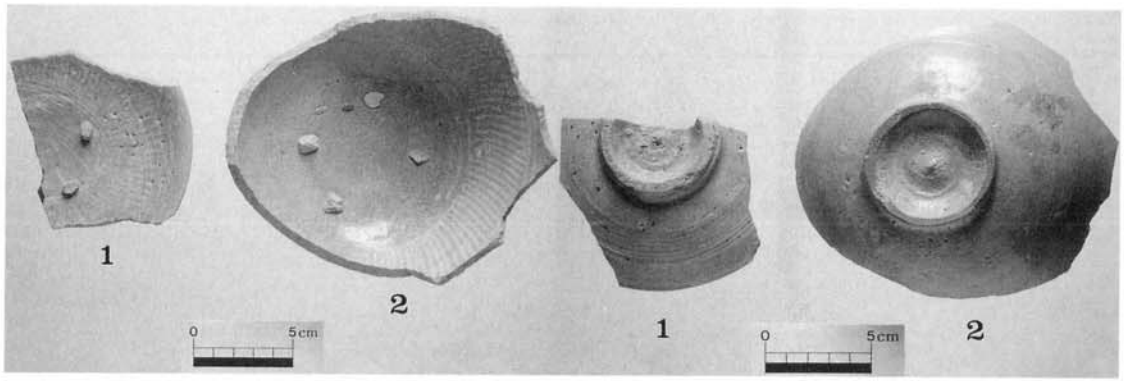
도판 32. 연판문 1, 2 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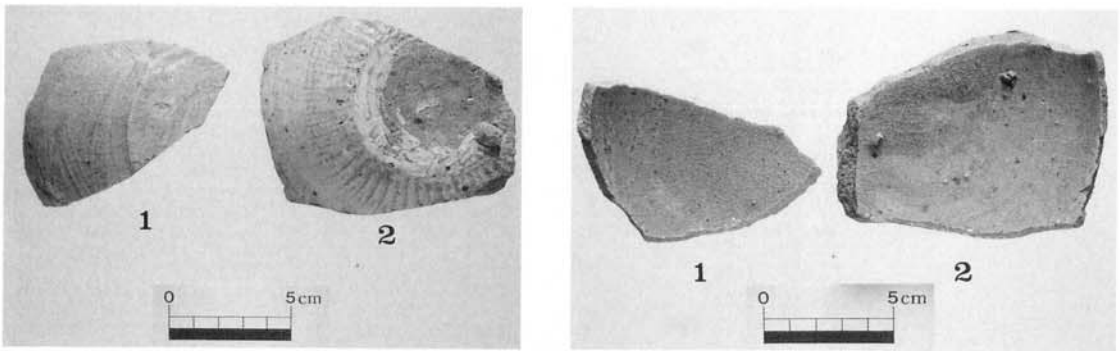
도판 33. 연판문 합 1, 2 뚜껑편(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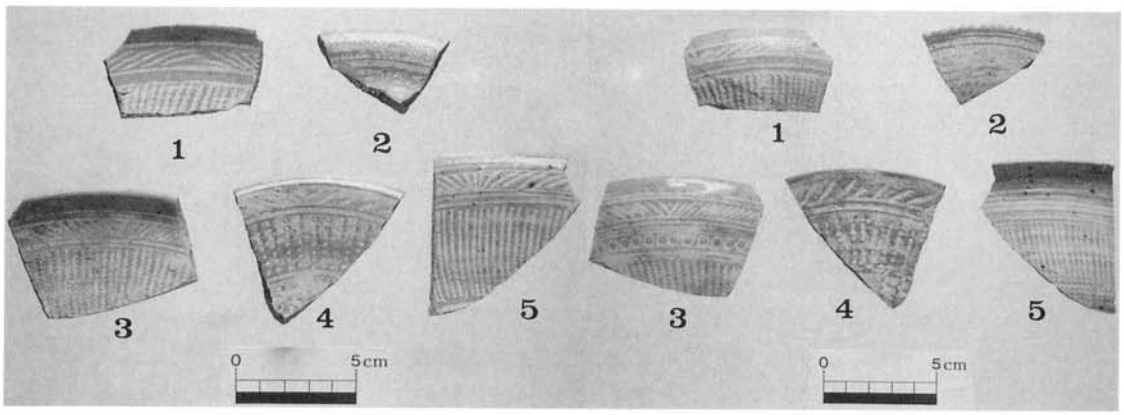
도판 34. 여의두문 대접편(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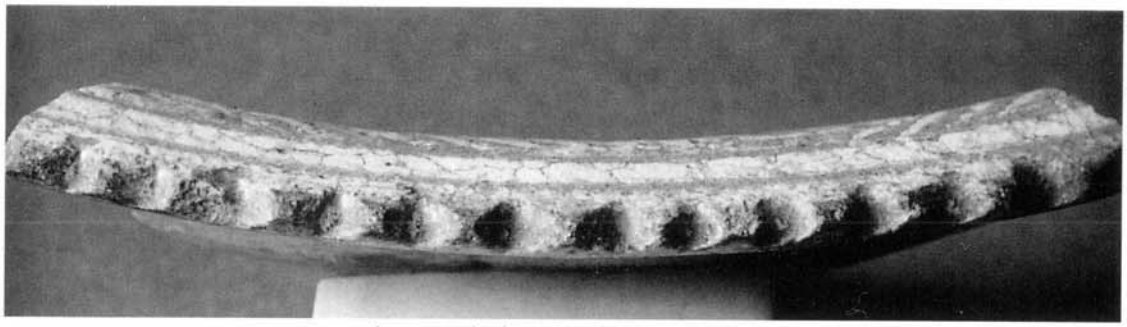
도판 35. 파선문 접시(1), 대접편(2)(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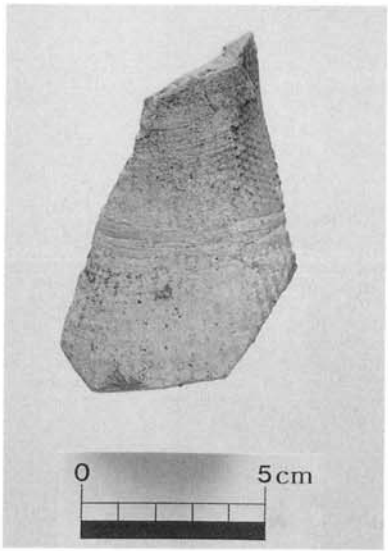
도판 36. 파선문 합편 1, 2(외면,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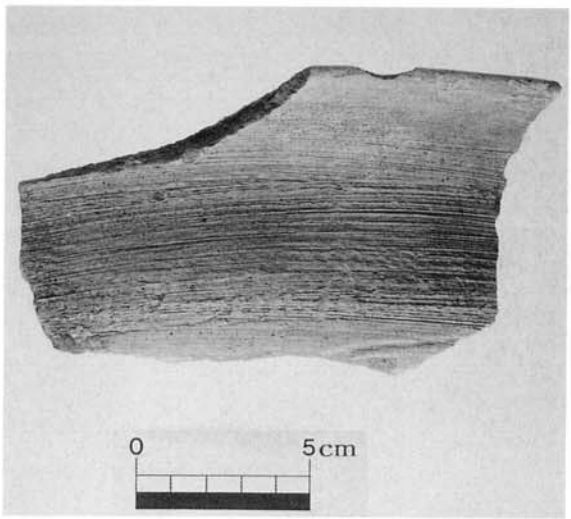
도판 37. 파선문 구연부편 1, 2, 3, 4, 5(내면,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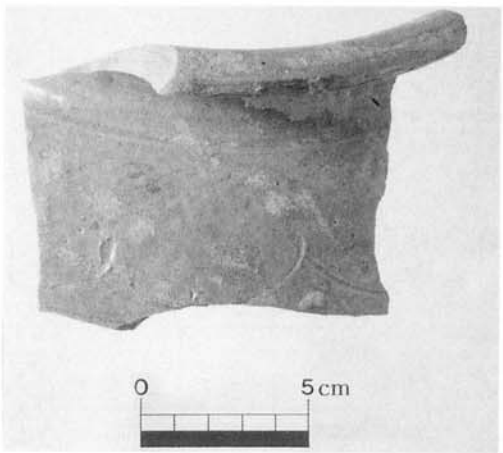
도판 38. 파선문 구연부편 2의 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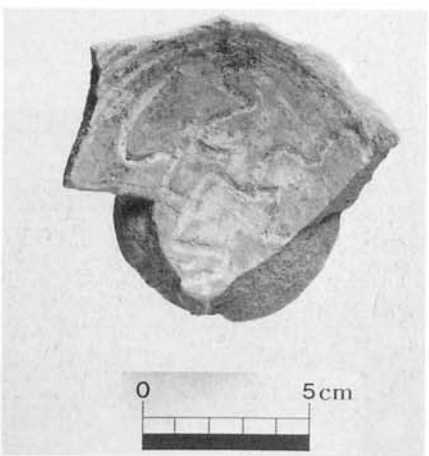
도판 39. 파선문 초벌구이 병편(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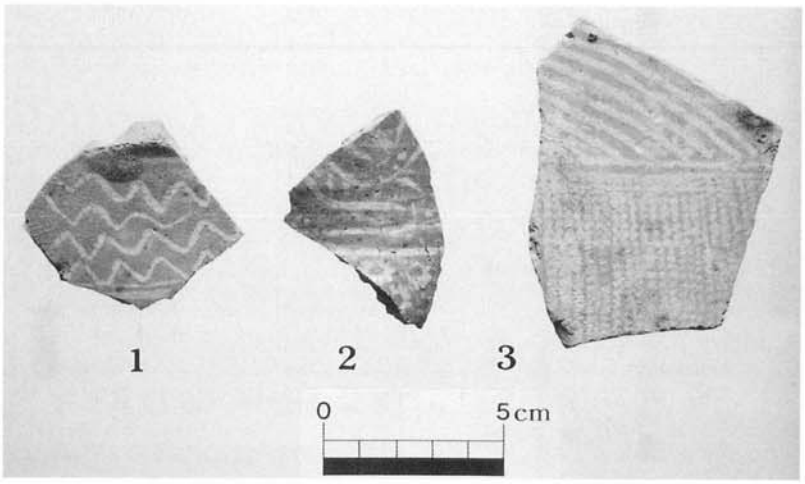
도판 40. 파선문 초벌구이 동이편(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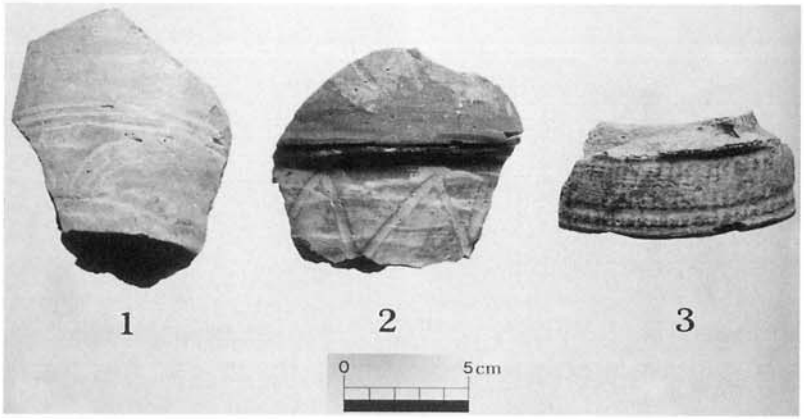
도판 41. 선문 호편(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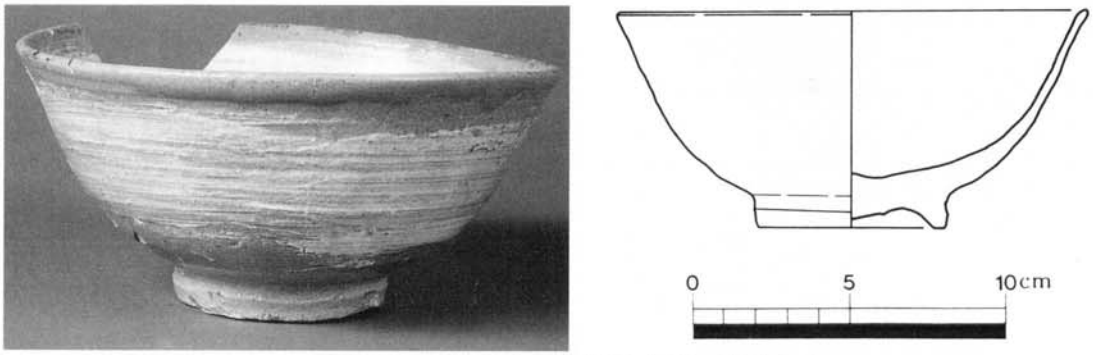
도판 42. 선문 초벌구이편(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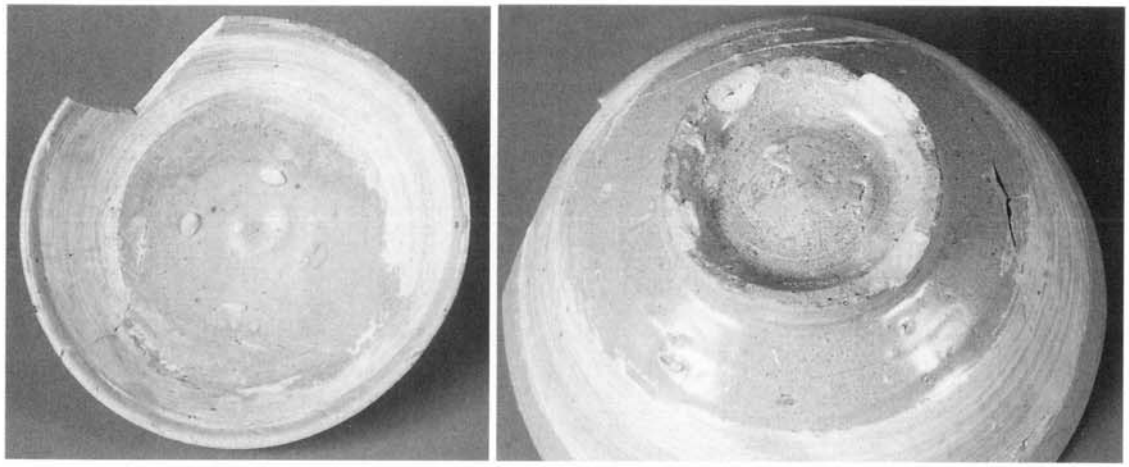
도판 43. 선문 호 동체편 1, 2, 3(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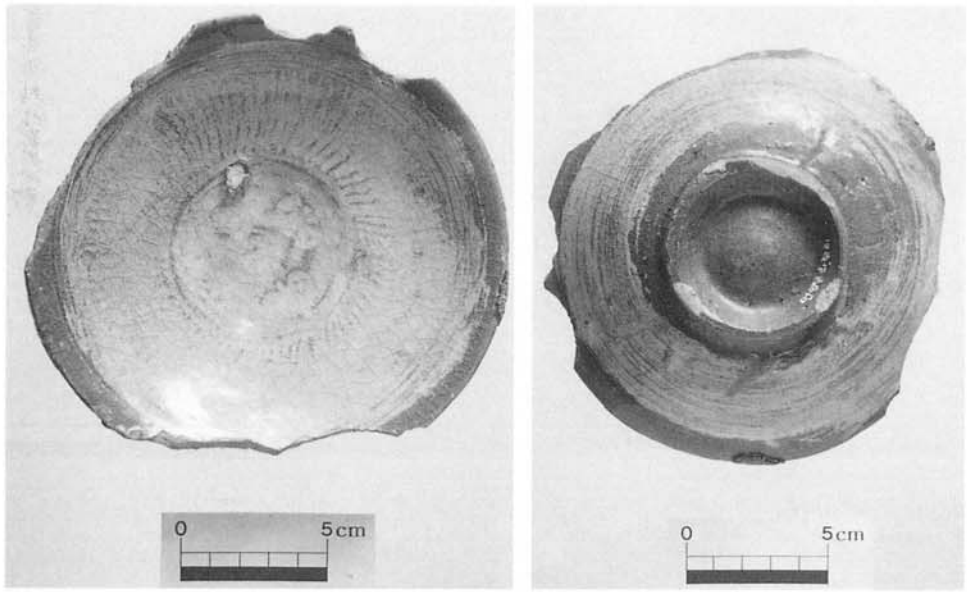
도판 44. 호 저부편 선문(1, 2), 파선문(3)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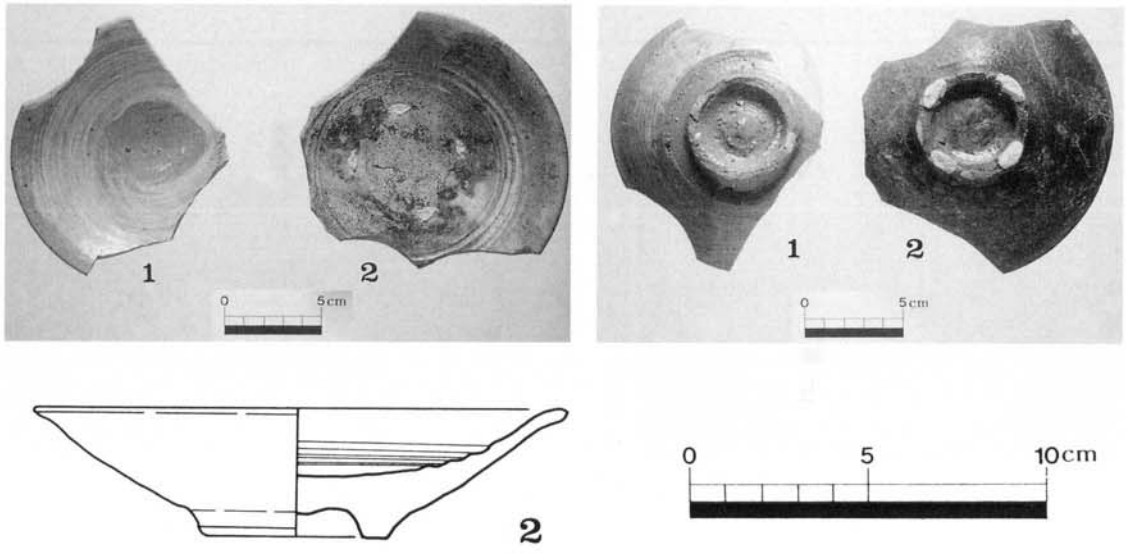
도판 45. 귀얄문 대접편(측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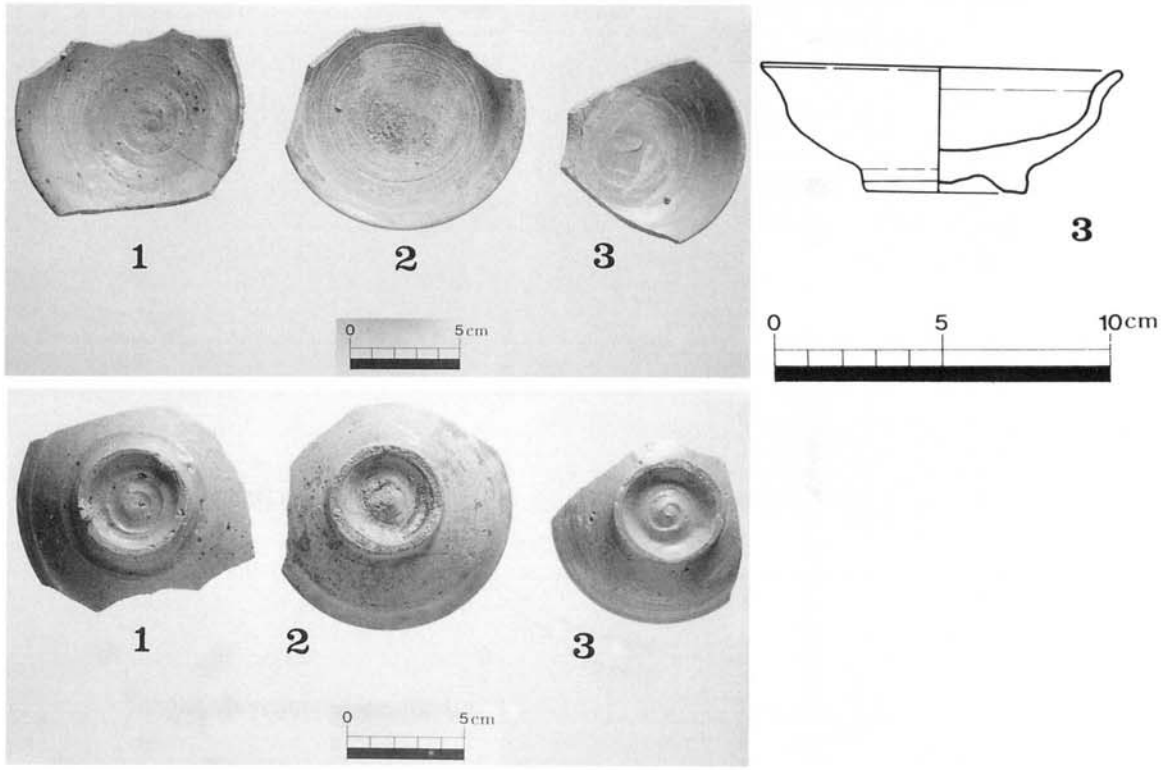
도판 45-1. 귀얄문 대접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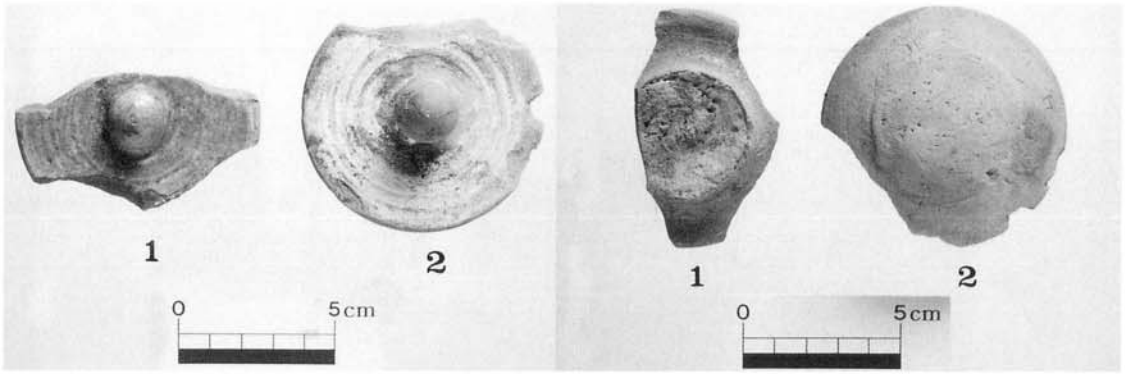
도판 46. 귀얄문 접시(내면, 굽,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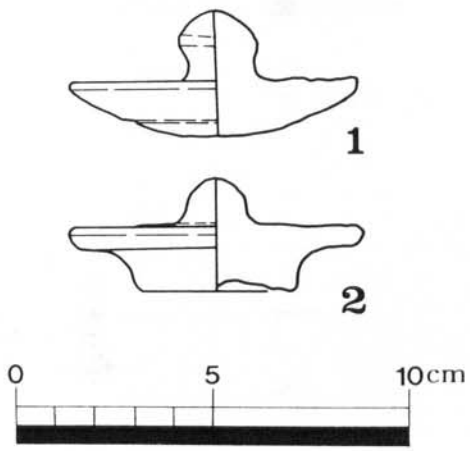
도판 47. 귀얄문 접시 1, 2(내면, 굽,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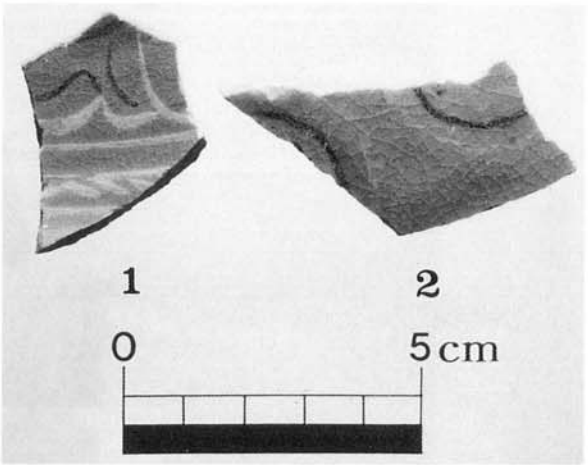
도판 48. 귀얄문 종지 1, 2, 3(내면, 굽,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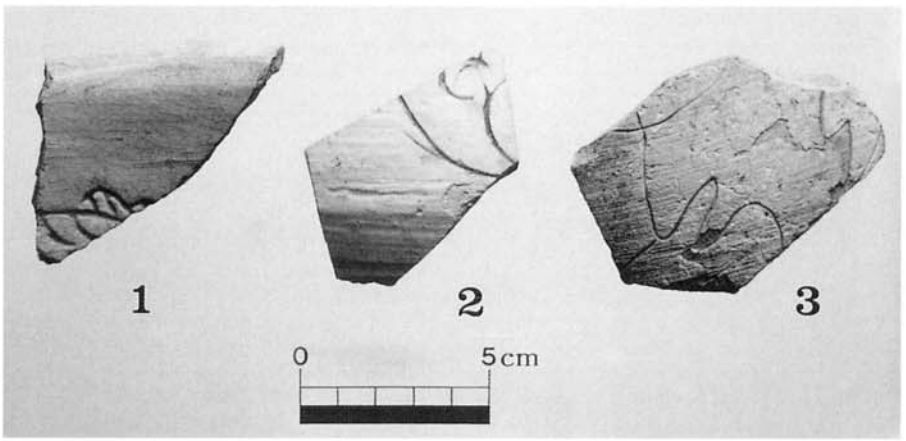
도판 49. 귀얄문 뚜껑 1, 2(상면, 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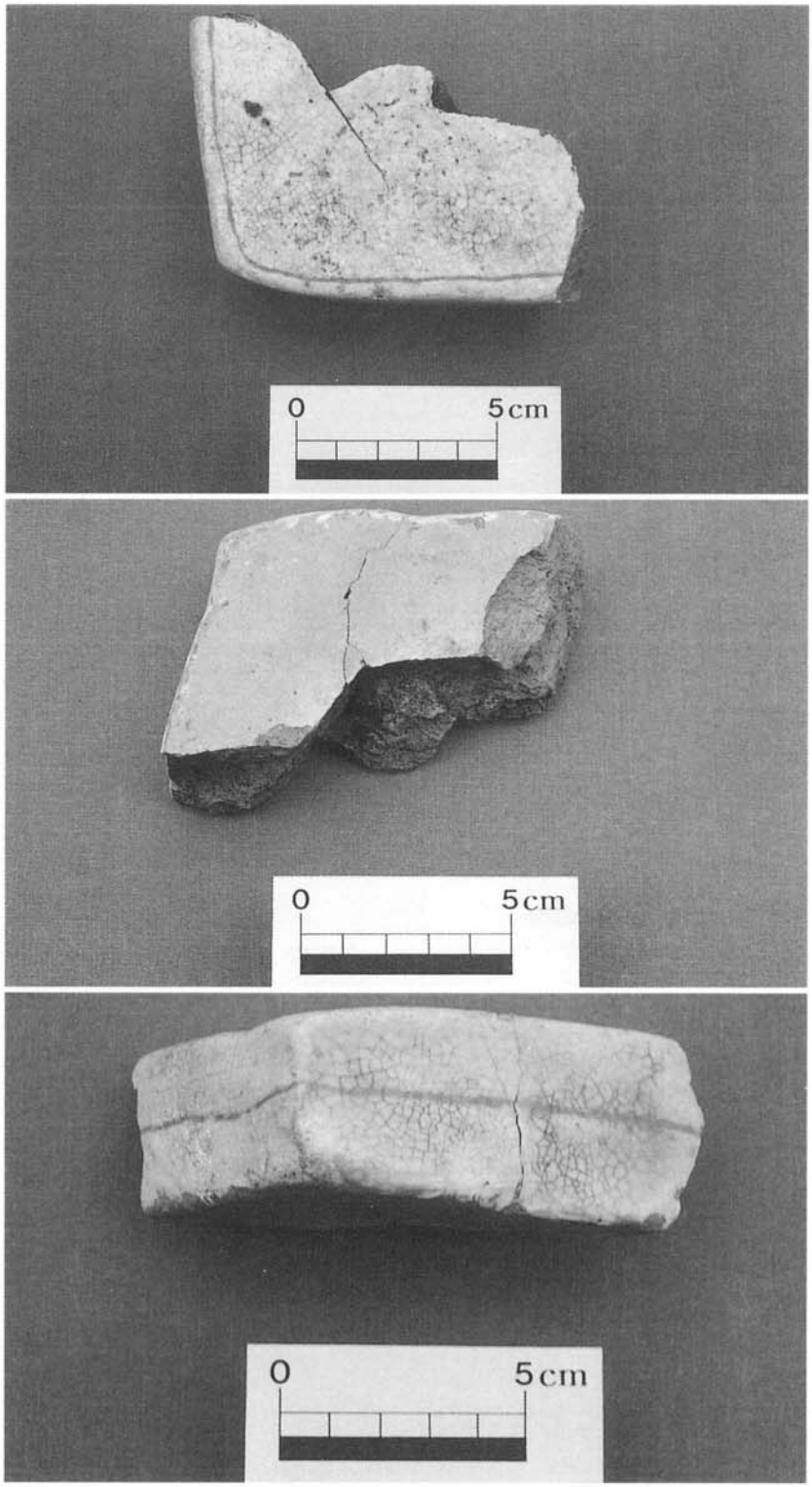
도판 49-1.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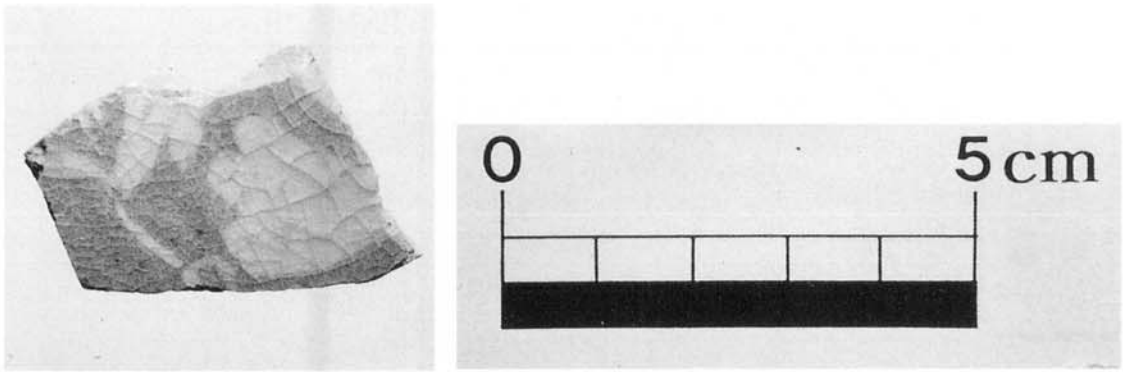
도판 50. 상감문 편 1, 2(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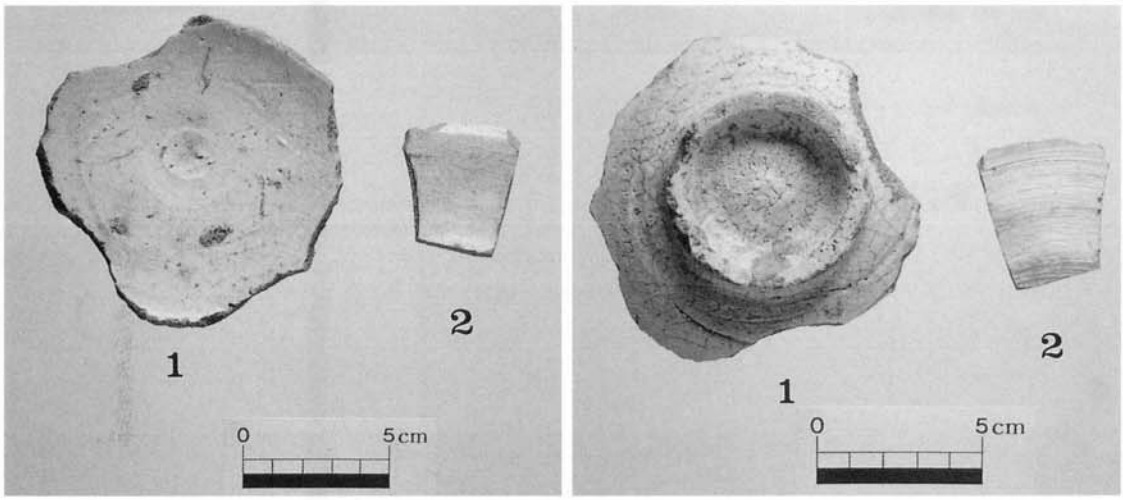
도판 51. 조화문 분청사기편 1, 2, 3(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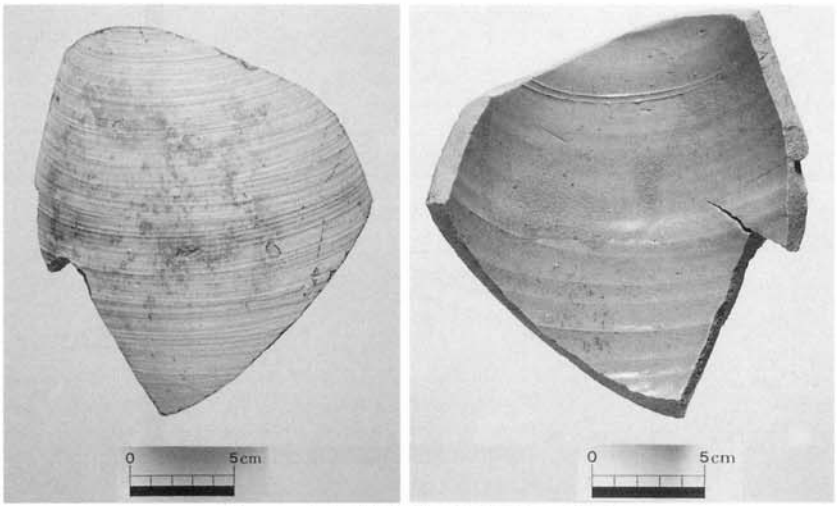
도판 52. 음각선문 분청사기편(상면, 하면,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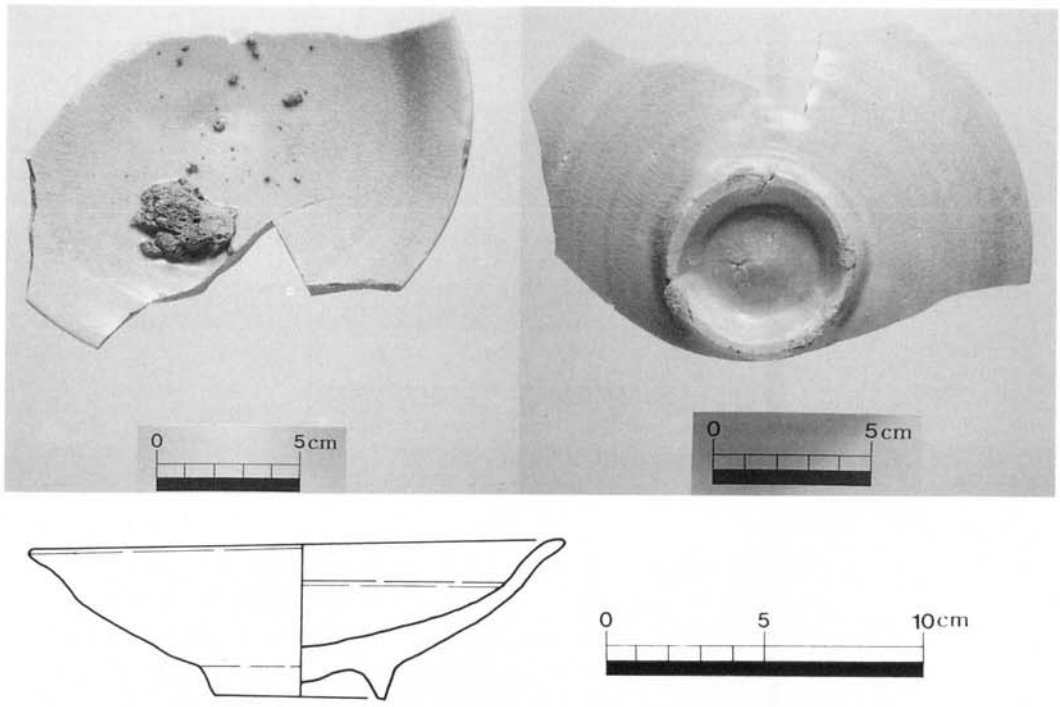
도판 53. 상감문 분청사기편(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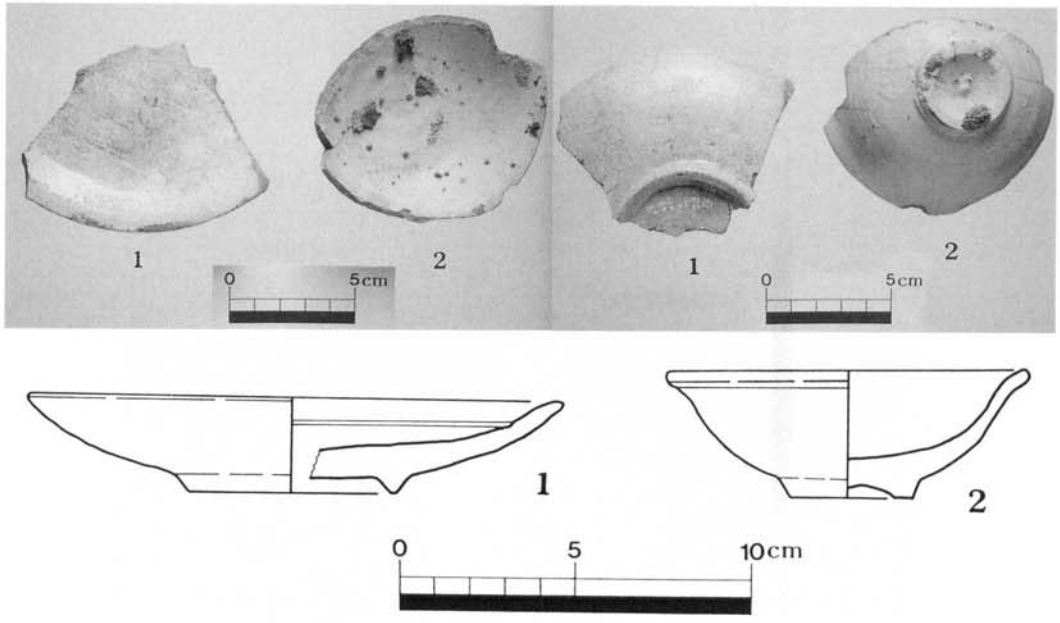
도판 54. 분장백자 대접편 1, 2(내면, 외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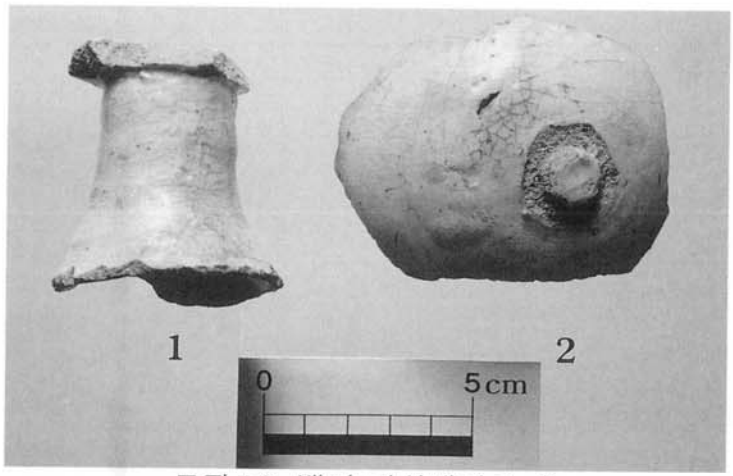
도판 55. 분장백자편(외면,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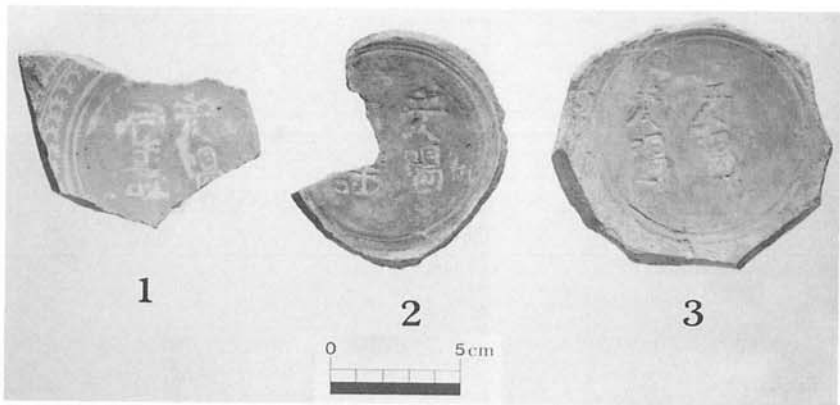
도판 56. 백자 접시편(내면, 굽,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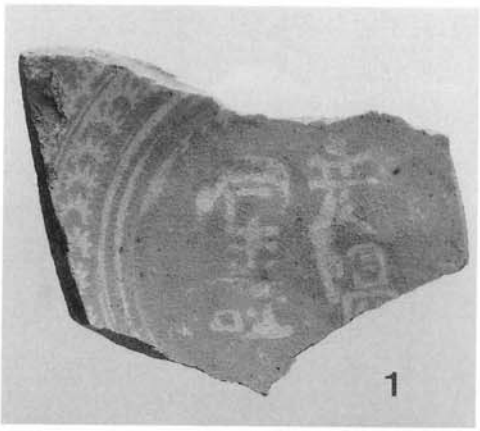
도판 57. 백자 접시(1) 및 종지편(2)(내면, 굽, 실측도)



도판 58. 백자 마상배편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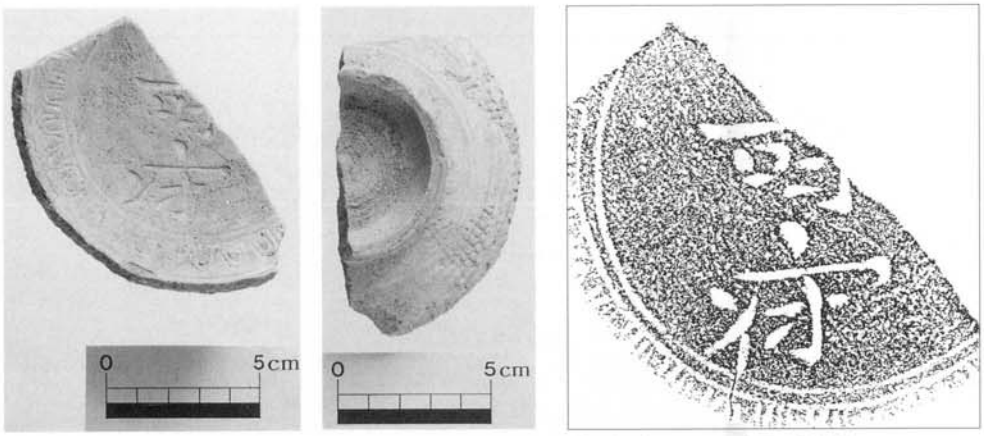


도판 59.「彦陽 仁壽」(1, 2) 및「彦陽 彦陽」(3) 명문도자기편(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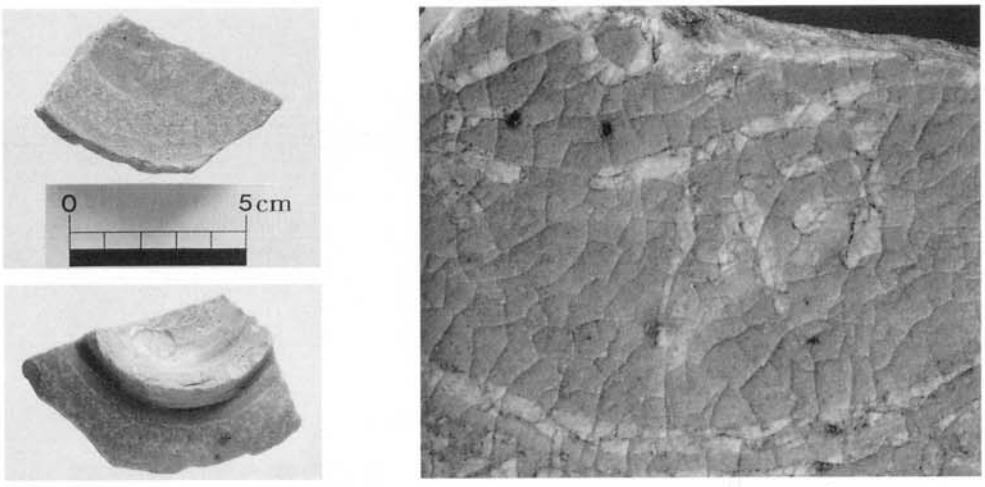


↑도판 59-1. 도판 59. 1의 명문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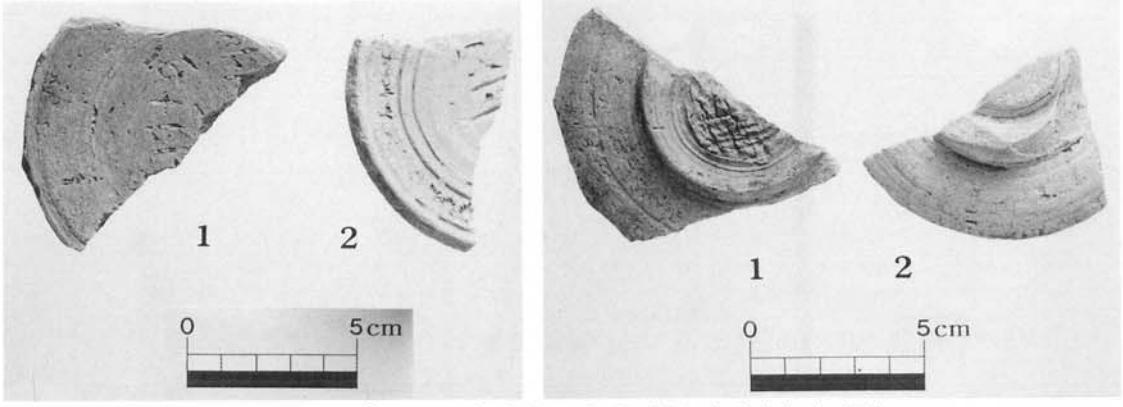
도판 59-2. 도판 59. 3의 명문세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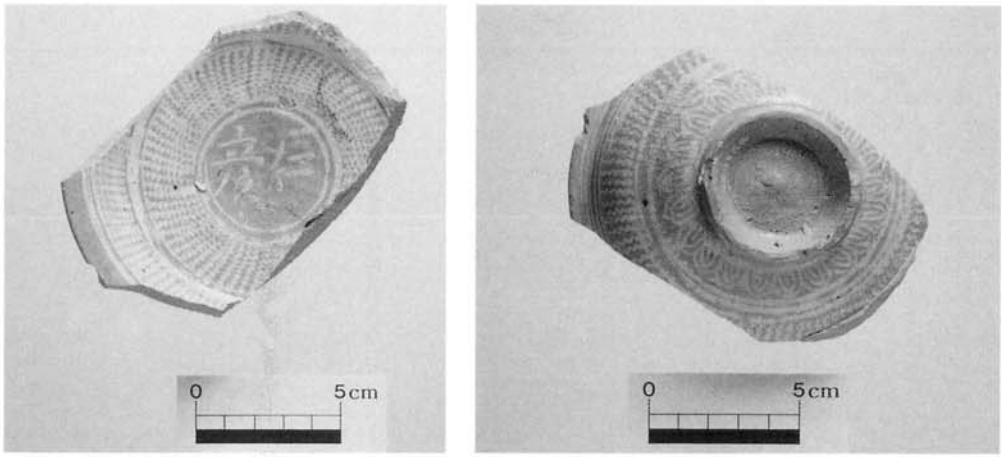
도판 60.「○壽府」명 초벌 대접편(내면, 굽, 명문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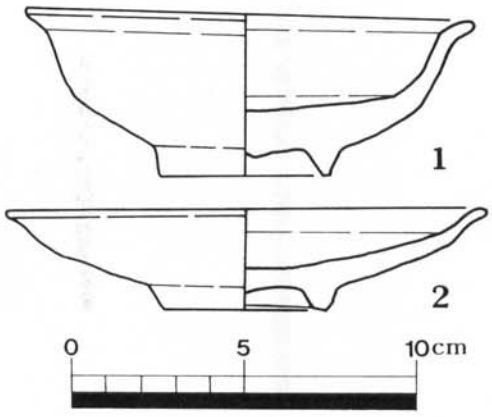
도판 61.「○壽(?)府」명 종지편(내면, 굽, 명문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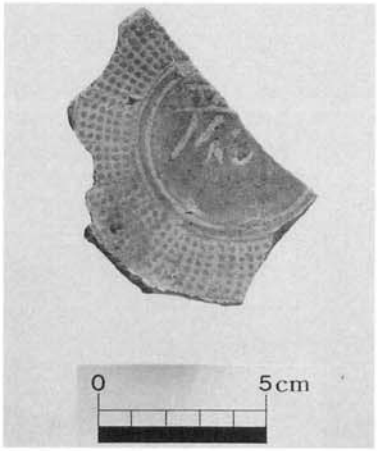
도판 62.「彦○公(仁)壽」명 초벌구이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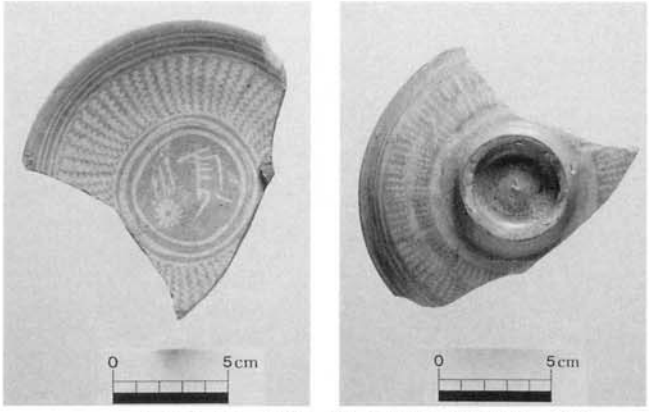
도판 63. 「彦仁」명 종지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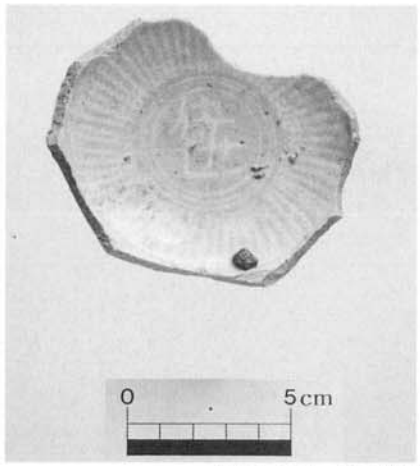
도판 63-1. 1은 도판 63, 2는도판65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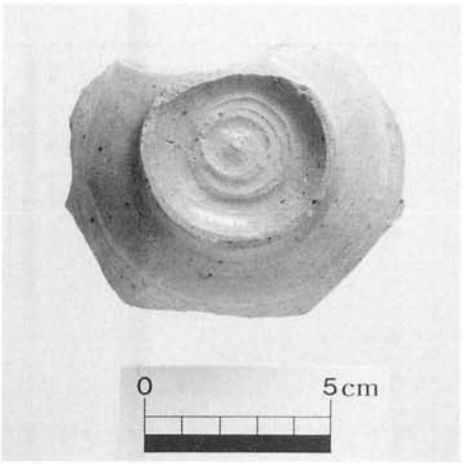


도판 64. 「彦○」명 종지편(내면)



도판 65. 「順」명 접시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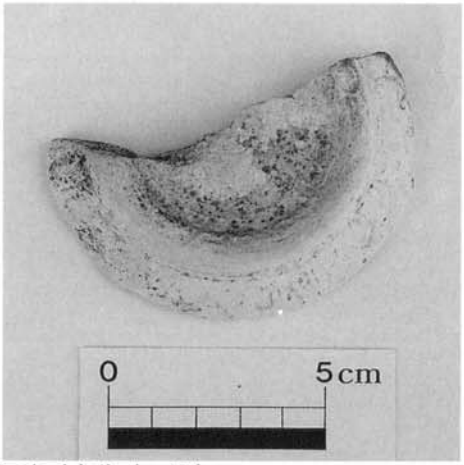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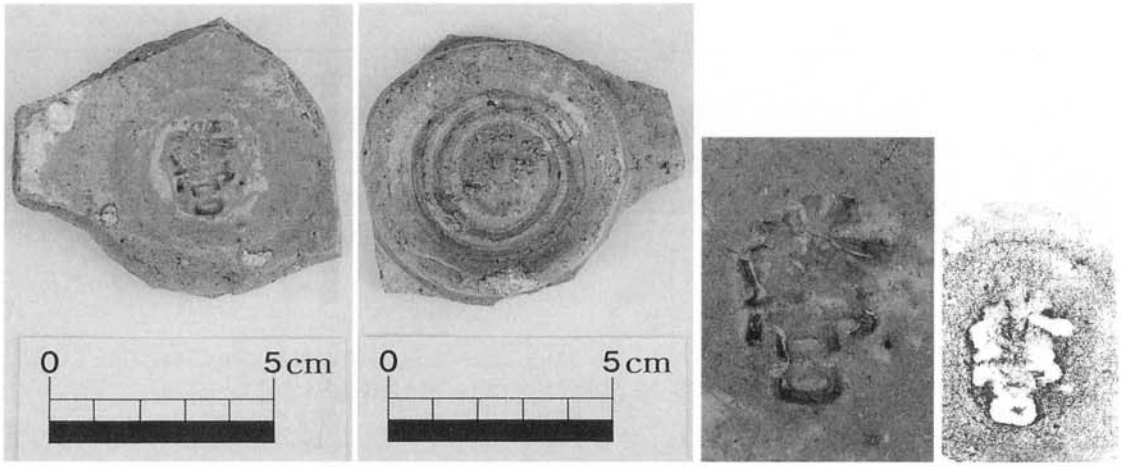
도판 66. 「○世(?)」명 종지편(내면, 굽)

도판 67. 「礼」명 분청사기편(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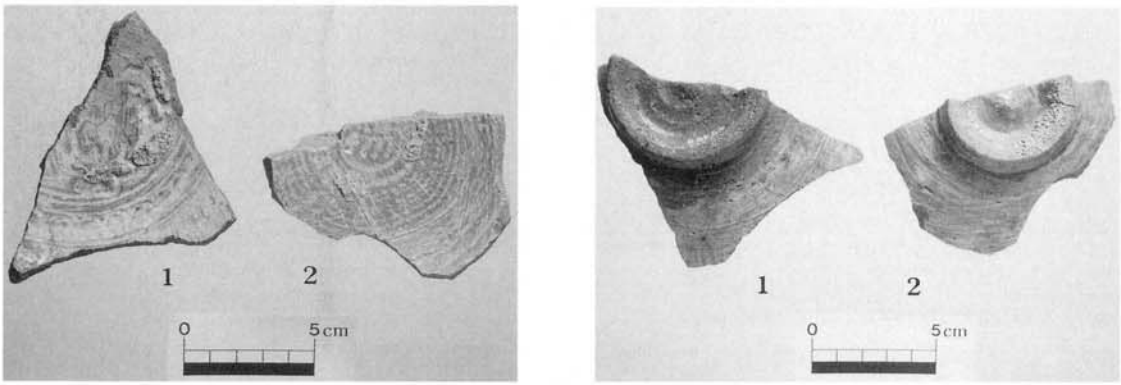
도판 68. 「長興」명 분청사기편(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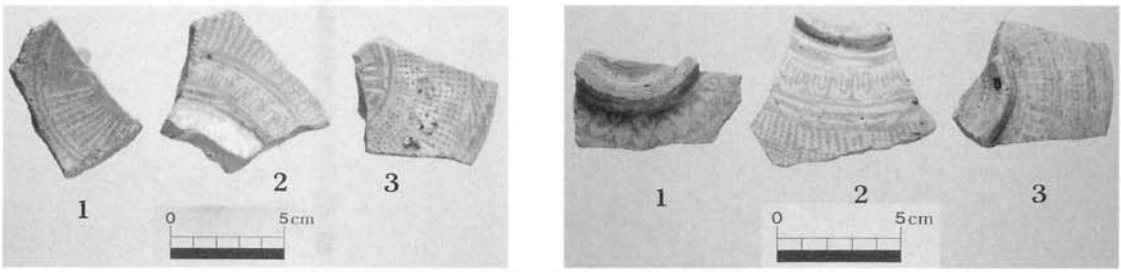
도판 69. 「彦陽 ○興」명 초벌구이편(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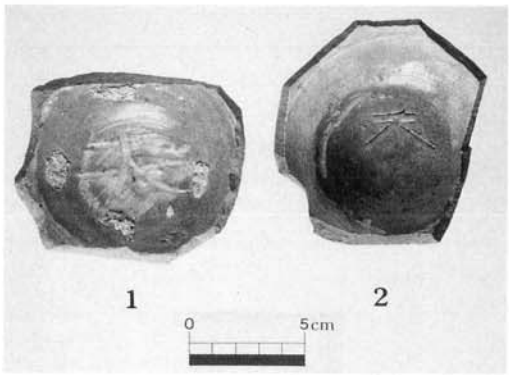
도판 70. 「水營」명 분청사기편(내면, 굽, 명문세부, 명문탁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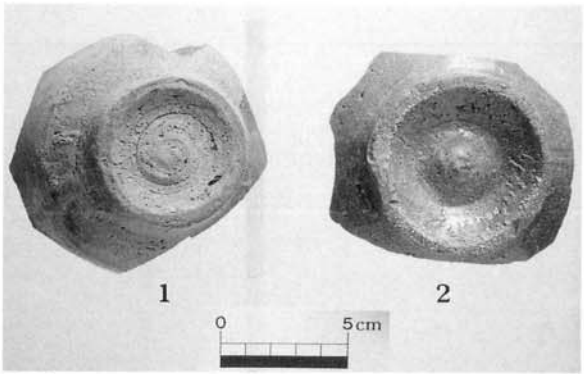


도판 71. 不明文字 분청사기편 1, 2(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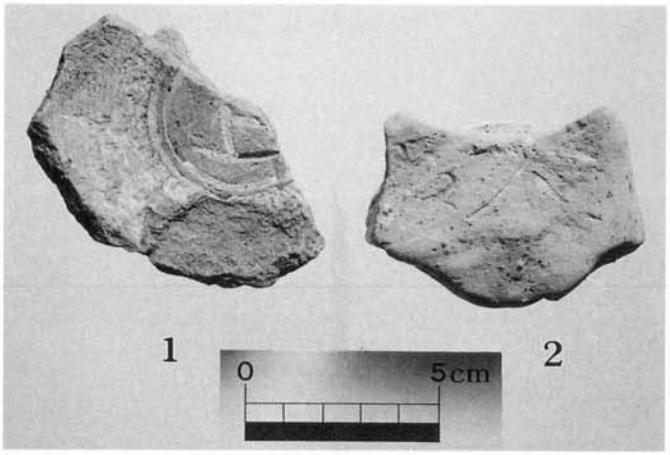


도판 72. 不明文字 小片 1, 2, 3(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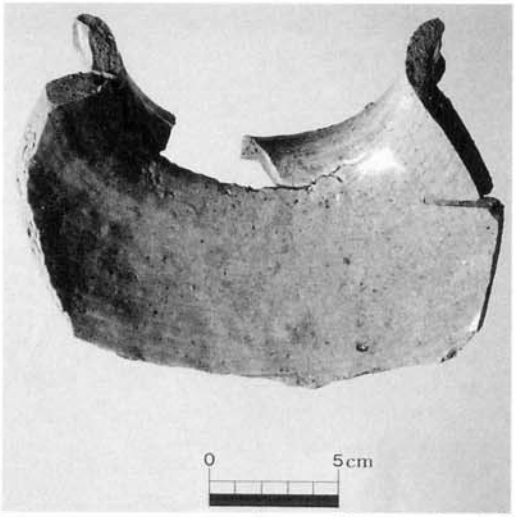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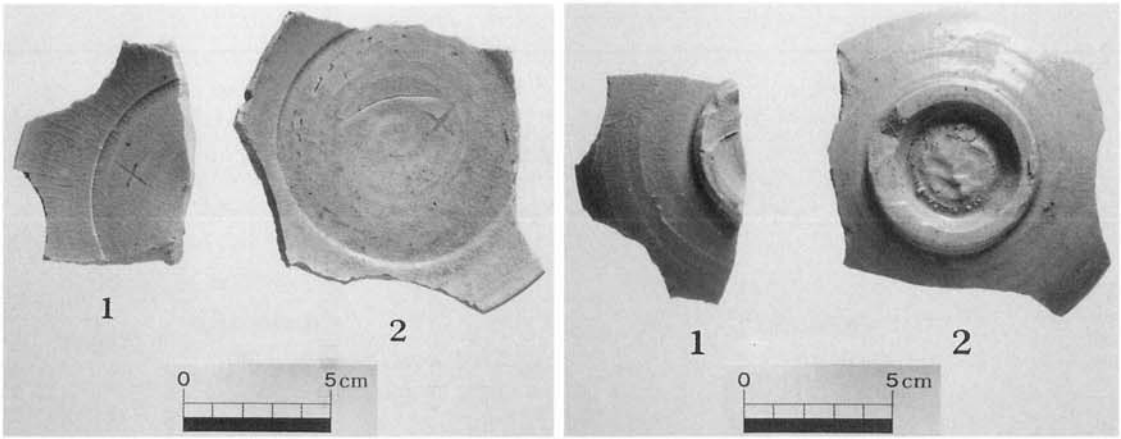
도판 73. 「夫」명 대접편(1), 종지편(2)(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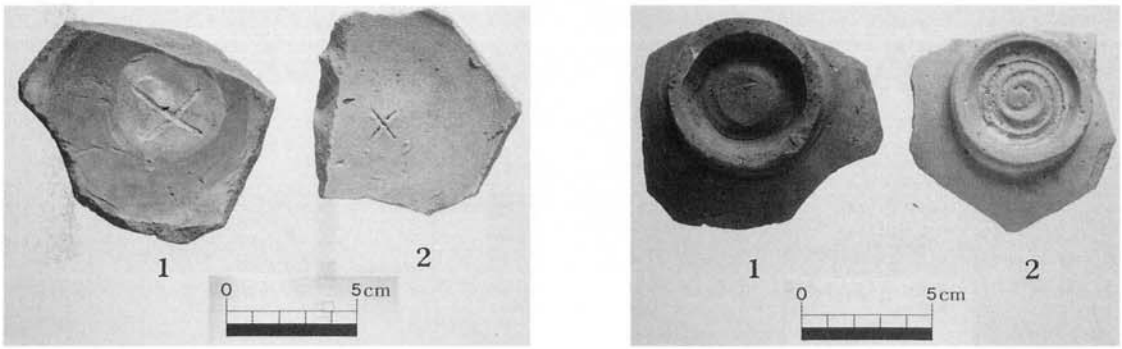
도판 74. 「上」, 「大」명 초벌구이편(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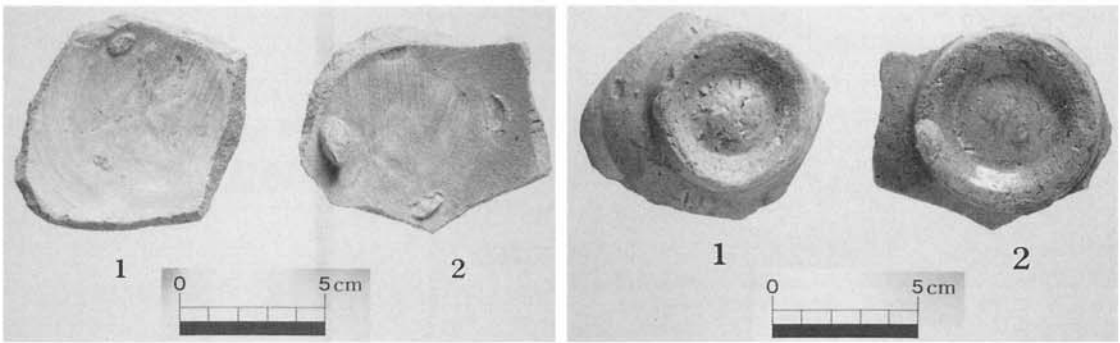
도판 75. 「五月」명 태항아리편(외면, 내면, 명문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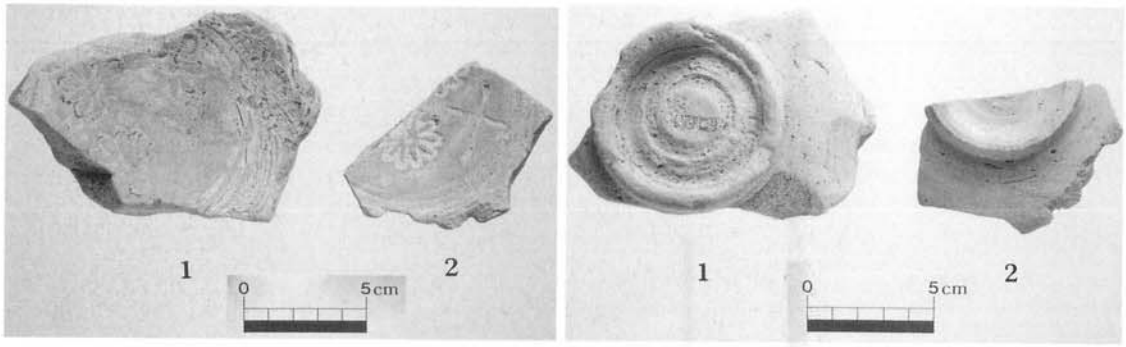
도판 76. 「十」명 청자접시편1, 2(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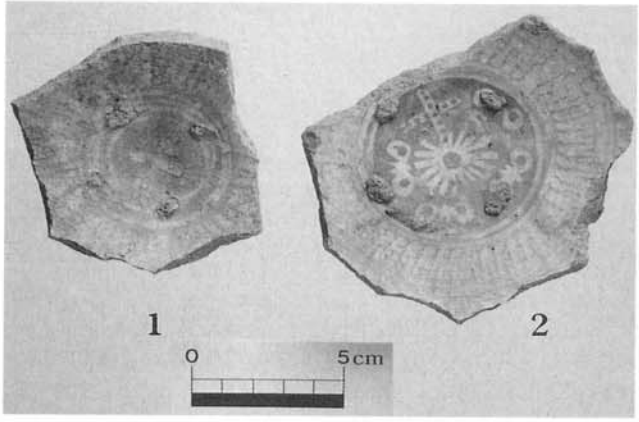
도판 77. 「十」명 분청사기편1, 2(내면, 굽)



도판 78. 「十」명 귀얄문 분청사기편 1, 2(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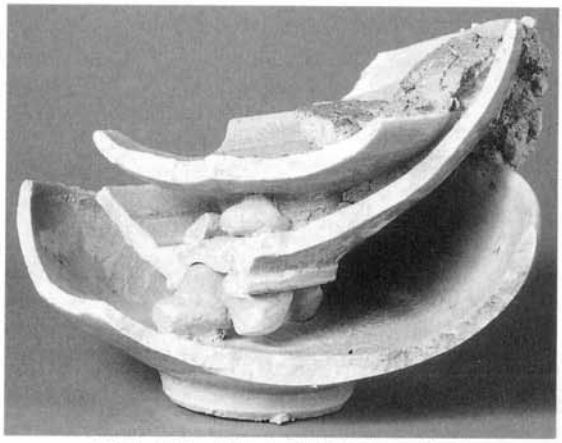


도판 79. 「十」명 인화문 초벌구이편 1, 2(내면, 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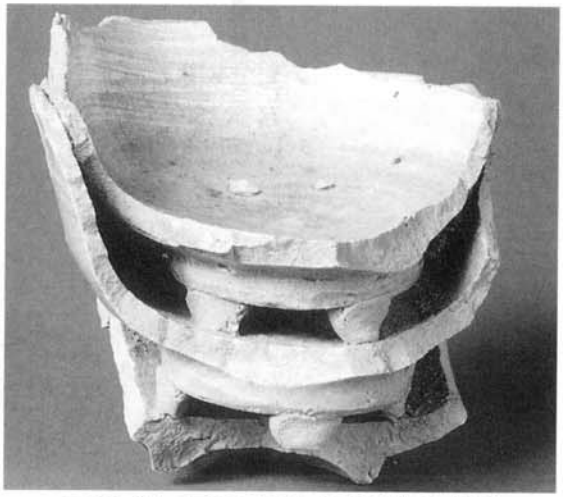


도판 80. [十]명 인화문 분청사기편1, 2(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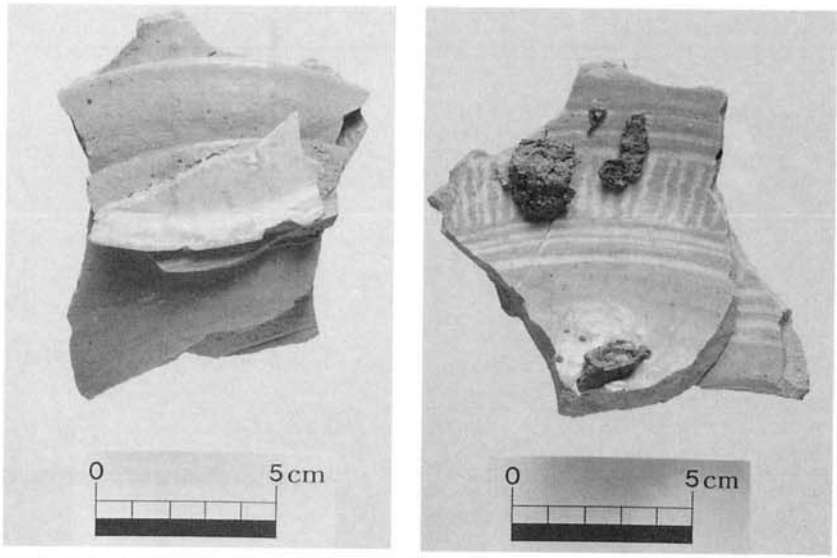
도판 81. [入]형 표기 초벌구이 대접편(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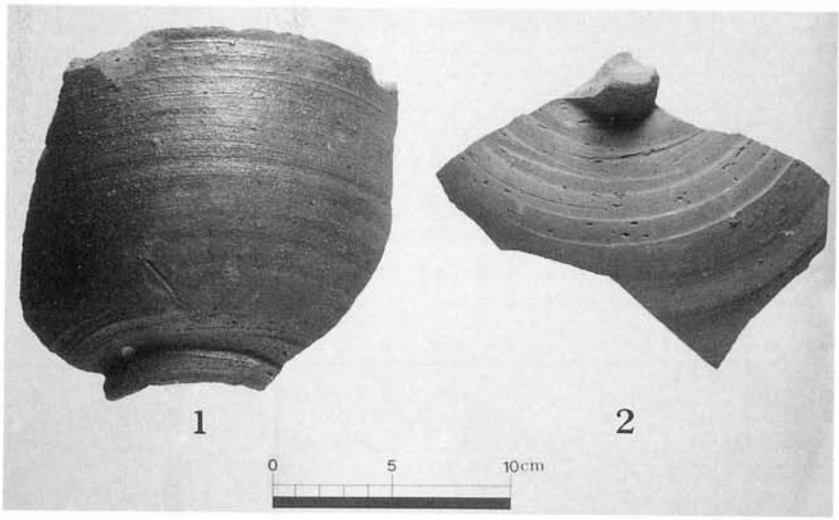
도판 82. 청자 常燔 번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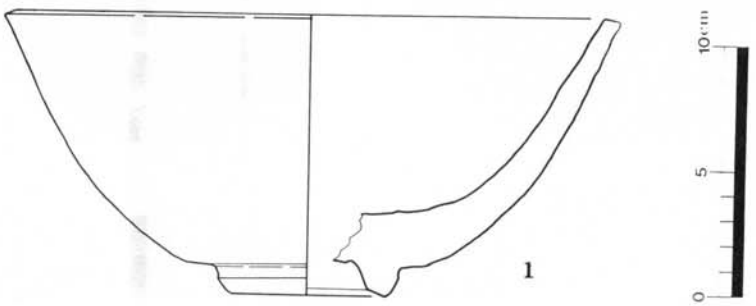


도판 83. 분청사기 常燔 번조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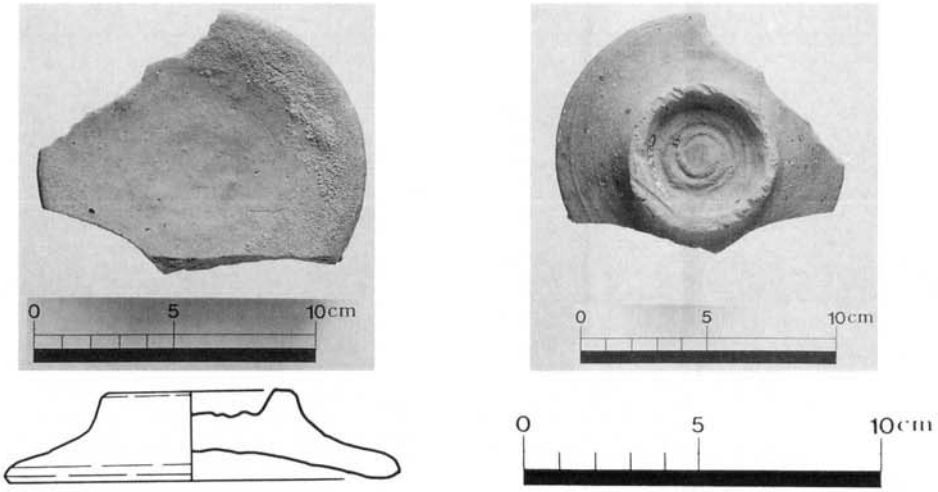


도판 84. 常燔상태(분청사기에 백자가 부착된 상태: 외면, 내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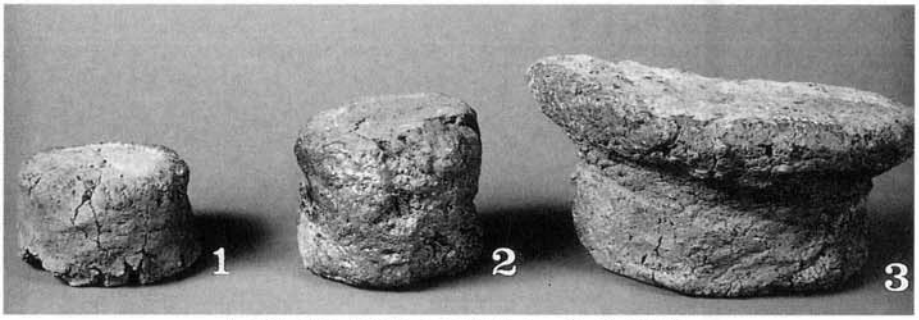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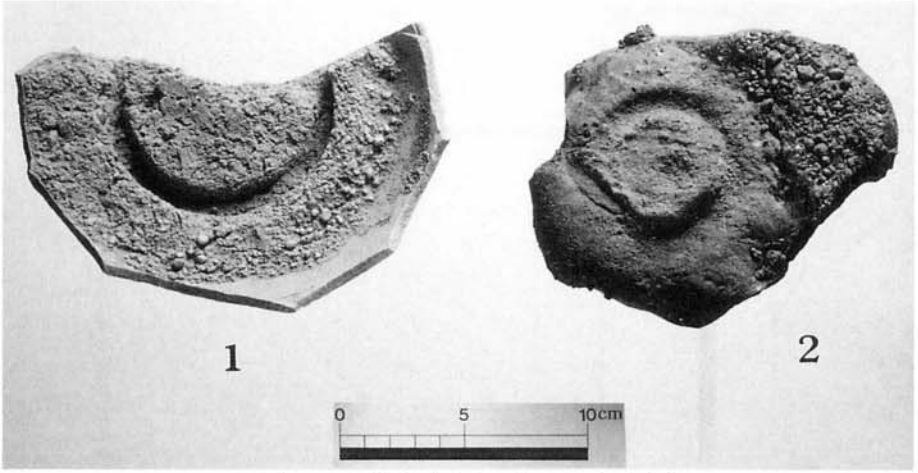
도판 85. 갑발편 1, 2(외면, 갑발1의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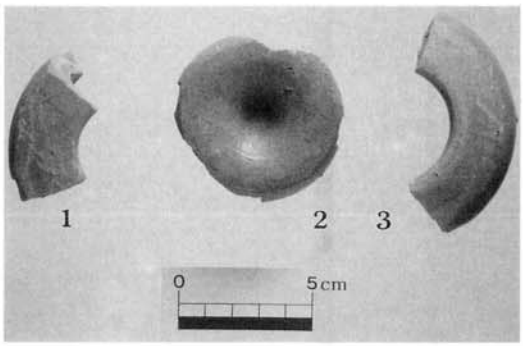
도판 86. 갑발 뚜껑편(하면, 상면, 실측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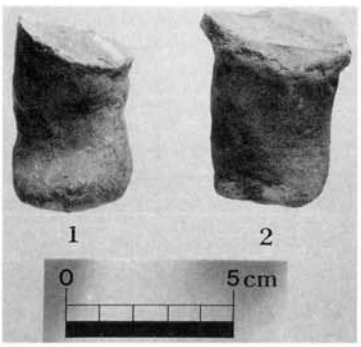
도판 87. 토제 도지미 1, 2, 3 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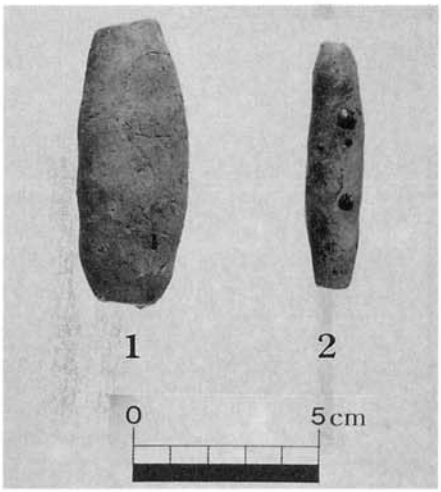
도판 88. 폐자기(1), 돌 도지미(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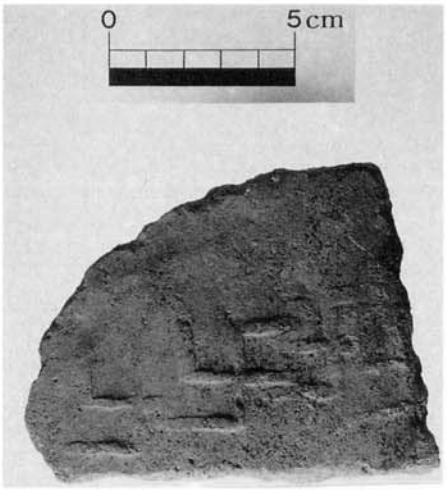
도판 89. 물레 부속구 1, 2,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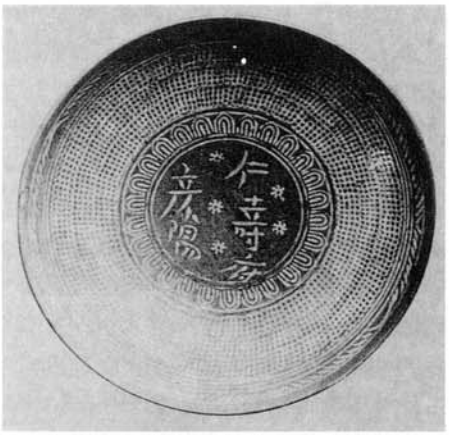
도판 90. 분청사기 다리편 1, 2



도판 91. 어망추 1, 2



도판 92. 「卍」자명 평와편



도판 93. 「彦陽 仁壽府」명 인화분청사기 대접 정양모, 『분청사기』, 중앙일보사, p.182에서 전재

도판 94. 공동조사단원 (2000. 4. 26. 촬영)

蔚山「彦陽 磁器所」地表調査 報告
- 蔚州郡 三同面 荷岑里 陶窯址-

2000년 5월 17일 인쇄
2000년 5월 19일 발행

편집 · 발행

위덕대학교 박물관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 50번지
☎ 0561-760-1251, 1252
FAX 0561-760-1259

울산대학교 박물관
680-749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산 29번지
☎ 052-259-2634
FAX 052-259-2632

인쇄 : 느티나무
대구광역시 중구 대봉2동 88-4번지
☎ 053-423-1566
FAX 053-423-1567